

RR 2012-06

#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반 상 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반상진 (전북대)

공동연구원 신현석 (고려대)  
이석열 (남서울대)  
이은구 (한남대)  
이준희 (고려대)

연구보조원 양지운 (고려대)

연구협력관 정관우 (교육과학기술부)

2012. 10.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힙니다.

## 머 리 말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고양시키고 있다. 이제 대학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에 대학원은 창의적인 학술연구 역량 배양,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학술연구를 담당할 고도의 이론 및 전문적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할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목적이 전문직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개발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법학, 경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전문대학원에 치중된 연구는 전문직업분야가 다양화·고도화 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외의 전반적인 전문대학원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외국 전문대학원제도 현황 그리고 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과 내실화를 위한 전문대학원 질제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정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신 현 석



## <연구요약>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2011년 현재 일반대학원 178개, 전문대학원 206개, 특수대학원 783개로 총 1,167개의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은 지난 12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학원이 고급 전문 인력 및 현장 실무형 연구인력 배출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기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과의 차별성 및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원에 대한 연구는 의학, 법학, 경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기본 현황이나 분석 등의 기초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연구 여건 및 운영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하였고, 전문대학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 및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향과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 기준 전문대학원 중 경영, 법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II장의 전문대학원 현황 분석은 2011년 정보공시자료를 대상으로 2012.5.31.~2012.6.7. 에 추출하여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연구대상은 60개 일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97개 전문대학원(국공립 14개교/24대학원, 사립 46개교/73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5개 대학원(국공립1개, 사립 34개) 등 총 132개 전문대학원 중 2012년과 2011년에 신설된 대학원 중 5개와 기타 자료가 불완전한 전문대학원 6개를 제외한(이름의 변경이나 학과의 변경 등으로) 121개 전문대학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IV장의 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은 이러한 132개의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수는 교수 총 350명(사립대 76.9%, 국공립대학 23.1%), 대학원생 총 1,225명(사립대 76.1%, 국공립대학 23.9%)이었다.

## 1. 국내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분석

1) 전문대학원의 전체적인 현황을 여건 측면, 연구성과 측면, 운영현황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원의 여건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학원당 11명의 전임교원이 있었으며, 전임 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는 14명이었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9%였다. 반면,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은 12%로 대학원당 11명의 전임교원 중 1명꼴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점으로 전문대학원의 취지가 전문 실무인력의 양성이라고 할 때, 교원의 질이나 교육과정이 이를 달성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원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전체적으로 0.53편으로 나타났고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188만원이었다.

셋째,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2.3대 1로 나타나고 있다.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은 각각 98%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등 정원의 입학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충원률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석사학위자의 경우 64%, 박사학위자의 경우 82%로 나타났다. 기졸업자가 입학한 경우도 취업자로 통계에 포함되는데, 실제 상당수의 기취업자가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미취업자가 전문대학원의 졸업 후 취업한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전문대학원의 주·야간 수업 실시문제로 기취업자를 위한 수업방안이 문제가 된다.

2)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설립주체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공립형태의 전문대학원이 사립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의 여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임교원수에서 국공립(13명)이 사립(11명)보다 많았고, 비전임교원수는 국공립(8명)이 사립(13명)보다 적었다.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은 국공립(15%)이 사립(11%)보다 높았다.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국공립(12명)이 사립(15명)보다 적었고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차이가 없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78%)이 사립(66%)보다 높았고, 시간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국공립(8%)이 사립(21%)보다 매우 적게 나타났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임교원 1인당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국

공립(0.63편)이 사립(0.5)보다 높았고, 전임교원 1인당 해외 학술지 논문에서도 국공립(0.32편)이 사립(0.1)보다 높았다. 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국공립(306만원)이 사립(433만원)보다 적었으나 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국공립(12207만원)이 사립(5893만원)보다 매우 많았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학정원은 국공립(60명)이 사립(66명)보다 적었고,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모두 각각 국공립(114%, 111%)이 사립(95%, 94%)보다 높았다. 취업률에서는, 석사학위의 경우 사립(64%)과 국공립(63%)이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박사학위자의 경우 국공립(92%)이 사립(81%)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전문대학원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분포와 관련해서 서울 지역에 68개(56.2%)로 전체의 절반이상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93개(76.8%)가 설립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 전임교원 수는 차이가 없으나 비전임 교원수에서는 수도권이 더 많았다. 수도권 전문대학원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 비해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더 높았다. 아울러, 수도권 전문대학원이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조금 많음에 비해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차이가 없었다. 신입생 충원률과 경쟁률, 취업률, 중도탈락율 등에서 약간 수도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내외 연구비는 비수도권이 더 많았으며,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실적 등은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대학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이러한 수도권의 전문대학원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다소 상황이 좋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원의 지역별 편차가 문제가 된다.

4) 전문대학원 현황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학계열이 양호하고 예체능계열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의 여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전임교원수는 인문사회(11명), 공학(9명), 예체능(8명) 순이었고,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는 인문사회(15명), 공학(14명), 예체능(11명)으로 인문사회와 공학계열이 별차이가 없었다. 입학정원은 인문사회(67명), 예체능(53명), 공학(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을 보면, 공학(15%), 인문사회(12%), 예체능(3%) 순이었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공계열이 타계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현황과 연구비 현황에서 모두 그러하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학생 충



원률은 공학(104%)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비슷하였다.

5) 전문대학원 현황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여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임교원수는 대학원대학교(14명)가 일반대학교(10명)보다 높았다. 비전임교원수는 유사하였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대학원대학교(78%)가 일반대학교(65%)보다 높았다. 이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일반대학교 형태의 전문대학원과 동일한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국내와 국외 모두 일반대학교(0.67편, 0.2편)가 대학원대학교(0.19편, 0.01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 1인당 교내/교외연구비 모두 일반대학교(564만원, 10210만원)가 대학원대학교(40만원, 108만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학정원은 일반대학교(58명)가 대학원대학교(82명)보다 적은 반면,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모두 각각 일반대학교(102%, 104%)가 대학원대학교(89%, 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은, 석사와 박사 모두 대학원대학교(71%, 86%)가 일반대학교(61%,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상당히 낮았고, 교내·외연구비는 저조한 반면 전임교원수는 높게 나타나 재정문제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대학원 대학 형태의 전문대학원의 문제점으로 교직원이나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

6) 신학계열과 비신학계열 전문대학원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기준으로 신학계열 대학원은 32개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2개중 19개(59%)가 대학원대학교 형태로 설립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임교원수는 동일한 반면, 비전임교원수가 비신학대학원(13명)이 신학대학원(9명)보다 많았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에서 비신학대학원(14%)이 신학대학원(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현황은 비신학대학원(0.2편)이 신학대학원(0.03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은 비신학대학원(518만원, 9623만원)이 신학대학원(87만원, 127만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도 비신학대학원(2.7:1)이 신학대학원(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은 각각 비신학대학원(104%, 103%)이 신학대학원(83%, 83%)보다 높게 나타났

다.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신학대학원(333만원, 420만원)이 비신학대학원(478만원, 490만원)보다 적었다. 전체적으로 신학계열이 비신학계열보다 다소 여건이나 성과 등이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신학계열이 상대적으로 학생모집이나 재정상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학계열 전문대학원에 대한 질관리가 요구된다.

7) 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 등이 강화된 2005년 전후 설립된 전문대학원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원 여건측면에서 볼 때,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 전임교원 및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강의 담당비율 등에서 모두 20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은 입학정원(평균 20명 정도 적음)과 기타 설립기준의 강화 등이 적어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성과 측면에서도 전임교원 1인당 해외 학술지 게재현황,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액 등에서 모두 20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수의 차이가 컸고, 재적학생수나 충원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선진국의 전문대학원 체제 및 시사점

전문대학원 체제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많은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전문대학원을 일반대학원과 분리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일반대학원 내에서 학위 과정만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학과 그랑제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각각 개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 미국에서는 professional school, 그리고 영국에서는 수업 학위(taught course)로 불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은 일본 및 미국과 유사하게 일반대학원과 분리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에 대한 규제 정도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 설치 기준에서 교원조직, 교육방법, 과정의 수료요건,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문대학원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는데,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 관련 법률에서 제

정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원의 공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은 질적인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수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대학원과 함께 규정하면서 목적, 학위과정, 학위종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생 정원, 졸업요건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이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라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비하여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국가 규제에 익숙한 탓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대학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처럼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규제의 범위 및 정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전문대학원의 전공분야도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이 서로 다르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에 적합한 전공으로 경영, 국제, 의료, 그리고 법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에서는 경영, 법학, 의학, 그리고 교육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유형별로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전공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대학원과 보다 확실한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일본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을 듯하며 그 기준은 국가자격 등의 직업자격과 관련된 분야, 사회적으로 고도의 전문직업능력을 요구하는 분야,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이다. 특별히 전문대학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 의학, 그리고 법학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학위는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모두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경우 전문학위 뿐만 아니라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이라는 전문대

학원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 수여요건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학위논문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학위논문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영국에서는 학위논문을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에서는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또는 논문지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 전문대학원은 현장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턴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대학과 그랑제꼴에서 제공하는 전문석사과정은 3개월에서 6개월, 독립체제로 운영되는 교사전문대학원인 IUFM은 1년의 교사인턴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IUFM 교육과정의 1/3이상이 현장 연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실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위논문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원의 목적이 학자의 양성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위논문을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도 국가간 차이가 있다. 일본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업연한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전문대학원의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영대학원은 석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업연한이 대체로 2년이고 법학대학원은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이 보통 3년이다. 영국의 법학대학원 석사의 수업연한은 1년이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수업연한이 다양한 이유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각 전문대학원 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각 전문대학원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 주체, 그리고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 확보 및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3. 전문대학원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1) 전문대학원의 차별성

전문대학원은 대부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대학원에 비해서 대부분 운영상의 차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본래 전문대학원의 차별성을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부족과 정원산정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2) 전문대학원의 입학과정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는 대부분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사항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분야와 경력이 일치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한 신입생들은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시간제 대학원생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대부분 깊은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나 자신의 실무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입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당시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1:1에서 2: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회적 인지도 부족과 기존의 대학원보다는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교 내에 있는 전문대학원보다는 대학원 대학교의 전문대학원의 입학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해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이견은 있으나 적정 수준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강의비율과 관련해서는 교수와 대학원생들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였으며,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습 강의비율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예체능계열에서는 전공특성상 실습강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전문대학원에서는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대학원이 현장실습과목을 필수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비율과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외국 대학원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과 학제간 강의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문대학원의 국제적 성장과 융합학문으로서 학문적 기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4) 학위논문 지도 및 강의평가

전문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 지도는 대부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을 진행하거나 1주일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기 보다는 전공계열 특성상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에서는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최소 1-3명이거나 많으면 4-6명 정도이었으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으로는 주로 종합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에서는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5) 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 및 전반적인 만족도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은 다소 적정한 수준이었으며, 대학교의 경우 대학원대학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학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용 공간과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전용 공간과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지원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부족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원의 만족 수준을 설문한 결과, 전문대학원의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며, 전문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취업 정도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응답했으나 시간제 대학원생 즉 기취업자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전공 관련하여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 대학원보다는 졸업생에 대한 사후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 6) 전문대학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교수집단보다는 대학원생 집단에서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있었다.

전문대학원에서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화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라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반면,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교수집단의 경우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4.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

##### 1)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전문대학원 특성화 체제로의 전환과 협력체제 구축
-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구축

##### 2)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대학원 분류 체제의 재정립을 통한 전문대학원의 재개편
- 전문대학원의 협동체제 및 네트워크 강화
-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과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

##### 3) 전문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체제 구축

###### ☐ 평가지표 개발의 목적

- 전문대학원 평가는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의 고유성을 살리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
- 전문대학원 평가 모형(안)은 전문대학원의 질적 발전, 평가부담 최소화, 평가 수용도 제고, 분야별 전문대학원의 현실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 개발

###### ☐ 전문대학원 평가 지표의 기본 방향

- 전문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제고
- 전문대학원의 책무성 향상
- 전문대학원의 자율성 신장
- 전문대학원 경영의 효율성 제고

###### ☐ 평가지표의 적용(안)

- 평가대상 기관
  - 전문대학원 평가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



원을 제외한 132개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함.

○ 평가 주기

- 평가 주기는 격년 평가(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2년 주기 평가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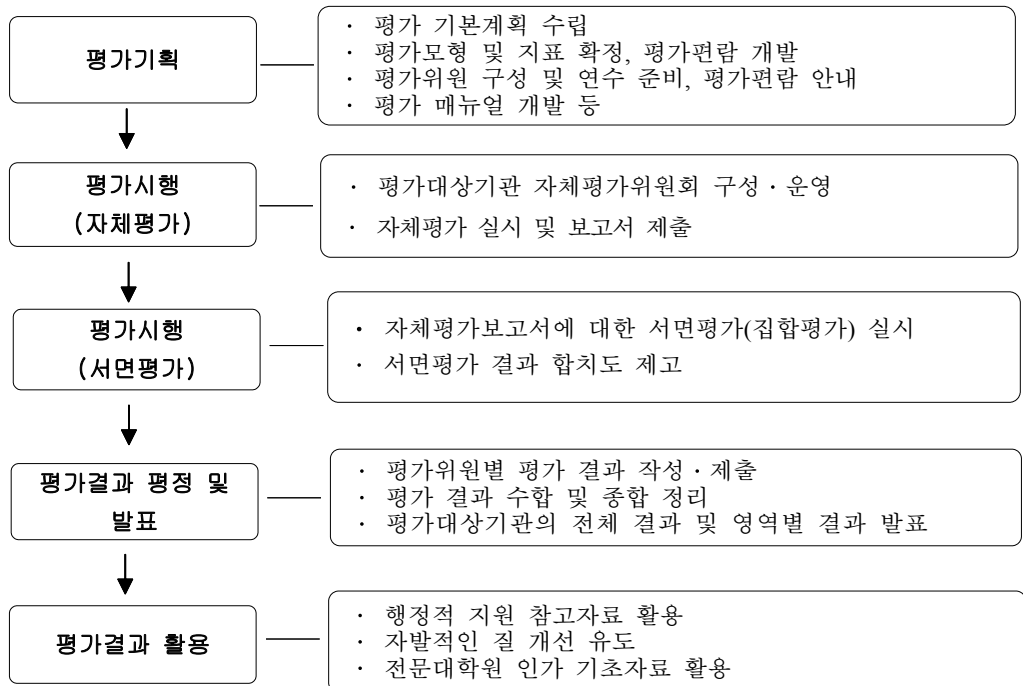
○ 평가지표의 체계

- 평가지표는 전문대학원의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동시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3요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 적용
- 체계적인 접근은 투입-과정-산출에 의거하여 교육목표(투입), 교육활동(과정), 교육성과(산출)의 체계 적용
- 교육의 3요소 차원은 교수, 대학원생, 교육과정

○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
- 서면평가 실시
- 구성원 및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평가절차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3
4. 결과 활용 .....	6
 <b>II. 국내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분석</b> .....	<b>7</b>
1. 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 .....	7
2. 전체 대학원 현황 .....	16
3. 전문대학원 학교 현황 .....	19
4. 전문대학원의 여건 및 성과 현황 .....	25
5.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	37
6. 신학·비신학 계열 전문대학원의 비교분석 .....	44
7. 교과부 승인제도 시행 전후 전문대학원에 대한 비교 분석 .....	50
8. 전문대학원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56
 <b>III. 선진국의 전문대학원 체제</b> .....	<b>63</b>
1. 미국 .....	63
2. 일본 .....	77
3. 영국 .....	85
4. 프랑스 .....	90
5.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104

<b>IV. 전문대학원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조사</b>	<b>107</b>
1. 설문조사 분석	107
2.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74
<b>V.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b>	<b>278</b>
1.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278
2.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281
3. 전문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체제 구축	283
<b>VI. 요약 및 제언</b>	<b>291</b>
1. 요약	291
2. 제언	296
<b>참고문헌</b>	<b>297</b>
<b>부록 1. 전문대학원 평가지표(안)</b>	<b>299</b>
2. 설문지	309

## 표 차 례

<표 I-1> 권역별 일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 .....	4
<표 I-2> 권역별 대학원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 .....	5
<표 I-3>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표 I-4> 설문지 구성 내용 .....	6
<표 II-1> 대학원 유형 .....	15
<표 II-2> 연도별 대학원 현황 .....	16
<표 II-3> 최근 13년간 대학원종류별 대학원수 변동 현황 .....	17
<표 II-4> 설립별 대학원 수 .....	17
<표 II-5> 최근 13년간 과정별 대학원생 수 변동현황 .....	18
<표 II-6> 전문대학원의 현황 .....	19
<표 II-7>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	22
<표 II-8> 지역 및 설립형태에 따른 설립주체별 대학원 수 .....	23
<표 II-9> 계열 · 설립 형태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	24
<표 II-10> 계열별 · 설립주체별 대학원 수 .....	24
<표 II-11> 설립형태별 · 계열별 대학원 수 .....	24
<표 II-12> 설립주체별 · 지역별 · 과정별 전문대학원 재적학생 수 .....	25
<표 II-13> 계열별 · 설립형태별 · 과정별 전문대학원 재적자 수 .....	26
<표 II-14>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	27
<표 II-15> 설립형태별 · 계열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	27
<표 II-16>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	28
<표 II-17>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	28
<표 II-18>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	29
<표 II-19>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	29
<표 II-20>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	30
<표 II-21>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	30
<표 II-22>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31
<표 II-23>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32
<표 II-24> 설립주체 및 지역에 따른 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	32
<표 II-25> 계열 및 설립형태에 따른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	33
<표 II-26>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	33
<표 II-27>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	34
<표 II-28>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34

<표 II-29>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35
<표 II-30>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 실적 ..	36
<표 II-31>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 실적 ..	36
<표 II-32>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37
<표 II-33>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38
<표 II-34>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	38
<표 II-35> 지역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	39
<표 II-36>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	39
<표 II-37>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	40
<표 II-38>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	40
<표 II-39>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	41
<표 II-40>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	42
<표 II-41>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	42
<표 II-42>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	43
<표 II-43>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	43
<표 II-44>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	44
<표 II-45>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재적학생 수 .....	44
<표 II-46>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	45
<표 II-47>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	45
<표 II-48>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	45
<표 II-49>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	46
<표 II-50>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46
<표 II-51>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	46
<표 II-52>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	47
<표 II-53>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47
<표 II-54>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 .....	47
<표 II-55>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48
<표 II-56>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	48
<표 II-57> 신학·비신학별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	48
<표 II-58>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	49
<표 II-59>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	49
<표 II-60>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	49
<표 II-61>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학교 수 .....	50
<표 II-62>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재적학생 수 .....	50
<표 II-63>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수 .....	51

<표 II-64>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	51
<표 II-65>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	51
<표 II-66>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	52
<표 II-67>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2
<표 II-68>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	53
<표 II-69>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	53
<표 II-70>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53
<표 II-71>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 .....	54
<표 II-72>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54
<표 II-73>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	54
<표 II-74> 교과부 승인 전후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	55
<표 II-75>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	55
<표 II-76>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취업률 .....	56
<표 II-77>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	56
<표 III-1> 미국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 .....	72
<표 III-2> 전문대학원 개설 현황 .....	80
<표 III-3> 도시계획(Aménagement, urbanisme et durabilité des territoires) MP 교육과정 .....	96
<표 III-4> Mastère Spécialisé( MS )교육과정 .....	98
<표 III-5> 교사교육대학원(IUFM) 교육과정 .....	101
<표 IV-1> 교수집단이 속한 전문대학원 일반적 특성 .....	108
<표 IV-2> 교수집단이 속한 개인적 특성 .....	109
<표 IV-3> 대학원생 집단이 속한 전문대학원의 일반적 특성 .....	110
<표 IV-4> 대학원생 집단의 개인적 특성 .....	111
<표 IV-5>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13
<표 IV-6>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14
<표 IV-7>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15
<표 IV-8>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16
<표 IV-9>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17
<표 IV-10>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18
<표 IV-11>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19
<표 IV-12>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20
<표 IV-13>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21
<표 IV-14>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22
<표 IV-15>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23
<표 IV-16>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24

<표 IV-17> 신입생의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25
<표 IV-18> 신입생의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26
<표 IV-19>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27
<표 IV-20> 입학경쟁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28
<표 IV-21> 신입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29
<표 IV-22> 신입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30
<표 IV-23>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31
<표 IV-24>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32
<표 IV-25> 전임교수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33
<표 IV-26> 전임교수 강의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34
<표 IV-27>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35
<표 IV-28>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36
<표 IV-29>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37
<표 IV-30>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38
<표 IV-31>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39
<표 IV-32>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40
<표 IV-33>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41
<표 IV-34>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42
<표 IV-35>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43
<표 IV-36> 학제 간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44
<표 IV-37>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교수집단) .....	145
<표 IV-38> 현장 실습 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46
<표 IV-39>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47
<표 IV-40>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48
<표 IV-41>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49
<표 IV-42>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50
<표 IV-43>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51
<표 IV-44>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52
<표 IV-45>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53
<표 IV-46>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54
<표 IV-47>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55
<표 IV-48>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56
<표 IV-49>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57
<표 IV-50>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58
<표 IV-51>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59

<표 IV-52>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60
<표 IV-5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61
<표 IV-54>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62
<표 IV-55> 대학원 등록금 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63
<표 IV-56> 대학원 등록금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64
<표 IV-57> 장학금 제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65
<표 IV-58> 장학금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66
<표 IV-59> 전용 공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67
<표 IV-60> 전용 공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68
<표 IV-61>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69
<표 IV-62>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70
<표 IV-63> 행정지원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71
<표 IV-64> 행정지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72
<표 IV-65> 재정지원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73
<표 IV-66> 재정지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74
<표 IV-67>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75
<표 IV-68>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76
<표 IV-69>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77
<표 IV-70>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78
<표 IV-71> 교육과정의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79
<표 IV-72> 교육과정의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80
<표 IV-73>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81
<표 IV-74>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82
<표 IV-75>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83
<표 IV-76>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84
<표 IV-77>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85
<표 IV-78>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86
<표 IV-79>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87
<표 IV-80>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88
<표 IV-81>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89
<표 IV-82>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90
<표 IV-83>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91
<표 IV-84>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92
<표 IV-85>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	193
<표 IV-86>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94



<표 IV-87>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195
<표 IV-88>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196
<표 IV-89>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197
<표 IV-90>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198
<표 IV-91>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199
<표 IV-92>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00
<표 IV-93>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01
<표 IV-94>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02
<표 IV-95>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03
<표 IV-96>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04
<표 IV-97> 입학전형방식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05
<표 IV-98> 입학전형방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06
<표 IV-99>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07
<표 IV-100> 입학경쟁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08
<표 IV-101>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09
<표 IV-102>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10
<표 IV-103>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11
<표 IV-104>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12
<표 IV-105>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13
<표 IV-106>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14
<표 IV-107>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15
<표 IV-108>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16
<표 IV-109>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17
<표 IV-110>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18
<표 IV-111>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19
<표 IV-112> 학제 간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20
<표 IV-113>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대학원생 집단) .....	221
<표 IV-114> 현장 실습 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22
<표 IV-115>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23
<표 IV-116>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24
<표 IV-117>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25
<표 IV-118>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26
<표 IV-119>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27
<표 IV-120>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28
<표 IV-121>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29

<표 IV-122>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30
<표 IV-123>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31
<표 IV-124>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32
<표 IV-125>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33
<표 IV-126>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34
<표 IV-127>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35
<표 IV-128>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36
<표 IV-129> 대학원생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37
<표 IV-130> 대학원생의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38
<표 IV-131>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39
<표 IV-132>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40
<표 IV-133>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41
<표 IV-134>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42
<표 IV-135> 졸업생의 취업 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43
<표 IV-136> 졸업생의 취업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44
<표 IV-137>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45
<표 IV-138>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46
<표 IV-139>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의 인식(대학원생 집단) .....	247
<표 IV-140>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의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48
<표 IV-141>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49
<표 IV-142>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50
<표 IV-143>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51
<표 IV-144>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52
<표 IV-145>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53
<표 IV-146> 교육과정의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54
<표 IV-147>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55
<표 IV-148>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56
<표 IV-149>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57
<표 IV-150>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58
<표 IV-151>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59
<표 IV-152>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60
<표 IV-153>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61
<표 IV-154>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62
<표 IV-155>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63
<표 IV-156>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64

<표 IV-157>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	265
<표 IV-158>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266
<표 IV-159>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운영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	267
<표 IV-160>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신입생 선발과정에 대한 교차분석 .....	268
<표 IV-161>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신입생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	269
<표 IV-162>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입학경쟁률에 대한 교차분석 .....	269
<표 IV-163>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분석 ..	270
<표 IV-164>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전문대학원 강의비율에 대한 차이분석 .....	271
<표 IV-165>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에 대한 교차분석 ...	271
<표 IV-166>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	272
<표 IV-167>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	273
<표 IV-168>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차이분석 .....	274
<표 V-1> 전문대학원의 평가지표(안) .....	289

## 그 립 차 례

[그림 III-1] 개편된 프랑스 고등 교육제도 .....	93
[그림 V-1] 전문대학원 평가지표 체계 .....	285
[그림 V-2] 전문대학원 평가 절차 .....	28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대학원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적용하는 요람이자 고급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원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법률적으로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간의 구분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모든 대학원에서 이론위주의 운영을 함으로써 대학원 유형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다.

무엇보다도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중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형관 외, 2004).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는 대학원의 기능과 유형을 다양화해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외에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등의 전문가를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이외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과정에서는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를 모두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정 직업과 연계된 전문분야 현장기술과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학위를,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술이론 및 학술연구방법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김형관 외, 2004).

우리나라의 대학원수는 최근 급속한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일반대학원 117개, 전문대학원 21개, 특수대학원 538개로 총 676개의 대학원이 있었으나, 2011년 현재 일반대학원 178개, 전문대학원 206개, 특수대학원 783개로 총 1,167개의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고급 전문 인력 및 현장 실무형 연구인력 배출이라는 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와 달리, 기존 일반대학원과의 차별성 및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문대학원에 대한 연구는 의학, 법학, 경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전문직업분야가 다양해지고 직업세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대학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대학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 등 심도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전문대학원이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구여건은 물론 입학, 교육과정 운영, 졸업,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문대학원의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초 취지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 질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각 영역별 전문대학원만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연구 여건 및 운영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하고, 전문대학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 및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향과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국내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분석

- 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
- 전문대학원의 여건 및 성과 현황 분석
-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분석
- 신학계열과 비신학계열 전문대학원에 대한 비교 분석
- 교과부 승인 제도 시행 전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에 대한 비교분석

## 나. 외국 대학의 전문대학원 제도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전문대학원 운영실태 고찰
-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에 주는 시사점 도출

## 다. 전문대학원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 전문대학원의 입학제도 · 교육과정 · 수업 · 교육여건 · 졸업에 대한 인식조사
- 전문대학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라.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

-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 방향 설정
-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체제 구축

# 3. 연구방법

##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기준 전문대학원 중 경영, 법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II장의 전문대학원 현황 분석은 2011년 정보공시자료를 대상으로 2012.5.31.~2012.6.7. 에 추출하여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연구대상은 60개 일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97개 전문대학원(국공립 14개교/24대학원, 사립 46개교/73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5개 대학원(국공립1개, 사립 34개) 등 총 132개 전문대학원 중 2012년과 2011년에 신설된 대학원 중 5개와 기타 자료가 불완전한 전문대학원 6개를 제외한(이름의 변경이나 학과의 변경 등으로) 121개 전문대학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개 계열을 개설한 전문대학원이 13개였고 3개 계열을 지닌 전문대학원이 1개여서 계열별로는 136개 계열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IV장의 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은 이러한 132개의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 <표 I - 1, 2>와 같다.

<표 I-1> 권역별 일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

권역	설립 주체		일반대 학교
서울	국공 립	3개교 11대학 원	서울대(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융 합과학기술대학원)/ 서울과학기술대(철도전문대학원, IT정책 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NID융합기술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세무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사립	22개교 43대학 원	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 경희대(동서의학전문대학원) 국민대(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고 려대(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서울기독대(신학전문대학원)/ 동국대(영상 대학원)/ 서강대(국제대학원, 신학대학원, 영상대학원,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동덕여대(패션전문대학원)/ 삼육대(신학전문대학원)/ 서울신 학대(신학전문대학원)/ 서울여대(특수치료전문대학원)/ 연세 대(정보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연합신학대학 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이화여대(통역번역대학원, 국제대 학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도시대학 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명지대(기 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성공회대(신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중국대학원)/ 장로회신학대(목회전문대학 원)/ 중앙대(국제대학원, 첨단영상대학원)/ 총신대(목회신학 대학원)/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경기 인천	국공 립	2개교 2대학원	한경대(바이오정보기술대학원)/인천대(동북아물류전문대학원)
	사립	10개교 14대학 원	강남대(사회복지대학원)/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관광전문대 학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 서울신학대(신학전문대학원)/ 성결대(신학전문대학원)/ 대진대(문화예술대학원)/ 아주대(정 보통신전문대학원) 평택대(신학전문대학원)/경희대(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인 하대(정보통신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한국산업기술대(지식 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충청	국공 립	3개교 5대학원	한밭대(정보통신전문대학원)/ 충남대(분석과학기술대학원, 녹 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한국교원대(교육 정책전문대학원)
	사립	5개교 6대학원	선문대(신학전문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테크노노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호서대(벤처전문대학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백석대(기독교 전문대학원)/ 침신대(목회신학대학원)
영남	국공 립	3개교 3대학원	부산대(국제대학원)/ 한국해양대(해양관리기술대학원) / 안동대(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사립	7개교 9대학원	경성대(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영남대(건축디자인대학원)/ 동아대(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가야대(세라믹국제정보대학원)/ 경성대(디지털디자인전문대 학원)/ 동서대(디자인전문대학원)/ 포항공대(철강대학원, 해 양대학원)/
호남	국공 립	1개교 1대학원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전북대(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사립	1개교 1대학원	광주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강원	국공 립	1개교 1대학원	강원대:삼척(방제기술전문대학원)
	사립		
총 계			총: 60개교, 97대학원 (국공립 14개교/ 24대학원 , 사립 46개교/ 73대학원)

〈표 I-2〉 권역별 대학원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

권역	설립 주체		대 학원대 학교
서울	국공	1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사립	15	베리아국제대학원대학교/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영 어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서 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대 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한 국상담대학원대학교
경기·인 천	국공		
	사립	13	대학신학대학원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 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국 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 경대학원대학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신천신학대학원대 학교/주안대학원대학교
충청	국공		
	사립	4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과학 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영남	국공		
	사립	1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호남	국공		
	사립	1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강원	국공		
	사립		
계			총 35개 대학원(국공립1개, 사립 34개)



## 나. 연구방법

연구내용 각각에 대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3〉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분석	• 전문가협의회 • 통계조사
• 전문대학원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
• 전문대학원 평가체제 구축 및 개선 방안 마련	• 전문가협의회 • 델파이조사 • 공청회 실시

그리고 설문지는 교수 총 350명(사립대 76.9%, 국공립대학 23.1%), 대학원생 총 1,225명(사립대 76.1%, 국공립대학 23.9%)을 대상으로 on-line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교수용) 내용 구성은 다음 <표 I-4>와 같다.

〈표 I-4〉 설문지 구성 내용(교수용)

독립변인	종속변인	구성문항
연령, 재직기간, 직위, 소속, 교수경력, 실무경험, 전공계열, 운영 형태, 설립주체 및 유형, 소재지	전반적인 사항	10 - 13
	입학과정 사항	14 - 18
	교육과정 사항	19 - 34
	교육여건 사항	35 - 40
	평가 및 개선 사항	41 - 50
	기타 의견	서술형

## 4. 결과 활용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대학원 운영 내실화 및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문대학원 로드맵 구축으로, 경제·노동시장이 요구하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인력 배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Ⅱ. 국내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분석

### 1. 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

#### 가. 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 변천 과정

고등교육법 제정 이전 대학원 관련 규정은 구 교육법 체제 내에서 대학원규정(교육부 훈령)으로 존속되어 있었다. 1995년 12월에 대학원제도 개선 관련 교육법이 개정(1995. 12. 29)되면서 대학원대학 제도 도입 및 석·박사과정 통합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6년 8월에 교육법시행령이 개정(1996. 8. 23)되면서 석·박사학위의 이원화(학술학위, 전문학위)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7년에 대학원규정(교육부훈령) 및 학위종별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폐지되고, “대학원규정(대통령령, '97. 3. 15)”이 신설되면서 대학원의 유형(일반/전문/특수대학원)이 정립되었고, 대학원대학 설치, 학생정원 및 학과설치, 대학원위원회, 학위종별 구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그리고는 1997년에 고등교육법('97. 12. 13) 및 동법시행령('98. 2. 24)이 제정되면서 대학원규정(대통령령)이 흡수·폐지되었다. 2000년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2000.11.28.)되어 대학원 학생정원 준칙주의가 도입되어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하던 것을 대학원별로 총괄정원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장관이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대, 산업대에 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2000년에는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이 제정(교육부령, 2000. 12. 16.)되어 학술학위종류와 전문학위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대학원대학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2005. 10. 25)되어 다음과 같이 대학원대학 설립시 시설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100명→2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도 100명→200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b>대학설립운영 규정</b> 2005.10.25, 일부개정	
제4조(교사) ①·② (생 략)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 -----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
제6조(교원) ①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 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원) ① ----- ----- ----- -----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

아울러 2006년에는 경영 등 전문대학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06. 6. 7)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이 교지 및 시설 최소기준과 교원 확보기준이 강화되었다.

<신 설>	제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
-------	--

	<p><u>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u></p> <p>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동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p> <p>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p> <p>② 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u>대학 및 대학원대학이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두</u>  <u>고자 하는 때에는 전임교원 중 2분의 1이상은 박사학위과정의 설치</u>  <u>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u>  <u>외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u>  <u>한다.</u></p>
--	---

또한 2007년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2007. 12. 6)되어 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이 강화되어 대학원 등의 설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고, 대학원 대학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19501호, 2006.6.7, 일부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0434호, 2007.12.6, 일부개정]
제2조의2(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동 일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인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다.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研·産), 학·연(學·研)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 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 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 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 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 은 다음 각호의 1의 학생수를 말한다.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 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제6조(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2. - - - - - 1.5배(전문대 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 - - - - - -

## 나. 현행 전문대학원 관련 법령

### 1) 대학원의 종류 및 학위과정 등

현행 법령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전문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전문대학원은 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에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대학원의 종류를 그 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의 목적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이다. 전문대학원은 실천적 이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주안점을 두는 일반대학원과 다르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구별된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 중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령체계에 나타난 전문대학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학문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의 연계가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원이 주안점을 두는 실천적 이론과 일반대학원에서 강조하는 학문의 기초이론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는 학문과 직업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원의 재학생들 중에도 직장인이 많고 이들은 자신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리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 둘째, 전문대학원의 목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문직업분야를 판단할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는 전문대학원을 직업인의 계속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구별 짓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30조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대학원대학에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중 하나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 차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p>제29조 (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p> <p>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p> <p>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li> </ol> <p>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p>

<p>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b>고등교육법시행령</b></p> <p>제 20 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 22 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9.1.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li> <li>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li> <li>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li> </ol> <p>제 24 조 (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li> <li>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li> <li>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li> </ol>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 2) 학위의 종류, 논문심사 및 수여

현재 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문학위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 학위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학위는



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유형 분류는 다음 <표 II-1>과 같다.

<b>고등교육법</b>
<p>제35조 (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p>
<b>고등교육법시행령</b>
<p>제43조 (학위의 종류)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p> <p>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p>

##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의 종류) 학술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 3 조 (학위의 표기방법) 대학의 장이 학위증서·학적부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을 표기할 것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를 표기할 것.

〈표 II-1〉 대학원 유형

구 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목적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 주 간	• 주 간	•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 석·박사	•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 가능	• 석사과정
수여학위	• 학술학위	•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 전문학위
교육내용	•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	•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학부의 교원·교사 활용	• 학부와 연계	•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전임교원, 교사 확보	•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 연구 및 교수인력 양성	• 전문직 인력양성	• 직업인의 계속 교육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2008년도 대학원의 세계.

## 2. 전체 대학원 현황

### 가. 연도별 대학원 현황

최근 13년간 대학원수, 학생수, 교원수, 입학자, 졸업자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연도별 대학원 현황

연도	학교수	학생수	학과수	교원수	입학자	졸업자
1999	676	204,773	6,236	486	84,273	47,068
2000	829	229,437	7,330	729	94,079	53,379
2001	905	243,270	7,880	800	99,562	59,330
2002	945	262,867	8,283	891	102,784	63,749
2003	1,010	272,331	8,532	1,173	104,488	71,499
2004	1,030	276,918	8,840	1,388	103,257	74,728
2005	1,051	282,225	9,035	1,673	108,255	77,041
2006	1,051	290,029	9,259	1,990	110,912	78,743
2007	1,042	296,576	9,602	2,895	113,956	79,174
2008	1,055	301,412	9,681	3,097	113,371	82,293
2009	1,115	306,471	9,804	5,005	120,088	85,597
2010	1,138	316,633	10,111	5,743	126,958	87,870
2011	1,168	329,933	10,257	6,516	126,872	91,048

출처: <http://cesi.kedi.re.kr/>

### 나. 최근 13년간 대학원종류별 대학원수 변동 현황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의 수는 15.2%, 전문대학원은 17.7%, 특수대학원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원 1개원당 학생수는 일반대학원은 826명, 전문대학원은 188명, 특수대학원은 184명으로 일반대학원은 설치된 대학원수에 비해 학생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sup>1)</sup> 또한, 전체 대학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문대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특수대학원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 전문대학원의 비중이 14.2%에서

1) 한국교육개발원(2011). 한눈에 보는 고등교육통계의 내용을 2011년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17.3%로 증가하는데 이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25개교가 신설된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3〉 최근 13년간 대학원종류별 대학원수 변동 현황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1999	117	17.3	21	3.1	538	79.6	676	100
2000	129	15.6	53	6.4	647	78.0	829	100
2001	135	14.9	75	8.3	695	76.8	905	100
2002	139	14.7	98	10.4	708	74.9	945	100
2003	143	14.2	109	10.8	758	75.0	1,010	100
2004	142	13.8	117	11.4	771	74.9	1,030	100
2005	145	13.8	130	12.4	776	73.8	1,051	100
2006	149	14.2	138	13.1	764	72.7	1,051	100
2007	154	14.8	148	14.2	740	71.0	1,042	100
2008	158	15.0	150	14.2	747	70.8	1,055	100
2009	163	14.6	193	17.3	759	68.1	1,115	100
2010	167	14.7	199	17.5	772	67.8	1,138	100
2011	178	15.2	207	17.7	783	67.0	1,168	100

출처: <http://cesi.kedi.re.kr/>

설립주체별 대학원 수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원의 국  
공립비율(25.6%)이 일반대학원의 국공립비율(19.7%)과 특수대학원의 국공립 비율  
(17.5%)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4〉 설립별 대학원 수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국공립	35	19.7	53	25.6	137	17.5	225	19.3
사립	143	80.3	154	74.4	646	82.5	943	80.7
합계	178	100.0	207	100.0	783	100.0	1,168	100.0

출처: <http://cesi.kedi.re.kr/>

## 다. 대학원생 수

대학원 종류에 따른 과정별 대학원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석사과정의 경우 특수대학원이 53.3%, 일반대학원이 34.3%, 전문대학원이 12.4%를 차지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경우는 일반대학원이 91.1%, 전문대학원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5〉 최근 13년간 과정별 대학원생 수 변동현황

연도	학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999	박사	28,883	99.9	41	0.1	0	0.0	28,924	100
	석사	76,400	43.4	2,837	1.6	96,612	54.9	175,849	100
2000	박사	31,714	99.1	282	0.9	0	0.0	31,996	100
	석사	79,828	40.4	5,336	2.7	112,277	56.9	197,441	100
2001	박사	32,765	98.1	640	1.9	0	0.0	33,405	100
	석사	80,189	38.2	7,587	3.6	122,089	58.2	209,865	100
2002	박사	34,545	96.2	1,380	3.8	0	0.0	35,925	100
	석사	82,810	36.5	9,885	4.4	134,247	59.2	226,942	100
2003	박사	36,019	94.9	1,954	5.1	0	0.0	37,973	100
	석사	83,740	35.7	11,042	4.7	139,576	59.6	234,358	100
2004	박사	38,492	94.4	2,274	5.6	0	0.0	40,766	100
	석사	81,611	34.6	12,177	5.2	142,364	60.3	236,152	100
2005	박사	40,778	93.8	2,694	6.2	0	0.0	43,472	100
	석사	79,823	33.4	13,134	5.5	145,796	61.1	238,753	100
2006	박사	42,798	92.6	3,398	7.4	0	0.0	46,196	100
	석사	81,037	33.2	15,041	6.2	147,755	60.6	243,833	100
2007	박사	43,730	91.9	3,830	8.1	0	0.0	47,560	100
	석사	82,854	33.3	18,887	7.6	147,275	59.1	249,016	100
2008	박사	45,107	91.3	4,295	8.7	0	0.0	49,402	100
	석사	84,562	33.6	21,472	8.5	145,976	57.9	252,010	100
2009	박사	45,926	91.1	4,460	8.9	0	0.0	50,386	100
	석사	86,091	33.6	25,706	10.0	144,288	56.3	256,085	100
2010	박사	48,670	90.9	4,863	9.1	0	0.0	53,533	100
	석사	88,862	33.8	29,498	11.2	144,740	55.0	263,100	100
2011	박사	54,379	91.1	5,320	8.9	0	0.0	59,699	100
	석사	92,659	34.3	33,585	12.4	143,990	53.3	270,234	100

출처: <http://cesi.kedi.re.kr/>

### 3. 전문대학원 학교 현황

#### 가. 개괄

2011년 현재 전문대학원 수는 총 206개로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12,931명, 박사과정 1,944명이었다. 석사과정의 경우 주간의 입학정원이 10,8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적학생수는 석사과정 33,585명, 박사과정 5,320명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비율은 6.3: 1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중 경영·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대학원 132개 중에서 121개(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신설된 경우 등 11개를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II-6〉 전문대학원의 현황

구분	학교 수	2011학년도입학정원					재적 학생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주간	야간	주야간	계	계	계
【총계】	206	12,931	10,810	95	2,026	1,944	33,585	5,320
건축대학원	—	—	—	—	—	—	1	—
건축전문대학원	1	60	60	—	—	10	157	24
경영(전문)대학원	1	270	270	—	—	30	543	65
경영전문대학원	10	1,601	100	95	1,406	30	2,932	87
관광전문대학원	1	47	47	—	—	23	99	70
교육정책전문대학원	1	71	71	—	—	6	142	16
국정관리대학원	1	38	—	—	38	32	91	78
국제대학원	6	383	383	—	—	40	1,252	106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1	72	72	—	—	8	208	33
국제법률대학원	1	50	50	—	—	—	153	—
국제전문대학원	1	50	50	—	—	10	218	22
국제지역대학원	1	130	130	—	—	20	359	63
국제학대학원	2	134	134	—	—	8	460	37
그린스쿨	1	22	22	—	—	8	23	12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	1	244	—	—	244	—	476	—
기독교전문대학원	1	40	40	—	—	100	100	351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1	32	—	—	32	8	60	20

기술경영전문대학원	3	141	141	-	-	6	137	6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1	25	25	-	-	5	36	5
대학원대학	35	2,354	2,206	-	148	583	5,248	1,538
도시대학원	1	30	30	-	-	21	58	47
동북아국제대학원	-	-	-	-	-	-	11	1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1	20	20	-	-	7	33	12
동북아물류대학원	1	25	25	-	-	10	54	35
동서의학대학원	1	40	40	-	-	20	73	43
디자인전문대학원	2	40	40	-	-	8	127	20
디지털디자인대학원	1	30	30	-	-	10	40	19
목회신학대학원	1	12	12	-	-	23	29	77
목회신학전문대학원	1	40	40	-	-	10	134	21
목회전문대학원	1	30	30	-	-	46	77	157
문화예술전문대학원	1	25	25	-	-	-	62	-
문화전문대학원	1	30	30	-	-	-	65	-
물류전문대학원	1	75	-	-	75	5	135	16
바이오정보기술대학원	1	43	-	-	43	15	92	61
방재전문대학원	1	10	10	-	-	10	19	21
법무전문대학원	1	-	-	-	-	-	9	-
법학전문대학원	25	2,000	2,000	-	-	85	5,980	143
벤처전문대학원	1	31	31	-	-	61	75	202
보건대학원	1	96	96	-	-	-	268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1	23	23	-	-	7	52	16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1	32	32	-	-	10	74	30
사회복지대학원	1	24	24	-	-	7	63	40
사회복지전문대학원	3	138	138	-	-	23	315	60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1	30	30	-	-	10	64	32
세라믹국제정보대학원	1	15	15	-	-	-	-	-
세무전문대학원	1	40	40	-	-	10	101	23
신약전문대학원	1	20	20	-	-	5	15	3
신학대학원	1	37	37	-	-	8	113	10
신학전문대학원	6	162	162	-	-	54	346	144
에너지환경대학원	1	15	15	-	-	15	46	63
연합신학대학원	1	49	49	-	-	5	149	49
연합신학전문대학원	1	35	35	-	-	18	90	58
영상대학원	1	34	34	-	-	16	93	43
영상대학원(전문)	1	92	92	-	-	28	235	58
영상정보통신대학원	-	-	-	-	-	-	-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	81	81	-	-	41	150	54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1	30	30	-	-	-	38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1	27	27	-	-	13	24	12
의학대학원	1	68	68	-	-	-	204	-
의학전문대학원	26	1,646	1,646	-	-	23	5,610	85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1	43	43	-	-	11	74	20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1	-	-	-	-	-	61	37
정보대학원	1	47	47	-	-	15	166	50
정보보호대학원	1	45	45	-	-	23	147	40
정보통신대학원	1	-	-	-	-	-	6	15
정보통신전문대학원	2	36	36	-	-	12	96	35
정치전문대학원	1	17	17	-	-	18	26	52
중국대학원	1	40	40	-	-	-	72	-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1	50	50	-	-	30	113	76
철강대학원	1	37	37	-	-	15	38	74
철도전문대학원	1	48	48	-	-	18	127	69
첨단영상대학원	1	69	69	-	-	31	216	80
체육대학원	1	35	35	-	-	20	91	46
치의학대학원	1	90	90	-	-	-	370	-
치의학전문대학원	7	438	438	-	-	2	1,646	18
커뮤니케이션대학원	1	59	59	-	-	10	125	20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1	75	75	-	-	16	170	47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1	32	32	-	-	20	76	45
통번역대학원	1	150	150	-	-	10	358	23
통역대학원	1	22	22	-	-	-	70	-
통역번역대학원	1	98	98	-	-	7	227	16
특수치료전문대학원	1	28	28	-	-	6	62	18
패션전문대학원	1	27	27	-	-	8	19	21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1	26	26	-	-	26	69	89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1	20	20	-	-	-	38	-
한의학전문대학원	2	75	75	-	-	28	245	58
해양관리기술대학원	1	17	17	-	-	-	49	-
해양대학원	1	25	25	-	-	10	4	3
행정대학원	1	149	149	-	-	-	551	-
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1	40	-	-	40	-	82	-
환경대학원	1	88	88	-	-	-	226	-
IT정책전문대학원	1	21	21	-	-	21	46	70
NID융합기술대학원	1	45	45	-	-	36	101	110

주: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이 25개교 신설됨.

출처: <http://cesi.kedi.re.kr/>



## 나.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2011년 현재 설립주체별 전문대학원 수는 국공립에 24개(19.8%), 사립에 97개(80.2%)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 전문대학원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에 68개(56.2%)로 전체의 절반이상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93개(76.8%)로 설립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타 지방에서는 충남과 대전지역이 12개(10.8%)가 설립되어 있다(<표 II-7>).

<표 II-7>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구분		대학원수	비율(%)
설립주체	국공립	24	19.8
	사립	97	80.2
	합계	121	100
지역	경기	20	16.5
	경북	5	4.1
	광주	2	1.7
	대전	7	5.8
	부산	5	4.1
	서울	68	56.2
	인천	5	4.1
	전북	1	0.8
	제주	1	0.8
	충남	6	5
	충북	1	0.8
	합계	121	100

지역에 따른 설립주체별 전문대학원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4개, 비수도권의 경우 10개의 국공립 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설립형태에 따른 설립주체별 전문대학원 수를 살펴보면 대학원 대학교의 경우 1개의 국공립 전문대학원만이 존재하였다(<표 II-8>).

〈표 II-8〉 지역 및 설립형태에 따른 설립주체별 대학원 수

구분		설립주체		
		국공립	사립	합계
지역	경기	1	19	20
	경북	1	4	5
	광주	1	1	2
	대전	4	3	7
	부산	2	3	5
	서울	12	56	68
	인천	1	4	5
	전북	0	1	1
	제주	1	0	1
	충남	0	6	6
	충북	1	0	1
	합계	24	97	121
설립 형태	일반대학교	23	63	86
	대학원대학교	1	34	35
	합계	24	97	121

#### 다.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계열별로 전문대학원수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인 121개 대학원 중 2개의 계열을 두는 전문대학원이 13개, 3개의 계열을 두는 전문대학원이 1개로 나타나 계열수는 총 136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89개(65.4%),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이 25개(18.4%), 그리고 예체능계열이 10개(7.4%)로서 인문사회계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II-9>).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현황은 일반대학교에 86개(71.1%), 대학원대학교에 35개(28.9%)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학원대학교보다 일반대학교내에 전문대학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대학원대학교 35개중 18개(51%)가 신학계열로 나타나 대학원대학교의 절반이 신학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9〉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구분		대학원수	비율(%)
계열	공학	25	18.4
	예체능	10	7.4
	인문사회	89	65.4
	자연과학	12	8.8
	합계	136	100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86	71.1
	대학원대학교	35	28.9
	합계	121	100

계열에 따른 설립주체별 전문대학원 수를 살펴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에서 각각 국공립 대 사립의 비율이 0.56:1과 1.04:1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인문사회계열은 0.15:1, 예체능계열은 0.2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I-10>).

〈표 II-10〉 계열별 · 설립주체별 대학원 수

구분		설립주체		
		국공립	사립	합계
계열	공학	9	16	25
	예체능	2	8	10
	인문사회	12	77	89
	자연과학	7	5	12
	합계	30	106	136

설립형태에 따른 계열별 전문대학원수를 살펴보면, 대학원대학교 40개 중 인문사회계열이 3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문사회계열 중 신학계열이 19개로 나타나 거의 절반이 신학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표 II-11>).

〈표 II-11〉 설립형태별 · 계열별 대학원 수

구분		계열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	합계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23	9	55	9	96
	대학원대학교	2	1	34	3	40
	합계	25	10	89	12	136

## 4. 전문대학원의 여건 및 성과 현황

### 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현황

#### 1) 설립주체별 · 지역별 · 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수

2011년 현재 설립주체별 전문대학원의 재적자수는 국공립 3,798명(19.1%), 사립 16,053명(80.9%)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전문대학원의 재적자수는 서울지역이 12,808(6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16,144명(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문대학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 충남과 대전의 전문대학원 재적학생수가 2,363명(11.9%)으로 여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원 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원수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표 II-12>).

<표 II-12> 설립주체별 · 지역별 · 과정별 전문대학원 재적학생 수

구분		석사재적생수	박사재적학생수	석박통합재적학생수	합계
설립주체	국공립	3,193 (21.1%)	588 (13.3%)	17 (5.4%)	3,798 (19.1%)
	사립	11,924 (8.9%)	3,833 (86.7%)	296 (94.6%)	16,053 (80.9%)
	합계	15,117 (100%)	4,421 (100%)	313 (100%)	19,851 (100%)
지역	경기	2,273 (15.0%)	569 (12.9%)	5 (1.6%)	2,847 (14.3%)
	경북	325 (2.1%)	77 (1.7%)	0 (0%)	402 (2.0%)
	광주	162 (1.1%)	16 (0.4%)	0 (0%)	178 (0.9%)
	대전	814 (5.4%)	370 (8.4%)	102 (32.6%)	1,286 (6.5%)
	부산	411 (2.7%)	73 (1.7%)	0 (0%)	484 (2.4%)
	서울	9,910 (65.6%)	2,698 (61.0%)	200 (63.9%)	12,808 (64.5%)
	인천	364 (2.4%)	122 (2.8%)	3 (1.0%)	489 (2.5%)
	전북	52 (0.3%)	0 (0%)	0 (0%)	52 (0.3%)
	제주	70 (0.5%)	0 (0%)	0 (0%)	70 (0.4%)
	충남	594 (3.9%)	480 (10.9%)	3 (1.0%)	1,077 (5.4%)
	충북	142 (0.9%)	16 (0.4%)	0 (0%)	158 (0.8%)
	합계	15,117 (100%)	4,421 (100%)	313 (100%)	19,851 (100%)

## 2) 계열별·설립형태별·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수

전문대학원의 계열별 재적자수는 인문사회계열이 14,602명(73.6%)로 자연계열(1,291명) 및 공학계열(2,726명)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이 13,065명(65.8%)이고 대학원대학이 6786명(34.2%)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위과정에 따라 전문대학원의 과정별 재적학생수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이 15,117명, 박사과정이 4,421명이었고 이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인문사회계열(11,491명, 76.0%)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학계열(1,770명, 11.7%)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대학원 수와 비례하기에 대학원수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표 II-13>).

<표 II-13> 계열별·설립형태별·과정별 전문대학원 재적자 수

구분		석사 재적학생수	박사 재적학생수	석박통합 재적학생수	합계
계열	공학	1,770 (11.7%)	871 (19.7%)	85 (27.2%)	2,726 (13.7%)
	예체능	934 (6.2%)	293 (6.6%)	5 (1.6%)	1,232 (6.2%)
	인문사회	11,491 (76.0%)	2,992 (67.7%)	119 (38.0%)	14,602 (73.6%)
	자연과학	922 (6.1%)	265 (6.0%)	104 (33.2%)	1,291 (6.5%)
	합계	15,117 (100%)	4,421 (100%)	313 (100%)	19,851 (100%)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9,869 (65.3%)	3,100 (70.1%)	96 (30.7%)	13,065 (65.8%)
	대학원대학교	5,248 (34.7%)	1,321 (29.9%)	217 (69.3%)	6,786 (34.2%)
	합계	15,117 (100%)	4,421 (100%)	313 (100%)	19,851 (100%)

## 나. 전문대학원 교육여건 현황

### 1)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수는 1,374명이었고 대학원당 11명의 전임교원이 있었으며, 국공립(13명)이 사립(11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1명)과 비수도권(11명)이 차이가 없었다(<표 II-14>).

〈표 II-14〉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평균(명)
설립주체	국공립	313	13.0
	사립	1,061	10.9
	합계	1,374	11.3
지역	수도권	1,063	11.4
	비수도권	311	11.1
	합계	1,374	11.3

#### 나)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계열별로 전문대학원당 전임교원 수를 살펴보면, 공학계열(9명)과 예체능계열(8명)이 평균(10명)보다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대학교(14명)가 일반대학교에 설치된 전문대학원(10명)보다 평균 전임교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15>).

〈표 II-15〉 설립형태별 · 계열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구분		전임교원 수	평균(명)
계열	공학	216	8.6
	예체능	83	8.3
	인문사회	945	10.6
	자연과학	130	10.8
	합계	1,374	10.1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891	10.3
	대학원대학교	483	13.8
	합계	1,374	11.3

## 2)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산업체경력자)<sup>2)</sup> 비율

### 가)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산업체경력자) 비율

전문대학원의 목적이 전문직업인력분야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자가 전임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의 질에 영

2) 대학정보공시제의 산업체 정의에 의거하였다(<http://www.academyinfo.go.kr/help/help.jsp>).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실무경력자 수는 전체 전임교원 1,374명 중 155명으로 전임교원 중 실무경력자 비율은 11.7%였다. 전임교원 대비 실무경력자의 비율이 사립(10.8%)에 비해 국공립(14.9%)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1%)과 비수도권(13%)이 별 차이가 없었다(<표 II-16>).

〈표 II-16〉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구분		산업체 경력자 수	평균	산업체경력자/전임교원 비율(%)
설립주체	국공립	50	2.0	14.9
	사립	105	1.1	10.8
	합계	155	1.4	11.7
지역	수도권	111	1.2	11.1
	비수도권	44	1.5	13.4
	합계	155	1.3	11.7

#### 나)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산업체경력자) 비율

계열별로는 예체능(3.1%)의 실무경력자가 매우 낮게 나타나 전임교원의 질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일반대학교(13.2%)가 대학원대학교(7.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17>).

〈표 II-17〉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구분		산업체 경력자 수	평균	산업체경력자/전임교원 비율(%)
계열	공학	30	1.2	14.8
	예체능	4	0.4	3.1
	인문사회	106	1.2	11.5
	자연과학	15	1.2	10.5
	합계	155	1.2	11.5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123	1.4	13.2
	대학원대학교	32	1.0	7.8
	합계	155	1.3	11.7

### 3) 전문대학원 비전임 교원 수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비전임 교원 수

전문대학원 비전임(겸임, 객원, 초빙, 시간강사, 기타) 교원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62명으로 나타났고 <표 II-14>에서 전임교원이 1,374명이었으므로 비전임대 전임교원 비율은 1.06 : 1이었다. 대학원당 비전임 교원수는 사립(13명)이 국공립(8명)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4명)이 비수도권(5명)보다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표 II-18>).

<표 II-18>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구분		비전임교원 수	평균(명)
설립주체	국공립	184	7.6
	사립	1,278	13.3
	합계	1,462	12.1
지역	수도권	1,320	14.1
	비수도권	142	5.2
	합계	1,462	12.1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비전임 교원 수

계열별 대학원당 비전임교원수는 공학(7명)과 자연과학(4명)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학과 자연과학이 타 계열보다 국공립형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일반대학교(12명)가 대학원대학교(13명)보다 약간 낮았다(<표 II-19>).

<표 II-19>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구분		비전임교원수	평균(명)
계열	공학	164	6.8
	예체능	103	10.3
	인문사회	1,155	12.9
	자연과학	40	3.6
	합계	1,462	10.9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1,037	12.0
	대학원대학교	425	12.5
	합계	1462	12.1



#### 4)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 가)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전문대학원의 교원 현황을 잘 나타내는 자료는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로서 다음과 같다. 전임 교원 1인당 대학원생은 14명이었고 국공립(12명)이 사립(15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에서는 수도권(15명)이 비수도권(11명)보다 많았으나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8명으로 차이가 없었다(<표 II-20>).

<표 II-20>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설립주체	국공립	12.0	8.2
	사립	15.0	7.9
	합계	14.4	8.0
지역	수도권	15.3	8.1
	비수도권	11.4	7.7
	합계	14.4	8.0

##### 나)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평균(14명)보다 자연과학 계열(11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일반대학교(15명)와 대학원대학교(14명)가 별 차이가 없었다(<표 II-21>).

<표 II-21>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계열	공학계열	14.4	8.7
	예체능계열	11.4	6.3
	인문사회계열	15.0	8.1
	자연과학계열	10.6	5.5
	합계	14.3	7.8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14.5	7.9
	대학원대학교	14.0	8.1
	합계	14.4	8.0

## 5) 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설립주체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80%)이 사립(66%)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간 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반대로 사립(21%)이 국공립(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교원관련 교육여건이 국공립이 사립보다 좋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수도권(68%)과 비수도권(71%)이 별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수도권(21%)이 비수도권(11%)보다 높았다(<표 II-22>).

<표 II-22>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구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설립주체	국공립	77.9	8.3
	사립	66.2	21.2
	합계	68.6	18.6
지역	수도권	68	20.9
	비수도권	70.9	10.5
	합계	68.6	18.6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계열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공학(74%), 자연과학(71%) 인문사회계열(67%), 예체능계열(61%)로 이공계열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이 타 계열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시간강사 강의 담당비율은 반대로 자연과학(6%), 공학(9%), 인문사회계열(20%), 예체능계열(26%)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공계열이 타 계열보다 교육여건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설립형태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보면 대학원 대학교(78%)가 일반대학교(65%)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간강사 강의담당비율의 경우는 대학원대학교(18%)와 일반대학교(19%)가 별 차이가 없었다(<표 II-23>).

〈표 II-23〉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구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계열	공학계열	73.6	9.4
	예체능계열	60.6	25.5
	인문사회계열	67.4	20.5
	자연과학계열	70.8	6.0
	합계	68.3	17.5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64.7	19.0
	대학원대학교	77.6	17.7
	합계	68.6	18.6

## 6)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 가) 설립주체 및 지역에 따른 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설립주체에 따른 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사립(467만원)이 국공립(327만원)보다 상당히 많았고, 박사과정의 경우도, 사립(498만원)이 국공립(327만원)보다 상당히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수도권(463만원, 490만원)이 비수도권(359만원, 397만원)보다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표 II-24>).

〈표 II-24〉 설립주체 및 지역에 따른 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단위: 천원)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설립주체	국공립	3,266	3,267	-
	사립	4,669	4,977	5,908
	합계	4,381	4,695	5,908
지역	수도권	4,632	4,896	5,908
	비수도권	3,585	3,967	-
	합계	4,381	4,695	5,908

## 나) 계열 및 설립형태에 따른 과정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계열별로 살펴보면, 석사와 박사과정 모두 예체능계열(519만원, 544만원)이 매우 높고 자연계열(369만원, 380만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계열이 낮은 이유는 국공립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반대학교(476만원, 485만원)보다 대학원 대학교(342만원, 429만원)가 등록금이 적음을 알 수 있다(<표 II-25>).

〈표 II-25〉 계열 및 설립형태에 따른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단위: 천원)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계열	공학계열	4,843	4,807	-
	예체능계열	5,193	5,438	5,336
	인문사회계열	4,208	4,604	6,051
	자연과학계열	3,693	3,806	4,107
	합계	4,355	4,637	5,608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4,758	4,852	5,278
	대학원대학교	3,421	4,286	6,853
	합계	4,381	4,695	5,908

## 7)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 가)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비율은 설립주체별, 지역별 모두 별 차이가 없었다.

〈표 II-26〉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구분		비율(%)
설립주체	국공립	11.6
	사립	14.9
	합계	14.2
지역	수도권	14.5
	비수도권	13.5
	합계	14.2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비율에서 계열별로 예체능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설립형태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표 II-27〉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구분		비율(%)
계열	공학	12.7
	예체능	20.3
	인문사회	13.9
	자연과학	11.8
	합계	14.0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14.5
	대학원대학교	13.6
	합계	14.2

#### 다. 전문대학원 연구성과 현황

##### 1)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전체적으로 0.53편으로 나타났다. 국공립(0.63편)이 사립(0.50편)보다 높았고, 전임교원 1인당 해외 학술지 논문에서도 국공립(0.32편)이 사립(0.1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별 차이가 없었다(〈표 II-28〉).

〈표 II-28〉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논문_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전임교원 1인당 논문_SCI급/SCOPUS 학술지
설립주체	국·공립	0.63	0.32
	사립	0.50	0.1
	합계	0.53	0.15
지역	수도권	0.51	0.13
	비수도권	0.60	0.2
	합계	0.53	0.15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예체능(0.58편), 인문사회(0.56편)가 공학(0.47편)이나 자연과학(0.26편)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 전임교원 1인당 해외학술지 논문은 자연과학(0.55편)과 공학(0.40편)이 인문사회(0.05)와 예체능(0.01)보다 월등히 높았다. 설립형태별로는 국내와 국외 모두 일반대학교(0.67편, 0.20편)가 대학원대학교(0.19편, 0.01편)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29>).

<표 II-29>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논문_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전임교원 1인당 논문_SCI급/SCOPUS 학술지
계열	공학	0.47	0.40
	예체능	0.58	0.01
	인문사회	0.56	0.05
	자연과학	0.26	0.55
	합계	0.52	0.16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0.67	0.20
	대학원대학교	0.19	0.01
	합계	0.53	0.15

## 2)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 실적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 실적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수혜 실적 액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7만원으로 나타났고 사립(433만원)이 국공립(306만원)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188만원이었고 사립(5,893만원)보다 국공립(12,207만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내와 교외 연구비 각각 수도권(342만원, 5,795만원)보다 비수도권(614만원, 11,616만원)이 더 많게 나타났다(<표 II-30>).

〈표 II-30〉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 · 외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액수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액수
설립주체	국 · 공립	3,060	122,073
	사립	4,331	58,929
	합계	4,070	71,882
지역	수도권	3,419	57,952
	비수도권	6,141	116,157
	합계	4,070	71,882

나)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 · 외연구비 수혜 실적

교내연구비의 경우 계열별로는 자연과학(1,158만원), 공학(536만원)이 인문사회(336만원)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반대학교(564만원)가 대학원대학교(40만원)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외연구비의 경우 계열별로는 자연과학(25117만원), 공학(18944만원)이 인문사회(2780만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대학교(10210만원)가 대학원대학교(108만원)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원대학교의 대부분이 인문사회계열이고 또 그 절반이 신학계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표 II-31〉).

〈표 II-31〉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실적

(단위: 천원)

구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액수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액수
계열	공학	5,357	189,443
	예체능	4,349	14,309
	인문사회	3,360	27,796
	자연과학	11,581	251,167
	합계	4,553	77,798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5,638	102,103
	대학원대학교	396	1,079
	합계	4,070	71,882

## 5.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 가. 전문대학원 입학 현황

#### 1)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전체적으로 7,844명이었으며 이중 사립(6,408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원 수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학교당 입학정원수는 사립(66명)이 국공립(60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68명)이 비수도권(55명)보다 많이 나타났다(<표 II-32>).

<표 II-32>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구분		사례수	학생수	평균(명)
설립주체	국공립	24	1,436	59.8
	사립	97	6,408	66.0
	합계	121	7,844	64.8
지역	수도권	93	6,300	67.7
	비수도권	28	1,544	55.1
	합계	121	7,844	64.8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가 5,933명으로 자연과학(686명)과 공학(851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대학원수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원당 입학정원은 자연과학(76명), 인문사회(67명), 예체능(53명), 공학(50명) 순이었다. 설립형태별로는 대학원대학교(82명)가 일반대학교(58명)보다 많았다(<표 II-33>).



〈표 II-33〉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구분		사례수	학생수	평균(명)
계열	공학	17	851	50.0
	예체능	7	374	53.4
	인문사회	88	5,933	67.4
	자연과학	9	686	76.2
	합계	121	7,844	64.8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86	4,986	57.9
	대학원대학교	35	2,858	81.6
	합계	121	7,844	64.8

## 2)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2.3대 1이었으며 사립(2.4: 1)이 국공립(2.1: 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2.6: 1)이 비수도권(1.5: 1)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34〉).

〈표 II-34〉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구분		경쟁률
설립주체	국공립	2.1
	사립	2.4
	합계	2.3
지역	수도권	2.6
	비수도권	1.5
	합계	2.3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계열별로는 인문사회(2.4: 1), 자연과학(2.2: 1), 예체능(2.1: 1)이 유사하였고 공학계열이 1.6대 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는 대학원대학교(1.8: 1)가

일반대학교(2.5: 1)보다 경쟁률이 낮게 나타났다(<표 II-35>).

<표 II-35> 지역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구분		경쟁률
계열	공학	1.6
	예체능	2.1
	인문사회	2.4
	자연과학	2.2
	합계	2.3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2.5
	대학원대학교	1.8
	합계	2.3

### 3) 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

#### 가)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sup>3)</sup>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모두 각각 국공립(114%, 111%)이 사립(95%, 9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입생 충원률에서는 수도권(100%)이 비수도권(93%)보다 다소 높으나 재학생 충원률은 차이가 없었다. 충원률이 100%를 넘는 이유는 정원 외 입학생을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외국이나 교포 등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표 II-36>).

<표 II-36>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 재학생 충원률

구분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설립주체	국공립	113.7	111.0
	사립	95.0	94.4
	합계	98.2	97.8
지역	수도권	99.8	97.9
	비수도권	93.2	97.4
	합계	98.2	97.8

3) 신입생 충원율 = (입학자수/입학정원)X100(%),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수/편제정원)X100(%)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

신입생 충원률은 인문사회계열(102%)이 제일 높았고 재학생 충원률은 공학(104%)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는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각각 일반대학교(102%, 104%)가 대학원대학교(89%, 83%)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37>).

〈표 II-37〉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구분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계열	공학	93.3	104.1
	예체능	96.2	97.5
	인문사회	101.5	97.3
	자연과학	89.0	97.3
	합계	99.2	98.6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102.1	103.6
	대학원대학교	88.5	83.2
	합계	98.2	97.8

## 나. 전문대학원 졸업 현황

### 1)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는 전체적으로 석사학위자가 4,389명이었고, 박사학위자 수는 592명이었다. 설립주체별 지역별 석사학위자 수는 <표 II-38>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수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II-38〉 설립주체별·지역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사례수	학위자수	사례수	학위자수
설립주체	국공립	20	941	20	76
	사립	92	3,448	92	516
	합계	112	4,389	112	592
지역	수도권	89	3,648	89	470
	비수도권	23	741	23	122
	합계	112	4,389	112	592

## 나)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계열별로 분석하면 석사학위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3,370명)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박사학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383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대학원수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표 II-39>).

<표 II-39> 계열별·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사례수	학위자수	사례	학위자수
계열	공학	21	578	21	125
	예체능	10	245	10	36
	인문사회	88	3,370	88	383
	자연과학	7	208	7	48
	합계	126	4,401	126	592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77	2,979	77	439
	대학원대학교	35	1,410	35	153
	합계	112	4,389	112	592

## 2) 전문대학원 취업률

### 가) 설립주체별·지역별·과정별 취업률

전문대학원의 교육성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취업률을 살펴보면, 석사학위자의 경우 64%, 박사학위자의 경우 82%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 분석하면, 석사학위의 경우 사립(64%)과 국공립(63%)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박사학위자의 경우 국공립(92%)이 사립(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석사와 박사 취업률 모두 수도권(65%, 84%)이 비수도권(60%,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률 통계에 기취업자가 입학한 경우도 취업자로 포함되므로, 취업률이 높다는 것이 순수하게 대학원 이수자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 IV-4>에서 보듯이 전일제 대학원생이 57.7%, 시간제 대학원생이 37.6%로 나왔다. 이 경우 취업률을 대부분 기취업자가 끌어올려주기에 순수하게 미취업자가 졸업 후 취업한 취업률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II-40>).

〈표 II-40〉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구분		석사 취업률(%)	박사 취업률(%)
설립주체	국공립	63.1	91.8
	사립	64.1	80.5
	합계	63.9	81.8
지역	수도권	65	83.7
	비수도권	59.8	74.1
	합계	63.9	81.8

#### 나)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전문대학원의 취업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석사학위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66%)이 공학(6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사학위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84%)이 공학계열(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는 석사와 박사 모두 대학원대학교(71%, 86%)가 일반대학교(61%, 81%)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41>).

〈표 II-41〉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구분		석사 취업률(%)	박사 취업률(%)
계열	공학	62.1	79.5
	예체능	59.9	68.6
	인문사회	65.7	84.1
	자연과학	46.0	78.2
	합계	63.6	81.9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60.9	80.8
	대학원대학교	71.2	85.6
	합계	63.9	81.8

### 3) 전문대학원생 중도탈락율

#### 가)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생 중도탈락율

대학원 교육성과를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중도탈락율의 경우 국공립(7%)이 사립(6%)과 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6%)이 비수도권(8%)보다

중도탈락률이 낮게 나타났다(<표 II-42>).

〈표 II-42〉 설립주체별 · 지역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구분		비율(%)
설립주체	국공립	7.1
	사립	6.0
	합계	6.2
지역	수도권	5.6
	비수도권	8.4
	합계	6.2

#### 나)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중도탈락율을 계열별,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자연과학계열(9%)이 평균(6%)보다 약간 높았다(<표 II-43>).

〈표 II-43〉 계열별 · 설립형태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구분		비율(%)
계열	공학	5.0
	예체능	5.2
	인문사회	6.3
	자연과학	8.6
	합계	6.1
설립형태	일반대학교	6.4
	대학원대학교	5.8
	합계	6.2

## 6. 신학비신학 계열 전문대학원의 비교분석

### 가. 학교수 및 대학원생 수

2011년 기준으로 전문대학원 중 신학계열 대학원은 32개로 전체 전문대학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19개는 대학원대학교 형태여서 32개의 신학계열 대학원의 59%가 대학원대학교 형태로 설립되어 있었다(<표 II-44>).

<표 II-44>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학교 수

구분	대학원수	비율(%)
비신학대학원	89	73.6
신학대학원	32	26.4
합계	121	100

2011년 기준으로 신학계열 대학원의 재적학생 수는 5,219명(26%)이었고, 이 중 석사 재적생수는 3,928명(26%), 박사과정 재적학생수는 1,251명(28%)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전문대학원 학교수 중 신학계열 전문대학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26.4%와 비례하는 수치였다(<표 II-45>).

<표 II-45>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재적학생 수

구분	석사재적생수		박사재적학생수		석박통합재적학생수		합계	
비신학대학원	11,189	74.0%	3,170	71.7%	273	87.2%	14,632	73.7%
신학대학원	3,928	26.0%	1,251	28.3%	40	12.8%	5,219	26.3%
합계	15,117	100%	4,421	100%	313	100%	19,851	100.0

### 나. 전문대학원의 여건 및 성과측면

#### 1) 여건 현황

신학계열 대학원의 전임교원수는 평균 11명으로 비신학계열 대학원의 전임교원수(11명)와 거의 동일하였다. 대학의 여건이 신학대학원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

임교원수가 동일한 것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II-46>).

〈표 II-46〉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수

구분	전임교원 수	평균(명)
비신학대학원	1,008	11.3
신학대학원	366	11.4
합계	1,374	11.4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에서 비신학대학원(14%)이 신학대학원(5%)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47>).

〈표 II-47〉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구분	산업체경력자 수	평균	실무경력자/전임교원 비율(%)
비신학대학원	137	1.56	13.7
신학대학원	18	0.69	5.2
합계	155	1.36	11.7

전문대학원 평균 비전임교원수는 비신학대학원(13명)이 신학대학원(9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따르면, 이는 비신학대학원이 신학대학원보다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표 II-48>).

〈표 II-48〉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구분	비전임교원 수	평균(명)
비신학대학원	1,166	13.3
신학대학원	296	9.3
합계	1,462	12.2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에서는 비신학대학원(14.8명)과 신학대학원(13.4명)이 별 차이가 없었고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도 비신학대학원(7.9명)과 신학대학원(8.4명)이 거의 동일하였다(<표 II-49>).



〈표 II-49〉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비신학대학원	14.8	7.9
신학대학원	13.4	8.4
합계	14.4	8.0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서는 비신학대학원(67%)이 신학대학원(75%)보다 낮았고,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비신학대학원(17%)이 신학대학원(24%)보다 낮았다(<표 II-50>).

〈표 II-50〉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구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비신학대학원	66.6	16.7
신학대학원	74.5	24.3
합계	68.7	18.7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신학대학원(333만원, 420만원)이 비신학대학원(478만원, 490만원)보다 적었다. 신학계열 대학원은 모두 사립이고 비신학대학원에는 24개의 국공립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학대학원이 비신학대학원보다 등록금이 저렴함을 알 수 있다(<표 II-51>).

〈표 II-51〉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단위: 천원)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비신학대학원	4779.1	4903.3	6369.7
신학대학원	3326.1	4206.7	4062.0
합계	4381.7	4695.1	5908.1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은 신학대학원(14%)과 비신학대학원(16%)이 별 차이가 없었다(<표 II-52>).

〈표 II-52〉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구분	비율(%)
비신학대학원	13.8
신학대학원	15.9
합계	14.3

## 2) 연구성과 현황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국내/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현황은 모두 신학대학원(0.38편, 0편)이 비신학대학원(0.58편, 0.2편) 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II-53>).

〈표 II-53〉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논문_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전임교원 1인당 논문_SCI급/SCOPUS 학술지
비신학대학원	0.58	0.2
신학대학원	0.38	0.003
합계	0.53	0.15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현황은 비신학대학원(518만원, 9623만원)이 신학대학원(87만원, 127만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표 II-54>).

〈표 II-54〉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액수	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액수
비신학대학원	5,176	96,232
신학대학원	866	1,269
합계	4,071	71,882

## 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표 II-55>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신학대학원(63.2명)과 비신학대학원(65.4명)간에 차이가 비신학대학원이 2.2명 많았다.

〈표 II-55〉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구분	사례수	학생수	평균(명)
비신학대학원	89	5,821	65.4
신학대학원	32	2,023	63.2
합계	121	7,844	64.8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은 비신학대학원(2.7:1)이 신학대학원(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학대학원은 1.6대 1의 경쟁률로 상대적으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표 II-56〉).

〈표 II-56〉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구분	경쟁률
비신학대학원	2.7
신학대학원	1.6
합계	2.4

전문대학원 신입생/재학생 충원률은 각각 비신학대학원(104%, 103%)이 신학대학원(83%, 83%)보다 높게 나타나서 신학대학원의 충원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충원률은 정원외 입학생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충원률은 이보다 더 저조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표 II-57〉).

〈표 II-57〉 신학·비신학별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구분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비신학대학원	104.4	103.2
신학대학원	83.2	83.2
합계	98.2	97.8

전문대학원 석사학위자 수는 전체 4,389명 중 신학대학원이 1,002명(22%)이었고 박사학위자수는 전체 592명 중 신학대학원이 160명(27%)으로서 전체 전문대학원 112개 중 신학대학원 32개(28%)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표 II-58〉).

〈표 II-58〉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사례수	학위자수	사례수	학위자수
비신학대학원	80	3,387	80	432
신학대학원	32	1,002	32	160
합계	112	4,389	112	592

전문대학원 취업률에서 석사는 차이가 없으나 박사의 경우 신학대학원(76%)이 비신학대학원(84%)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률에는 기취업자도 포함되므로 실제 순수한 취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II-59>).

〈표 II-59〉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취업률

구분	석사 취업률(%)	박사 취업률(%)
비신학대학원	63.7	84.0
신학대학원	64.5	75.7
합계	63.9	81.9

전문대학원생 중도탈락률은 신학대학원(6%)과 비신학대학원(6%)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II-60>).

〈표 II-60〉 신학·비신학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구분	비율(%)
비신학대학원	6.1
신학대학원	6.7
합계	6.3

## 7. 교과부 승인제도 시행 전후 전문대학원에 대한 비교 분석

### 가. 학교수 및 대학원생 수

2011년 기준으로 2005년(교과부 승인제도 시행년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은 15개로 분석대상인 전문대학원 121개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표 II-61>).

<표 II-61>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학교 수

구분	대학원수	비율(%)
2005년 이전	106	87.6
2005년 이후	15	12.4
합계	121	100

20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 학생수는 전체 대학원생 수(19,851명)중 1,248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12.4%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학생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선 입학정원이 적다는 점, 둘째, 정원 외 입학생이 별로 없다는 점, 셋째, 2011년에 신설된 2개 학교 그리고 2010년에 신설된 5개 학교가 포함되어 고학년이 없거나 설립 초기 학생 유치의 어려움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표 II-62>).

<표 II-62>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재적학생 수

구분	석사재적생수		박사재적학생수		석박통합재적학생수		합계	
2005년 이전	14,193	93.9%	4,108	92.9%	302	96.5%	18,603	93.7%
2005년 이후	924	6.1%	313	7.1%	11	3.5%	1,248	6.3%
합계	15,117	100%	4,421	100%	313	100%	19,851	100.0

## 나. 전문대학원의 여건 및 성과 현황

### 1) 여건 현황

전문대학원 평균 전임교원수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2명)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10명)이 약간 적었다(<표 II-63>).

〈표 II-63〉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수

구분	전임교원 수	평균(명)
2005년 이전	1,224	11.5
2005년 이후	150	10.0
합계	1,374	11.4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경력자 비율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1%)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16%)이 더 높았다(<표 II-64>).

〈표 II-64〉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구분	산업체경력자 수	평균	실무경력자/전임교원 비율(%)
2005년 이전	126	1.3	11.1
2005년 이후	29	1.9	16.0
합계	155	1.4	11.7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3명)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6명)이 더 적었다(<표 II-65>).

〈표 II-65〉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비전임교원 수

구분	비전임교원 수	평균(명)
2005년 이전	1,367	13.0
2005년 이후	95	6.3
합계	1,462	12.2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5명)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8명)이 상당히 적었다. 그 이유는 전임교원 수는 차이가 없는데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의 대학원생 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의 경우도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8명)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5명)이 적었는데 비전임교원수가 평균 7명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역시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의 대학원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표 II-66>).

<표 II-66>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2005년 이전	15.4	8.4
2005년 이후	8.3	5.3
합계	14.4	8.0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68%)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75%)이 높았다. 이는 전임교원 수는 차이가 없는데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의 대학원생 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개설강의 수가 적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II-67>).

<표 II-67>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구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2005년 이전	67.8	20.6
2005년 이후	74.6	5.6
합계	68.7	18.7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에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431만원)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488만원)이 더 높았다(<표 II-68>).

〈표 II-68〉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단위: 천원)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2005년 이전	4,309	4,716	5,908
2005년 이후	4,879	4,534	-
합계	4,382	4,695	5,908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비율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4%)과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16%)이 유사하였다(<표 II-69>).

〈표 II-69〉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정부보증대출이용 학생 비율

구분	비율(%)
2005년 이전	14.1
2005년 이후	15.5
합계	14.3

## 2) 연구성과 현황

전문대학원 1인당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1인당 해외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0.07편)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0.7편)이 높았다(<표 II-70>).

〈표 II-70〉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논문_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전임교원 1인당 논문_SCI급/SCOPUS 학술지
2005년 이전	0.55	0.07
2005년 이후	0.41	0.7
합계	0.53	0.15

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액수에서는 각각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340만원, 3422만원)이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859만원, 32798만원)보다 훨씬 작았다(<표 II-71>).



〈표 II-71〉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액수	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액수
2005년 이전	3,406	34,221
2005년 이후	8,588	327,977
합계	4,071	71,882

## 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67명)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48명)이 평균 학교당 20명정도 적었다. 이는 법령이 정한 대학원 설립기준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II-72>).

〈표 II-72〉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구분	사례수	학생수	평균(명)
2005년 이전	106	7,127	67.2
2005년 이후	15	717	47.8
합계	121	7,844	64.8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2.4:1)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2:1)이 약간 낮았는데 신설된 대학원 등의 경우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표 II-73>).

〈표 II-73〉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

구분	경쟁률
2005년 이전	2.4
2005년 이후	2.0
합계	2.4

전문대학원 신입생 충원률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00%)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84%)이 낮았다. 경쟁률이 2:1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는 2011년이나 2010년 등 최근에 설립된 대학원의 경우 설립초기의 낮은 인지도로 정원을 못

채웠고, 정원 외 입학생이 적고, 적은 표본 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05년 이전 설립 대학원의 경우 충원률 100%에서 나타나듯이 정원외 입학생이 상당히 있었는데 05년 이후 설립 대학원은 정원외 입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설된 대학원이 정원을 못 채운 경우 15개라는 적은 샘플 수로 인해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충원률의 경우도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101%)보다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75%)이 낮았다. 이는 재학생수/편제정원에서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인데 신설된 경우 고학년이 없을 수 있고 위와 같이 정원 외 입학생이 적고 정원을 못 채운 경우 15개라는 적은 샘플 수로 인해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 II-74>).

〈표 II-74〉 교과부 승인 전후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구분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2005년 이전	100.1	101.1
2005년 이후	83.7	75.1
합계	98.2	97.8

전문대학원 학위 취득자 현황에서는 신설된 지 얼마 안된 대학원의 경우 졸업자가 배출되지 않아 분석대상이 7개 대학원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사례수가 너무 적어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표 II-75>).

〈표 II-75〉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

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사례수	학위자수	사례수	학위자수
2005년 이전	105	4,191	105	584
2005년 이후	7	198	7	8
합계	112	4,389	112	592

전문대학원 취업률 현황에서는 석사취업률과 박사취업률이 각각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64%, 82%)과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63%, 88%)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표 II-76>).

〈표 II-76〉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취업률

구분	석사 취업률(%)	박사 취업률(%)
2005년 이전	64.0	81.7
2005년 이후	62.9	87.5
합계	63.9	81.9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에서는 05년 이전 설립된 대학원(6%)과 05년 이후 설립된 대학원(7%)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표 II-77〉).

〈표 II-77〉 교과부 승인 전후 전문대학원 중도탈락율

구분	비율(%)
2005년 이전	6.2
2005년 이후	6.6
합계	6.3

## 8. 전문대학원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가. 전문대학원의 전체적인 현황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여건 측면, 연구성과 측면, 운영현황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대학원의 여건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학원당 11명의 전임 교원이 있었으며, 전임 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는 14명이었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9%였다. 반면,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은 12%로 대학원당 11명의 전임교원 중 1명꼴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점으로 전문대학원의 취지가 전문 실무인력의 양성이라고 할 때, 교원의 질이나 교육과정의 이를 달성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질과 관련해서 전임교원 중에 실무경력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능력이 겸비된 교원이 부족하고 실제현장에 이론을 적용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영향은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무현장과 연계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턴십 등 실험실습의 기회

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를 실무경력을 지닌 비전임교원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IV-31>에서 보듯이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평균 보통이다(10-20%)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에 비전임교원도 전문실무 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장 실습과목의 필수 이수여부에 대하여 절반 가까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IV-37>참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 전문대학원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전체적으로 0.53편으로 나타났고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188만원이었다.

셋째,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2.3대 1로 나타나고 있다.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은 각각 98%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등 정원의 입학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충원률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석사학위자의 경우 64%, 박사학위자의 경우 82%로 나타났다. 기졸업자가 입학한 경우도 취업자로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미취업자가 전문대학원의 졸업 후 취업한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표 IV-4>에서 보듯이 전일제 대학원생이 57.7%, 시간제 대학원생이 37.6%로 나왔다. 이 경우 취업률을 대부분 기취업자가 끌어올려주기에 순수하게 미취업자가 졸업 후 취업한 취업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실무인력양성이라는 취지에 볼 때 취업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전문대학원의 주·야간 수업 실시문제로 기취업자를 위한 수업방안이 문제가 된다. 전문대학원의 취지상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미취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기반사회의 급격히 변화하는 유동적인 노동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직장을 위하여 등 여러 이유로 기취업자가 입학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취업 학생들을 위한 수업방식으로서 야간이나 주말강의를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 된다. 실제로 <IV-3>에서 보듯이 주·야간을 병행하는 경우가 약 23%에 이르고 있다.

## 나. 설립주체, 지역별, 계열별, 설립형태별 비교 현황

### 1) 설립주체별 비교

우선, 전반적으로 국공립형태의 전문대학원이 사립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의 여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임교원수에서 국공립(13명)이 사립(11명)보다 많았고, 비전임교원수는 국공립(8명)이 사립(13명)보다 적었다.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은 국공립(15%)이 사립(11%)보다 높았다.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국공립(12명)이 사립(15명)보다 적었고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차이가 없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78%)이 사립(66%)보다 높았고, 시간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국공립(8%)이 사립(21%)보다 매우 적게 나타났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임교원 1인당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국공립(0.63편)이 사립(0.5)보다 높았고, 전임교원 1인당 해외 학술지 논문에서도 국공립(0.32편)이 사립(0.1)보다 높았다. 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국공립(306만원)이 사립(433만원)보다 적었으나 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국공립(12207만원)이 사립(5893만원)보다 매우 많았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학정원은 국공립(60명)이 사립(66명)보다 적었고,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모두 각각 국공립(114%, 111%)이 사립(95%, 94%)보다 높았다. 취업률에서는, 석사학위의 경우 사립(64%)과 국공립(63%)이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박사학위자의 경우 국공립(92%)이 사립(81%)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지역별 비교

지역별 분포와 관련해서 서울 지역에 68개(56.2%)로 전체의 절반이상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93개(76.8%)가 설립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 전임교원 수는 차이가 없으나 비전임 교원수에서는 수도권이 더 많았다. 수도권 전문대학원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 비해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더 높았다. 아울러, 수도권 전문대학원이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조금 많음에 비해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정원이 수도권이 많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학생이 더 많았고 이를 일부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신입생 충원률과 경쟁률, 취업률, 중도탈락율 등에서 약간 수도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내외 연구비는 비수도권이 더 많았으며,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실적 등은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대학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이러한 수도권의 전문대학원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다소 상황이 좋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원의 지역별 편차가 문제가 된다. 이는 전문인력의 공급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특성으로 볼 때, 인력자원의 고른 분포를 저해할 수 있으며,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서정현 외, 2006)

### 3) 계열별 비교

전체적으로 볼 때, 공학계열이 양호하고 예체능계열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의 여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전임교원수는 인문사회(11명), 공학(9명), 예체능(8명)순이었고, 비전임교원수의 경우 인문사회(13명), 예체능(10명), 공학(7명)이었다. 그러나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는 인문사회(15명), 공학(14명), 예체능(11명)으로 인문사회와 공학계열이 별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정원이 인문사회(67명), 예체능(53명), 공학(50명) 순으로 많아서 학생수의 차이로 인해 전임교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을 보면, 공학(15%), 인문사회(12%), 예체능(3%) 순이었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공학(74%), 자연과학(71%) 인문사회계열(67%), 예체능계열(61%)로 이공계열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이 타 계열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시간강사 강의 담당비율은 반대로 자연과학(6%), 공학(9%), 인문사회계열(21%), 예체능계열(26%)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공계열이 타계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현황과 연구비 현황에서 모두 그러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공계의 연구비 액수가 인문계열보다 크고 해외학술지 게재수가 더 많다는 점이 전문대학원에서도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학생 충원률은 공학(104%)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비슷하였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석사학위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66%)이 공학(62%)보다 높게 나타났고, 박사학위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84%)이 공학계열(80%)보다 높게 나타났다.

#### 4) 설립형태별 비교

우선 연구여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임교원수는 대학원대학교(14명)가 일반대학교(10명)보다 높았다. 비전임교원수는 유사하였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대학원대학교(78%)가 일반대학교(65%)보다 높았다.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 그리고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수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일반대학교 형태의 전문대학원과 동일한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국내와 국외 모두 일반대학교(0.67편, 0.2편)가 대학원대학교(0.19편, 0.01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 1인당 교내/교외연구비 모두 일반대학교(564만원, 10210만원)가 대학원대학교(40만원, 108만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운영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학정원은 일반대학교(58명)가 대학원대학교(82명)보다 적은 반면,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모두 각각 일반대학교(102%, 104%)가 대학원대학교(89%, 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은, 석사와 박사 모두 대학원대학교(71%, 86%)가 일반대학교(61%,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설립형태별로 전문대학원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상당히 낮았고, 교내·외연구비는 저조한 반면 전임교원수는 높게 나타나 재정문제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대학원 대학 형태의 전문대학원의 문제점으로 교직원이나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대학원 형태의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원이나 행정직원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으나 대학원대학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다. 아울러,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각종 교육시설을 공유하는 일반대학원 형태의 전문대학원과 달리 이를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대학원 대학 형태 전문대학원의 경우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시설을 구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신학계열과 비신학계열 전문대학원의 비교

신학계열과 비신학계열 전문대학원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기준으로

신학계열 대학원은 32개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2개중 19개(59%)가 대학원대학교 형태로 설립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임교원수는 동일한 반면, 비전임교원수가 비신학대학원(13명)이 신학대학원(9명)보다 많았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에서 비신학대학원(14%)이 신학대학원(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현황은 비신학대학원(0.2편)이 신학대학원(0.03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은 비신학대학원(518만원, 9623만원)이 신학대학원(87만원, 127만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경쟁률도 비신학대학원(2.7:1)이 신학대학원(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은 각각 비신학대학원(104%, 103%)이 신학대학원(83%, 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신학대학원(333만원, 420만원)이 비신학대학원(478만원, 490만원)보다 적었다.

전체적으로 신학계열이 비신학계열보다 다소 여건이나 성과 등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모두 83%인데 정원 외 입학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모집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임교원수 등 여건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등록금, 교내외 연구비는 더 적고 반면에 충원율은 낮기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학대학원 중 절반이상(59%)이 대학원 대학교 형태라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에서 지적한 대학원 대학교의 문제인 교직원이나 교육시설 그리고 재정부족 등을 상당수의 신학계열 전문대학원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학계열 전문대학원에 대한 질관리가 요구된다.

## 라. 교과부 승인제도 시행 전후 설립된 전문대학원 비교

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 등이 강화된 2005년 전후 설립된 전문대학원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원 여건측면에서 볼 때,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현황, 전임교원 및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강의 담당비율 등에서 모두 20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은 입학정원(평균 20명 정도 적음)과 기타 설립기준의 강화 등이 적어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성과 측면에서도 전임교



원 1인당 해외 학술지 게재현황,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연구비 수혜액 등에서 모두 20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학생수와 신입생/재학생 충원률에서는 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선 입학정원이 적다는 점, 둘째, 정원 외 입학생이 별로 없다는 점, 셋째, 설립 초기의 일부 대학원의 미달이 반영된 점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수의 차이가 컸고, 재적학생수나 충원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Ⅲ. 선진국의 전문대학원 체제

#### 1. 미국

미국의 고등교육은 학문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산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와 지식의 보존 및 전달, 사회와 노동 시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생산적인 시민과 노동자의 제공이라는 목적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지만 그 조직과 운영은 매우 다양하다. 즉 다양성과 분권화, 시장경제원리의 적용, 개별기관 내에서의 융통성과 유동성, 독립적인 대학기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한 운영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오병철, 2002).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전문대학원은 사회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용성 추구, 전문직업인의 양성 및 재교육을 목적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전문대학원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및 전문대학원의 구조와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제도의 배경

전문대학원의 역사적인 기원은 12세기 유럽에서 유래하는데 당시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동등한 수준의 학문 이수 과정으로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일종의 준비과정이었다. 당시의 석사학위가 주로 인문과학분야의 학문수련 과정이었던데 비해, 박사학위는 신학·법학·의학 등 전문분야에서 수여되던 학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석박사학위가 오늘날의 학위과정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과 영국의 대학에서였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근대적인 대학원 교육의 형태를 갖추고, 박사학위를 정규학위로 발전시킨 독일의 대학원 교육체제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고등교육 발전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임천순 외, 1992: 35).

독일 대학원의 박사학위제도(Ph.D)를 미국이 도입하면서 독일 대학원에서 수여한

법학·신학·의학 등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는, 미국에서는 영역전문학위 또는 직업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1861년 예일대는 이과대학원(scientific school) 학생 3명에게 미국 최초로 박사학위(Ph.D)를 수여한다.

미국의 전문대학원 체제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하버드대의 최장기 총장인 C. W. Eliot이 꼽힌다. 그는 1869년부터 1909년까지 40년간 하버드대의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의학과 법학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고,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문리과 대학원(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GSAS)을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과 분리하여 신설한다(한기연, 2005: 99-100).

Eliot은 인문학에 기초하지 않은 대학원교육은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대학에서 잘 훈련된 과학적 전문인이 대학원에서 육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당시 미국의 전문직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주의 면허증은 비효 과적이고 최소 요구수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한 학식을 가질 것으로 가정되는 전문직업 분야에서 학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Eliot 총장은 전문대학원의 입학요건으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고 전문직 프로그램에 선수과목을 두어, 당시 2학기(의학)나 3학기(법학)만 다니면 학위를 주는 제도를 고치려고 하였다. Eliot 총장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의학대학원에서 먼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보다 더 길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짜여진 교육과정, 필기시험, 학생 수업료가 아닌 봉급에 의한 교수 월급 지급, 학교 내에서 지도 감독을 통한 실습 등이 그것이다(Hawkins, 1993).

또한 당시 독일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자 하버드대는 1872년 문학석사, 이학박사, 철학박사 학위과정의 필요성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대학원 설립 운동의 전개는 1876년 대학원 교육에 중점을 두는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으로서 존스홉킨스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져 전문대학원 설치의 필요성이 미국사회에서 공인되었다. 이후 전문대학원 교육은 급격히 팽창하여 19세기 말경에는 대부분의 공사립 대학이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대학원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문대학원의 팽창은 기존의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철학박사 학위에 상응하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교육학 분야에서는 1921년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교육학 박사(Ed.D.)가 수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러한 경향은 전미의 다른 대학

으로 확산된다.

Eliot 총장이 정립한 전문대학원의 이러한 구조적 기반은 이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나 전문직 프로그램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받는다. 즉, 학사학위의 요구, 연구를 겸하는 전임교수의 채용, 잘 짜여진 교육과정에 의한 학사-전문석사 등 두 단계의 학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이후 공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에도 적용된다. 전문대학원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법학대학원의 경우, 어떤 주에서는 승인된 법학대학원 졸업생에게는 변호사시험을 면제해 주고 나중에는 법학대학원 졸업생만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수준 낮은 법학대학원은 사라지거나 경쟁력있는 대학원에 흡수되기도 하였다(이인효, 1998: 46-47).

그런데 전문대학원의 양적 증가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대학교연합회(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가 창설되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 시카고대, 존스홉킨스대, 캘리포니아 카톨릭대, 펜실베이니아대, 미시간대, 위스콘신대, 클라크대, 코넬대, 예일대가 창설회원교였다. 특히 이 연합회는 미국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 당시 미국 박사학위에 대한 유럽의 경시현상과 인식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미국대학원협의회(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 in U.S.A.)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우현 외, 1988).

미국 전문대학원의 목적은 전문 직업분야에서 고도의 자질과 조예를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학술 연구 능력을 고려하여 수여되는 학술연구학위에 비해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 식견은 물론 전문인으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응용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더욱 널리 확산되었는데, 특히 고도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전문 분야별 고급 인력의 수요가 직업전문학위 소지 인력의 양성에 대한 유인체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전문대학원의 구조

미국 교육제도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비교적 신생국이고 여러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통일성 있고 일관된 유형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교육 운영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지방(local)이나 기관

(institutions)에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1965년에 처음으로 미국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이 제정되었고, 1998년에 이를 수정하였다. 하지만, 이 고등교육법은 기본적으로 각 주나 지방에서 행해지는 고등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생이나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규정과 근거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과 대학원의 운영은 개별 대학과 대학원에 의해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형관 외, 2004: 76-77).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 전문대학원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각 대학원에서 적용하는 입학과정, 학위 취득 과정과 수학 기간은 대학원마다 학과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배경이 된다.

이처럼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독자성을 발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학위수여제도나 명칭이 일정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서 영어로도 대학마다 학위정책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나타내는 표기법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즉 학위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 그 역사적 배경과 대학원 운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대학원이 개별 대학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이 학과(department)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학원을 포함한 미국의 고등교육체제가 매우 효과적이며 세계 주도적으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이자 특징은 ‘학과 중심의 대학원대학(graduate department university)’이라 특징지을 수 있는 강력한 자율운영 기제를 통해 대학원마다 학과마다 다양성을 보장받았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미국 대학원의 구조를 ‘복층형 횡렬구조(two-tier vertical structure)’라고 하는데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띤다.

미국의 대학원구조에서 학과는 대학 신입생의 기초 강좌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적 단위이다. 이처럼 학과 중심의 복층형 횡렬구조를 지닌 미국의 대학원제도는 유럽의 경우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이인호 외, 1998: 5). 이러한 학과 중심의 대학원이 지니는 다양성은 대학원마다 나름대로 특성화된 학과와 독창적인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의 전문대학원이 세계에서 더욱 경쟁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한다(서정현 외, 2006: 34).

대학원의 유형은 국가마다 대학원의 교육목적과 기능, 그리고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지만, 미국의 경우 기능별로 보면 크게 대학교원과 학자양성을 목적으로 학문학위(Academic Degree; MA, MS, Ph.D 등)를 수여하는 일반대학원과 고급전문직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MBA, Med, MFA, Ed.D, JD 등)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으로 대별된다.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원은 매우 다양한 학위체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학술편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육과정상의 다양성 확보이다. 전문학위의 교육목적은 “학문적 역량을 토대로 한 전문분야의 고급전문가(specialist)를 양성”하는데 있고, 학술의 교육목적은 “높은 수준의 연구기능 성취와 다양한 학문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의 습득”에 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석사학위과정은 고급전문직 양성 및 재교육 기능을 그리고 박사학위과정은 대학 교원, 학자, 연구자 양성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천순 외, 1992; Rhodes, 2001).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학부수준에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사, 변호사, 기술사, MBA 등 고급 전문직업 분야의 전문직은 주로 연구중심대학의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전문가준비과정(professional preparation)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은 증가 추세에 있다(서정현 외, 2006: 33).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은 다양한 교수진과 학생을 수용하여 통합화와 세분화, 선택권 보장으로 순수한 학문발전의 기초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과 전문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원 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성삼, 2001: 130-131).

미국의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은 종합대학(university) 안에 위치하는 구조로서, 전문대학원은 전문 영역별로 독립된 대학원 체제(school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Hawkins(1993)는 과학적, 맥락적, 전문적 훈련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유용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첫째, 과학적 요인으로, 종합대학은 전문적인 직업을 체계적 지식 즉, 문학, 역사, 경제학, 자연과학 등에 대한 광범한 지식의 기초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맥락적 요인으로, 종합대학 내에 위치하는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을 광범한 사회적, 지적, 도덕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미래의 전문인은 자신이 그 안에서 일할 사회조직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며, 고객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착취하지 않고 관대한 동정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이러한 구조는 전문적인 실전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대학의 교수들은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fee)이 아니라 봉급(salary)을 받기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기술적이며 주의깊은 지도를 해 줄 수 있다. 대학에서 훈련받은 전문인이 전통적인 도제제도에서 실습을 통한 학습으로 길러진 전문인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전문대학원의 종류에는 건축대학원(school of architecture), 경영대학원(school of business), 교육대학원(school of education), 공과대학원(school of engineering), 치과대학원(school of dentist), 임학대학원(school of forestry), 의학대학원(school of medicine), 법학대학원(school of law), 도서관대학원(school of library science), 간호대학원(school of nursing), 약학대학원(school of pharmacy), 안과대학원(school of oparmacy), 보건대학원(school of public health), 신학대학원(school of theology), 수의학대학원(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등이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학교에 따라 이들 두 프로그램을 일반대학원(Graduate School)과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두 가지 형태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합쳐 대학원(Graduate School)으로 부르기도 한다(김형관 외, 2004: 72-73). 학술펙위가 수여되는 일반대학원과 전문학위가 수여되는 전문대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하나의 학과내에서 전공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학위의 종류가 달라진다. 즉, 하나의 대학원 내에서 학문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대학원인 의학, 경영, 법학 등은 대학 내에서 school 개념으로 각자 통합되어 학사, 석사, 박사 및 학술펙위와 전문학위과정, 단기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개설되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유형은 학과의 역량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결정한다. 미국의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석사, 박사, 단기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학원(Graduate School)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학사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 고도의 학문(이론)중심 교육을 통해 박사학위(Philosophy of Doctor)를 수여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자와 교수 요원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원(Graduate School of Arts & Sciences: 한국에서의 일반대학원) 프로그램이다. 다른 하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현장 실무자와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법학, 의학, 치의학, 경영학, 약학, 교육, 신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습득 및 심화, 졸업 후 해당 직종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한 실습(Internship) 등을 통해 경영학석사(Master of Business: MBA), 법학박사(Juris Doctor: JD), 의학박사(Medical Doctor: MD) 등의 전문학위를 수여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직 수행을 준비시키는 고도의 전문 직업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학원(Professional School: 한국의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이 있다(김형관 외, 2004: 72-73).

이처럼 미국의 석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된다. 학술학위가 M.A.(Master of Arts)와 M.S.(Master of Science)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과 달리 전문전문석사과정은 종결석사과정(“terminal” master's programs)이라고 하여 더 이상 박사과정에 진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문석사학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표기되며 이를테면,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S.W.(Master of Social Work), M.Ed.(Master of Education), M.F.A.(Master of Fine Arts), M.M.(Master of Music) 등 140여종의 전문석사학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석사학위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고 36~48학점의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제출은 요구받지 않는다(서정현 외, 2006: 40).

둘째, 박사학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학술학위는 Ph.D.(Doctor of Philosophy)이고, 여기서 철학(Philosophy)이란 학문분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최고의 지성 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술연구인으로서의 자질을 상징하는 것이다. 박사학위에는 학술학위 이외에도 법과대학, 의과대학,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별도의 교수진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J.D.(Doctor of Juris), Ed.D.(Doctor of Education), M.D. (Doctor of Management) 등 40여종의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sup>4)</sup>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는 3~5년 동안 학점을 이수한 후 종합시험을 치루게 되어 있고, 이후 전문분야의 실

4) 그 외 미국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박사학위 종류로는 Doctor of Arts(AD), Doctor of Architecture(D Arch),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DBA), Doctor of Dental Surgery(DDS), Doctor of Laws(LD), Doctor of Medicine(MD), Doctor of Juridical Science(JSD), Doctor of Pharmacy(PD) 등이 있다.



무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단기프로그램(Graduate Diploma)의 경우, 평생교육과 계속교육 차원에서 직업인을 위한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교육과정의 비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의 자격증 형태로서 특정한 직종의 직업 훈련을 위한 자격과정이다. 단기학위과정의 학습 목표 혹은 학습 성과는 학사과정에서 이미 쌓은 기술과 지식이나, 새로운 전문 직종의 직업기술과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단기학위는 대학과정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더 확대시키고, 계통적이며 논리적인 지식체계를 세분화시키거나 새로운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직업적 지식과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석사 1년 과정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들 자격 취득한 후, 취업을 하거나 혹은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으로 들어 갈 수 있다.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교육과정으로 1년 동안 전공기초과정의 1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논문작성 없이 “Diploma”를 수여하는 과정이다. Diploma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전문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대학원의 특별전형을 거쳐서 입학할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프로그램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이론과 현장의 요구를 매치시키는 직업지향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입학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해당 분야 고도의 직업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은 입학 자격으로 일반대학원과 다른 형태의 시험 성적(예: 경영대학원의 경우,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s Test: GMAT; 법학대학원의 경우, 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이나 조건(예: 경영대학원의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김형관 외, 2004: 7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대학원교육 제도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미국 대학원에서 적용하는 입학과정, 학위 취득 과정과 수학 기간 역시 대학원에 따라 다르다. 대학원의 입학과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원들은 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한 가지 입학신청 양식과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대학원의 각 학과들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입학 신청서류에는 개인적인 진술(personal statement), 신상 정보 양식, 추천서, 에세이, 성적증명서, GRE(혹은 GMAT, LSAT 등)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원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 개인 인터뷰나 전화 인터뷰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신현석 외, 2005).

제출된 대학원 입학 신청서류는 대학원의 입학위원회나 혹은 각 학과 사무실로 직접 보내어지고, 이들 서류를 통해 입학결정 여부를 내리는 곳은 학과의 입학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입학사정, 이수과목 및 필수조건 설정 등의 규정은 대학행정당국, 교수위원회, 일반대학원 사무 부서 등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학과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학원 신입생은 중앙입학관리사무처에 의해 단과대학별로 입학하는 학부생과는 달리, 학과별로 선발된다(고용 외, 1999: 196-197).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석사과정 이수에 약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박사과정 이수에는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이 학문계열내에서 박사과정 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석사학위 논문을 면제하고, 소정의 교과목의 학점이수나 논문자격시험(Qualifying Exam)을 요구하고 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논문 대신 박사과정의 기초과목을 이수케 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학술프로그램(academic program)과 전문프로그램(professional program)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교육학의 경우 철학박사학위(Ph.D.)와 교육학박사학위(Ed.D.)의 구분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각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Ph.D.는 학술학위이고 다른 박사학위는 학술학위가 아니라는 구분이나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선 같은 Ph.D.라고 해도 또 같은 Ed.D.라고 해도 그 내용과 과정의 질적인 차이는 대학원간에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원의 Ed.D. 학위는 다른 대학원의 Ph.D. 학위보다 훨씬 학문 중심적이고, 질적으로도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학위는 본질적으로 질적 수준의 차이는 없고, 다만 그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 다. 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 현황을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일괄 해석하기는 어렵다. 미국 교육부의 교육통계센터에서 발표한 석사학위 취득자 수와 관련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자료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취득자 수를 보여 주고 있다. 1999-2000학년도에는 전미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463,185명이며, 2009-10학년도에는 693,025명으로 10년간 49.6%가 증가하였다 (<표 III-1>).

이를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전공을 중심으로 2009-10학년도의 학위 취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경영학 전공자(66,152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학(59,094명), 보건학(26,491명), 공학(12,6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법학의 경우 전체 학위 취득자 가운데 0.8%인 5,734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신학에서는 1.9%를 차지하는 12,824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계자료에서는 1999-2000학년도와 2009-10학년도의 학위 취득자 수 및 증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학은 10년간 석사학위 취득자 수가 70.6%나 증가하였으며, 보건 관련 분야는 62.2%, 경영학 59.3%, 교육학 48%, 법학 52.9%, 공학 47.7%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 미국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

학문 분야	1999-2000학년도		2009-10학년도		1999-2000학년도와 2009-10학년도의 비교	
	학위 취득자 수	학위 취득자 비율	학위 취득자 수	학위 취득자 비율	증가 인원	증가 비율
전 체	463,185	100.0	693,025	100.0	229,840	49.6
교육학(Education)	123,045	26.6	182,139	26.3	59,094	48.0
경영학(Business)	111,532	24.1	177,684	25.6	66,152	59.3
보건학(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programs)	42,593	9.2	69,084	10.0	26,491	62.2
공학(Engineering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26,648	5.8	39,346	5.7	12,698	47.7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services)	25,594	5.5	35,729	5.2	10,135	39.6
심리학(Psychology)	15,740	3.4	23,752	3.4	8,012	50.9
사회과학(Social sciences and history)	14,066	3.0	20,222	2.9	6,156	43.8
컴퓨터공학(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14,990	3.2	17,953	2.6	2,963	19.8
미학(Visual and performing arts)	10,918	2.4	15,552	2.2	4,634	42.4
신학(Theology and religious vocations)	11,663	2.5	12,824	1.9	1,161	10.0
생물학(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6,850	1.5	10,725	1.5	3,875	56.6

영문학(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letters)	7,022	1.5	9,201	1.3	2,179	31.0
신문방송학(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5,525	1.2	8,099	1.2	2,574	46.6
도서관학(Library science)	4,577	1.0	7,448	1.1	2,871	62.7
건축학(Architecture and related services)	4,268	0.9	7,280	1.1	3,012	70.6
법학(Legal professions and studies)	3,750	0.8	5,734	0.8	1,984	52.9

출처: 미 교육부 교육통계센터(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PEDS, Fall 2000 and Fall 2010, Completions component.)

학술학위가 수여되는 일반대학원과 전문학위가 수여되는 전문대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하나의 학과 내에서 전공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학위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컨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육대학원의 경우, 석·박사과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고, Ph.D. 와 Ed.D.로 학위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의 경우에도 60학점에서 90학점에 이르기까지 학과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종합대학인 하버드대의 경우에도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문리과대학원(GSAS)을 제외한 10개의 전문대학원에서 대학원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버드대의 전문대학원으로는 의학대학원(Harvard Medical School), 치의학대학원(School of Dental Medicine),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 디자인대학원(Graduate School of Design), 신학대학원(Harvard Divinity School), 교육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케네디스쿨(JFK School of Government), 법학대학원(Harvard Law School), 보건대학원(School of Public Health), 공과대학원(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등이 있다.

하버드대 내에 존재하는 각 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학위의 종류도 다양하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는 Ed.M.(Master of Education)이며, 박사학위는 Ed.D.(Doctor of Education)와 Ed.L.D.(Doctor of Education Leadership)로 모두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이와 달리 보건대학원의 경우, 전공과 프로그램에 따라 석사학위는 S.M.(Master of Science)과 M.PH.(Master of Public Health)로, 박사학위는 전문학위인 S.D.(Doctor of Science)와 학술학위인 Ph.D.(Doctor of Philosophy)가 수여된다.

미국 전문대학원의 평가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Accreditation)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이들 중에는 대학 전체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지역대학교 연합(Regional Association)과 각 학문분야의 인가를 담당하는 전문과정 인증기관(Professional Association)이 있다. 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고등교육인증기관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에 의하여 감독과 평가를 받게 되고, 이들 인증기관들은 각각의 규정된 기준과 심사 요령에 따라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Shulman, 2003)<sup>5)</sup>.

즉, 미국의 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의 권위는 각 전문직업협회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세워진다는 것이다. 최초의 전문대학원 평가인증은 미국의학협회에 의해 1910년 시작되었고 치의학(1918), 법학(1923), 공학(1936) 약학(1940) 등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전문대학원 평가인증제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전문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의 질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백정하, 2005).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문대학원 과정으로는 법학대학원(Law School), 의학대학원(Medical School),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전문대학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 의해 인증을 받은 법학대학원(Law School) 프로그램은 총 18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의 인증을 받은 의학대학원(Medical School)은 총 125개가 있고, 경영과 회계 관련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증기관인 국제경영대학협회(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International)가 인증한 미국의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은 총 423개가 있다(김형관 외, 2004: 73).

5) 각 학문 분야별 주요 인증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학;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AALS)
- 의학; Liason Committee in Medical Education(LCME)
- 경영학;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AACSB)
- 건축학;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NAAB)
- 공학;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c.(ABET)

## 라. 논의 및 시사점

미국에서 대학원의 기능은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학위 수여 기능에서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인력양성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학자로서의 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박사과정과는 그 성격이 다른, 새롭고 보다 통합적인 학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중시하는 전문대학원 과정이 증가하고 있다(임천순, 1991).

미국 전문대학원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미국은 학과 중심의 하나의 대학원 내에서 학술펙위, 전문학위, 단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으나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학과 중심의 대학원제도는 유럽의 경우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국가박사와 대학박사가 구분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그러한 구분이 없고, 국가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단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약을 받고 있는 미국의 고등교육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즉, 학생이라는 소비자가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각 고등교육기관들은 상호경쟁하고 상호감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대학원이 세계적 수준의 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개방체제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학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미국 전문대학원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역할이 혼용되어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의 자격과 연계되어 있다.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제도와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국가·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과 직업자격과의 연계를 정교화시켜 자격제도를 통해 대학원과 노동시장을 긴밀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는 구별되는 전문대학원의 목표와 기능을 명료화하고, 직업전문성을 보장하는 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명시적 구분 없이 하나의 기관에서 현행 3개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을 대학원의 역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과 수여학위를 통해 차별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학위의 경우 학술학위와 취득요건을 다르게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서정현 외, 2006: 284).

셋째, 대학원 교육은 각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대학자체의 내실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을 질 제고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두고 있다. 앞으로 국가 수준에서 대학원 정책은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특성화’를 고려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비효율적이며 소모적인 백화점식 전공학과 체제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안목에서 대학원의 기능을 분화하고 구조조정하여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신현석 외, 2005).

넷째, 대학원내 학과간, 학문영역간 복합학문체제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학문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학문 영역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학제간에도 새로운 개척 분야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철학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과학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 영역간의 개방을 통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적절한 창의적인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대학원도 평가인증제와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미국처럼 학문영역별 평가인증을 추진하여 협의회 중심의 전문대학원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거나, 해외의 평가인증기구 및 평가기준과 연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현재 학부교육에 대한 정보공시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전문대학원도 교육실태와 평판, 충원률, 졸업률, 취업률,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정보, 최근 학위취득자 현황(발표논문 초록 등 포함)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대학원 교육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다양한 연계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원의 학사구조, 교육과정, 학점운영체제, 졸업, 전공구조 등이 다양

화·연계되도록 하여 교육 운영시스템의 다양화는 물론 기관, 제도,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전문대학원의 학기제를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이 2학기제로 고정되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공이나 학교별 특성에 따라 2학기제 뿐만 아니라 3학기제, 4학기제, 계절제 등 다학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다양한 교과 개설을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이수과목수를 확대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의 필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점은 퇴색되고 오히려 상아탑 성격이 강한 일반대학원의 성격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정체성이 일반대학원이나 직업인 재교육 성격이 강한 특수대학원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최근 들어 미국의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은 오히려 일반대학원과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학과 단위에서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별도의 대학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내에서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대학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문대학원 유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하나의 대학원 틀 속에서 학문적 필요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학술학위와 직업자격과 연계된 전문학위가 보다 유연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 2. 일본

### 가. 전문대학원의 개념 및 목적

일본은 ‘전문대학원’을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존 대학원과 달리,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도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교육 목적이 연구자 양성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목적과 설립취지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전문대학원의 경우 다



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이선복, 2012). ① 전문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가? ② 입시 경쟁력에 필요한 요소(수업료, 교수진, 교육과정, 시설 등)가 충분한가? ③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는 갖추어져 있는가? ④ 대학원 수료 후의 성과(공인회계사 시험합격률, 취업 등)는 충분한가? ⑤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육품질 유지를 위한 평가인증제도가 확보되어 있는가? ⑥ 학부, 일반대학원(연구자·교원양성 등) 및 MBA 과정과의 차별성 확보와 효과적인 조화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문대학원이 설립된 것은 2000년이다. 1999년 9월, 대학심의회의 「21세기 대학상과 향후 개혁 방안」의 제언을 받아들여 대학원설치기준이 개정·제도화되었다. 2002년에 비즈니스와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총 6개 대학원을 출범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3년 과정)의 경우 2004년 설립 이후 수료자에게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74개 대학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합격률은 30~40%로서 당초 기대치인 70~8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회계전문대학원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1년 말 현재 18개 회계전문대학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약 1,6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직업능력과 상관없이 표준수업연한은 2년으로 되어 있다. 둘째, 수료요건은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 심사의 통과이다. 끝으로, 위의 지도를 위하여 상당수의 지도담당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틀이 고도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을 전개함에 있어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기초하여 현행 전문대학원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서 전문직 대학원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직 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문직대학원에도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인 2년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직업과 분야에 따라 필요한 수업연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년, 3년으로 교육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3년 표준형의 법과대학원의 개교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종래의 일반대학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지도”를 필수내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 그 성과로서 논문을 작

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직 대학원이 고도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구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전문직대학원에서는 수업연한과 더불어 수료요건도 각 직업, 분야의 실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료시의 학위에 대해서는 “전문직학위”라고 하여 종래의 일반대학원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와는 차별화된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대학원과 크게 다른 점은 의무적으로 제3자의 평가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설치가 인가되었을 때와 동일한 정도의 교육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대학원의 전공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 ① 국가자격 등의 직업자격과 관련된 분야
- ② 사회적으로 고도의 전문직업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전공분야
- ③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

전문직 대학원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시바우라공업대학(芝浦工業大学)을 제외하면 경영이나 국제, 의료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전문대학원을 제도화할 당시, 「경영관리」 「금융실무」 「국제개발 및 협력」 「공공정책」 「공중위생」의 6개 분야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전공분야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래의 대학원교육과는 차별화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 설치 기준에는 교원수가 종래의 2배에 달하며, 그 중 30% 정도는 실무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 나. 전문대학원의 변천과정

일본의 대학에서 전문대학원이 가장 먼저 개설된 곳은 교토대학(京都大学)과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学)의 두 곳이다(2000년 개교).

〈표 III-2〉 전문대학원 개설 현황

개설연도	대학	연구과(대학원)	전공
2000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국제경영전략	경영·금융
	교토(京都)대학	의학	사회보건의학계
2001	큐슈(九州)대학	의학계 교육부	의료경영·관리학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대학	국제 경영	국제경영
2002	코오베(神戸)대학	경영학	현대경영학
	츠후오(中央)대학	국제회계	국제회계
2003(예정)	시바우라(芝浦工業)대학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
	와세다(早稻田)대학	공공경영	공공경영

일본에서의 전문직대학원의 본격적인 출발은 2002년 11월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고도 전문 직업인 양성을 대학원 목적으로 규정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직 대학원”이 2004년 4월 탄생하게 되었다. 2003년 중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던 법과대학원도 이러한 전문직 대학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법과대학원은 2004년 전국의 66개 대학에서 개교를 하게 되며, 총정원은 5,500명 가량으로 2003년도 신설된 대학원의 총정원이 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이외에도 전문직 대학원은 2004년 13개 대학(총정원 750명)에 개설되었다. 전문직 대학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을 합하면 23개 대학에 달한다. 현대 일본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전문직 대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직대학원은 종래의 전문대학원을 포괄하는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목적도 지금까지의 전문대학원과 커다란 변화는 없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석사과정과는 차별화된 탄력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 다. 전문대학원의 법령 체계

전문직대학원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법령은 전문직대학원 설치 기준이다. 이

기준은 총칙, 교원조직, 교육방법, 과정의 수료요건, 시설 및 설비, 법과대학원, 그리고 잡칙의 총 7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이 법의 취지와 전문직대학원의 학위과정과 표준수업연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전문직대학원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법령에 명시된 것보다 낮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수준향상의 도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직대학원의 질 제고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전문직학위과정의 목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심도있는 학식과 탁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표준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과, 전공 또는 학생의 이수상의 구분에 따라 1년 이상 및 2년 미만과 2년을 초과하는 과정도 둘 수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과정은 주로 실무 경험을 가진 이들을 교육하는 경우와 점심시간 등 특정한 시간 또는 시기에 수업이 가능하여 교육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직대학원은 연구과 및 전공의 종류, 규모에 따라 탁월한 지도능력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분야에 관하여 교육상 또는 연구상 업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전공분야에 관하여 고도의 기술,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셋째, 전공분야에 관하여 특별하게 뛰어난 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직대학원 설치 기준은 교육의 핵심 영역인 교육과정, 수업방법, 학생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전문직대학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분야에 따라 필요한 수업과목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방법 및 시설, 설비 그 밖의 교육상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수강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수업방법도 사례연구, 현지조사, 쌍방향 및 다방향 토론, 질의응답 등 실천적인 교육에 적절한 방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교실외 수업은 교육효과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교육효과가 있을 경우 통신교육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수업방법, 내용, 1년간의 수업계획, 학업평가기준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고 수업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적 연구 및 연수의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수과목의 등록 상

한선, 타 대학원에서의 수업과목의 이수 인정, 입학 전의 기 이수단위의 인정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전문직대학원의 과정 수료요건은 표준수업연한 이상의 재학기간, 30단위 이상 취득, 교육과정의 이수 등이다. 이 중 재학기간은 전문직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이수한 단위를 감안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전문직대학원은 그 목적에 비추어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 1) 법과대학원(law school)

지금까지 재판관,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일한 통로였다. 수험자격에 제한이 없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등의 문호가 열려있는 반면, 합격률은 3% 정도였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서적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식에 편중한 선발방식으로 인해 매뉴얼에만 충실한 법률전문가만 배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사법시험이 실시되게 되었다.

새로운 사법시험으로의 이행과 아울러 탄생한 것이 법과대학원 제도이다. 새로운 사법시험에서는 법과대학원에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수험 자격을 부여하여 합격률을 50-70%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현행 사법고시도 2010년까지는 존속시키며, 2011년 이후에는 법과대학원 졸업생 뿐만 아니라 「예비시험」의 합격자에게도 새로운 사법시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법과대학원의 특징으로는, 첫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학부를 졸업한 이들이나 사회인도 입학이 가능하다. 둘째, 수업연한은 2-3년(법학부 졸업생은 2년, 타학부졸업생은 3년)이다. 셋째, 졸업시에는 ‘법학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되며, 새로운 사법시험에 대한 수험자격이 부여된다. 넷째, 학생 15명당 1명의 전임교원이 있다(1개교에 적어도 12명의 교원 배치). 넷째, 변호사, 재판관, 검찰관 등을 교수로 초빙하여 실무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3자 평가기관의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다(만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대학원 인가가 취소되

며, 졸업생도 새로운 사법시험에 대한 수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법과대학원은 2003년 12월 국립대학 20개교, 공립 2개교, 사립 50개교 총 72개교가 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중 사립대학 4개교가 2003년 12월 21일 문부과학성의 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에서 인가 불허 판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2004년 봄에 법과대학원을 개설하는 대학은 총 68개교이다.

## 2) 회계전문대학원

회계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우선 교육이념과 목적, 그에 따른 교육과정과 과목 간의 관련성, 평가인증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와세다대 회계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결한 윤리관을 겸비한 회계전문가로서의 어카운팅 마인드를 가진 인재 육성’으로 4가지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식의 습득은 물론 직업윤리에 기초한 실천적인 사고력, 판단력 등 실무전문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사회에 대한 균형과 통찰력, 선견성을 갖추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할 자질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고 실무에 대처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를 육성한다. 셋째, 윤리규칙은 물론 고결한 윤리관을 뒷받침할 ‘어카운팅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넷째,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지속적인 지식의 습득이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 폭넓은 리카렌트 교육을 통한 최첨단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즉 고도의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윤리교육,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타 대학원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 마. 전문대학원의 향후 전망

일본의 전문대학원은 교육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대학원협회 안에 인증평가기구를 설립하여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학교육법」 제109조에 따라 교육연구의 상황에 대한 자기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인증평가기관(회계대학원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평가는 5년 주기(일반대학원 7년)로 하되, 자기점검 규정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제3자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평

가요소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교원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① 교육능력, ② 연구능력, ③ 교육과 연구를 통한 자기개발과 사회공헌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원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됨은 물론 대학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sup>6)</sup> 전문대학원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지만 이슈가 될 만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문대학원의 입시 경쟁률, 충원율, 교육과정, 재정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분야의 합격자 수의 비율이 일정부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합격률이 일반대학원이나 학부과정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리카렌토 교육이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향후 전망은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충분한 대학의 확보가 필요하다. 국공립대는 물론 충분한 교수진과 시설, 교육경력을 갖춘 대학이 지역별로 널리 분포하여 국가 전체적인 수준의 사회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할 교육목적과 이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초·발전·응용실천과목을 구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고도의 실무능력과 윤리관, 국제능력을 지닌 전문직 양성을 목표로 하되, 연구자 양성을 지향하는 일반대학원 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증 시험제도와 맞추어 수험자격 부여 및 과목면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원 스스로가 자격 시험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반사설학원과는 차별성을 두어 수업대비용 암기식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회계’를 창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대학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는 물론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

6) 회계전문대학원은 2008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 3. 영국

#### 가. 제도의 배경

영국의 대학원과정은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는 2년제 석사과정인 반면 1년 3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British Council, 2005).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은 ‘석사예비과정(Pre-master's courses)’, ‘준석사(PG Cert/Dip)’, ‘수업석사(MA, MSc, LLM, Med, etc)’, ‘연구석사(MRes, MPhil)’, ‘MBA과정 및 박사과정(Ph.D.)’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준석사과정, 수업석사, MBA경영학 석사과정은 약 1년의 학위과정으로 구성되고, 연구석사는 2년 과정, 박사과정은 3~4년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각각의 대학원 학위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의 특성을 갖는다. 석사예비과정은 전공지식이나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3개월에서 1년 동안의 석사과정 준비 과정이며, 준석사과정은 연구논문을 포함하지 않은 9개월 과정의 수업중심의 대학원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업석사과정은 강의와 세미나 참석, 에세이 작성 또는 필기시험 그리고 10,000~20,000 단어의 논문작성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다. 위의 석사 및 준석사과정은 학부전공지식의 심화과정 또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새롭게 학습·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British Council, 2005). 반면에 연구석사과정은 일반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지 않고 2~3년의 연구 및 논문작성에 따른 평가를 받고 3~4년의 박사(Ph.D.)과정과 연계되는 과정이다. MBA 과정은 강의와 세미나 참석 등의 수업석사과정의 성격을 띠며, 1년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학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British Council, 2012).

사실, 영국에서는 전문대학원(Professional Graduate School)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전문대학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의 성격을 갖는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의학과 경영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조건으로서 지원자를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과정과 직접관련 있는 분야만을 전공한 자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강의와 세미나 참석 및 논문작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직업 분야의 인력양성과 그에 따른 실천이론과 적용 및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수업석사(MA, MSc, LLM, Med, etc)’나 ‘MBA의 대



학원 학위과정'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이 4년의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은 영국의 '수업석사' 1년의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한국의 전문대학원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석사 이후 자격시험을 포함하여 실무교육과정 및 임상실험 참여 등의 과정을 대학원과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학전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영국의 대학학위과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나. 전문대학원의 구조

### 1) 법학전문대학원

영국은 전통적으로 상급법원의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s)와 일선에서 고객을 만나서 사건을 수임하지만 법정변론권이 없는 사무변호사(solicitors)가 존재한다.(김성배 2011:65). 영국에서는 법률전문가가 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사무변호사는 3년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의 법무실무교육과정(Legal Practice Course: LPC)을 이수한 후, 로펌 등에서 2년의 수습계약(Training contact) 실습을 통해 그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법정변호사는 3년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의 직무교육과 함께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1년의 실무교육(Bar Vocational course: BVC)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 후 1년의 견습기간(Pupillage)을 거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통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법과 대학 출신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대학원에서 1년의 전공전환과정(Conversion Course)을 이수하고 일반직업자격시험(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CPE)을 통과하면 Graduate Diploma in Law 또는 Postgraduate Diploma in Law를 수여받고 법학사와 동일하게 실무교육단계와 그 이후의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이 법학사 학위를 갖지 않은 자가 전문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비교될 수 있다.

## 2)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1990년대 초 이후로 영국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외국인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자를 위해 의학교육의 문호를 개방하여 의과대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이끌고 계층간 인구학적 분포의 불균형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학사학위자 입학과정(Graduate Entry Programme, GEP)’이 1990년대 후반에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리고 GEP는 의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빠르고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과대학 측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참여확대’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배경으로 한다.

영국은 2000년에 처음으로 2개 의과대학에서 ‘학사학위자 입학과정(Graduate Entry Programme, GEP)’을 도입하여 의과대학 학부(Medical Science)를 졸업하지 않은 자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김지영 & Rees, 2010:2). GEP 과정은 보편적인 5-6년의 고교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Standard Entry Programme, SEP)보다 최소 1년에서 2년이 짧으며, 2010년 기준으로 영국 내 31개 의과대학 중 16개 의과대학에 GEP가 개설되어, 매년 800명 이상의 학사학위자가 이를 통해 입학하고 있다. 이상의 영국의 GEP 과정은 한국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4년의 대학원과정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 3) 경영전문대학원 제도

미국과 함께 세계금융의 중심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은 경영학 석사학위과정(MBA)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인기와 명성이 있다. 영국의 경영학 석사과정에는 금융학,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경제학, 회계학, 관리정보시스템, 영업, 양적연구분야 등이 있다(British Council, 2012). 영국의 경영학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갖고 경영관련 실무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경영대학원 입학시험(GMAT,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성적을 요구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영국에서 법률, 의료, 경영 분야의 전문대학원 성격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유사한 학위과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교마다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도 다양하여 전문대학원 구조와 운영에 관한 일반화를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전문대학원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원의 경영, 의학, 법학 분야의 교육과정의 구조나 운영에 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 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여기서는 영국의 양대 명문 사립대학인 Oxford대학교 법과대학원과 Cambridge 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수업 학위를 소개하려고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아니라 각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례가 영국의 전문대학원은 물론 법과대학원을 대표한다거나 전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 1) Oxford대학교 법과대학원

Oxford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수업 학위는 전공 분야에 따라 BCL(민법), MJur, 그리고 MSC(형법)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자는 영어로 된 성적표, 지원동기서, 추천서, 그리고 과정에 따라서는 문서화된 성과물(written work) 2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에게만 허용되며 질적 사정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이 학위 과정은 9월말에 시작해서 1월말까지 1년간 운영된다. 이 학위 과정의 수강생들은 총 12-14 학점(credit)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강생들에게 약간의 지도(guide)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수강생들은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반추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은 강의, 세미나, 그리고 개인 교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는 교수가 주제의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고 세미나는 특정 과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며 개인 교습은 보다 개인적인 논의 및 개인적인 성과물 평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이 소집단 형식으로 만나는 것이다.

학위논문은 선택이며 분량은 12,500자이고 3학점짜리 과목으로 인정된다.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하게 되며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학위논문을 제출

하려는 학생은 Oxford에 도착하자마자 잠정적인 제목 및 500자짜리 프로젝트 기술서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학위 과정에서의 성과는 여름에 실시하는 3시간에 걸친 문서화된 시험으로 평가한다.

## 2) Cambridge대학교 법과대학원

Cambridge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수업 학위는 LL.M이라고 부른다. 이 학위는 1981년에 대학원 졸업 후 학위(postgraduate degree)인 LL.B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학위는 1년간의 수업과정 후에 LL.M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보자에게 수여된다. 이 시험은 보통 문서화된 시험 또는 문서화된 시험과 에세이 형식을 통해 평가하며 4개의 보고서(paper)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는 주석, 참고문헌, 그리고 부록을 포함하여 18,000자를 초과하지 않는 논문(thesis)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은 교수의 지도(supervision)를 받지 아니하지만 논문을 쓰는 후보자는 교수로부터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다.

LL.M과정은 매년 10월에 시작하여 6월초에 끝마치는 1년간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LL.M과정 이수자는 학기 도중에 수강할 수 없고 반일제나 통신에 의해 수강할 수 없다. LL.M과정은 강의 또는 세미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보통법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법과대학원생을 위한 고급 과정이므로 판례 및 영국법의 기초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LL.M과정 수강생에게는 학부생에게 제공되는 그런 종류의 지도 또는 개인 교습(tutorial)은 제공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소집단 수업(small group teaching)이 제공될 수 있지만 수강생들은 강의시간에 배포되는 독서 목록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그들 스스로 상당량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집중 과정(intensive course)이기 때문에 University of Cambridge Graduate Studies Prospectus라는 영어 시험에 의하여 입증된 상당히 뛰어난 영어실력이 요구된다.

LL.M과정을 취득하는데 소비된 시간은 Cambridge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연구학위를 취득하는데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별도로 지원해야만 한다. LL.M시험에서 특정 표준을 성취한 것이 연구 학위 입학의 조건이 될 수 있다.

## 4. 프랑스

### 가. 제도의 배경: 프랑스의 고등교육시스템과 전문대학원의 위상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프랑스의 대학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만의 고유한 고등교육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매우 독특한 제도를 지니고 있는데 고등 전문 기술인력과 정치, 행정가 등 전문 영역의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랑제꼴(Grands Ecoles), 대중교육과 연구중심으로 구성된 대학(Université), 그 밖의 건축, 디자인, 예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위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학교(Ecole professionnelle)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과 전문대학원 과정은 대학(Université) 시스템 안에서 거의 커버되며, 소수의 그랑제꼴에서 협의체로 운영되거나 교사전문대학원(IUFM)처럼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68혁명은 사회제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왔는데 특히 고등 교육기회의 대중적인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실시되면서 현재의 대학 시스템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프랑스 대학제도는 유럽에서도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기 과정은 학부 1,2학년에 해당되는데, 소위 말하는 대학 교양과정으로서 모든 학부와 학과를 8개의 주요 전공영역으로 나누어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일반과정수료증 (DEUG : 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을 수여했다.

다음으로, 제2기 과정은 1년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시 1년의 석사 학위과정으로 구성된다. 1년을 수료하면 학사학위(Licence)가 수여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증과 동등한 학사자격증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학사과정을 마치면 대졸자로서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후 공부를 지속하기를 원할 경우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는데, 석사학위(Maîtrise)과정은 1년이다. 이 과정을 마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제출은 석사 수료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기과정은 우리나라의 박사학위과정에 해당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과정은 두 개의 트랙, 즉 박사논문준비과정(DEA)과 고등 직업전문직 과정(DESS)으로 구분된다. 연구를 계속하여 학문의 길을 걸으려면 DEA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해당 전공의 전문직으로의 직업을 원하면 DESS 과정을 이수하

게 된다. 이 DESS 과정이 개편후에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 체제에 해당하는 전문직  
업석사제도의 원형이 된다.

이 시스템이 40 여년간 유지되다가 유럽통합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고등교육도 사  
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시스템의 변화이다. 유럽 통합이후 2005년부터 대학별로 추진되기 시작한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은 2012년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개  
정된 대학제도는 기존의 3기 과정을 3년 과정의 학사과정(Licence)과 2년의 석사과정  
(Master) 그리고 박사과정(Doctorat)으로 개편한 것으로 LMD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년 과정의 대학교양과정(DEUG)이 폐지되었고, 3년의 학부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만 수여 된다. 한편 기존의 학사학위에 직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직업학사 학위제도(Licence Pro)가 신설 된다. 이 학위는 유럽 국가들이  
공통으로 신설하는 학위 제도로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라는 청년 고실업시  
대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서 신설된 제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음은 제2, 3기 과정에 대한 개편이다. 먼저 2기에 포함되었던 1년 단위의 석사  
과정과 3기의 1년 과정인 DEA와 DESS 과정이 Master라는 하나의 석사과정으로 통  
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2년의 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석사 1년차 입학시 시험 등의 선발과정을 거치지만  
프랑스는 2년차에 오를 때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년이 석사 기초 공  
통과정이라면 2년차부터 자신의 진로를 연구와 전문적 직업준비중 선택하여 연구와  
현장 업무능력 함양 등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대학교  
육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단계로 이루어지는 학위(diplome) 구조: LMD(Licence, Master, Doctorat)

- Licence (bac(바칼로레아: 대학입학자격증)+3) : 이 학위는 6학기, 즉 3년에 거쳐  
180 크레디(credits)를 획득하여 수여 받을 수 있다.
- Master (bac+5) : 이 학위는 4학기(Licence를 포함하여 총 10학기)에 거쳐 120 크  
레디(Licene를 포함하여 300크레디)를 획득할 때 수여된다.
- Doctorat (bac+8) : LMD 의 가장 높은 학위인 doctorat 는 master recherche(연구  
마스터) 이후의 과정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발표를 거쳐 수여된다.

둘째, 유연한 학기 교육 시스템

이 새로운 LMD 시스템은 점수가 아닌 교육 유니떼(unite), 즉 크레디(credit)로 학위(diplome)를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학위를 딸 수 있는 교육 기간 산정은 1년, 2년 과정이 아닌 학기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학기당 30 크레디를 획득하면 1학기를 수료했다는 증명서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이 원할 경우 매 학기말 자신의 과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매우 유연한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중심의 유럽통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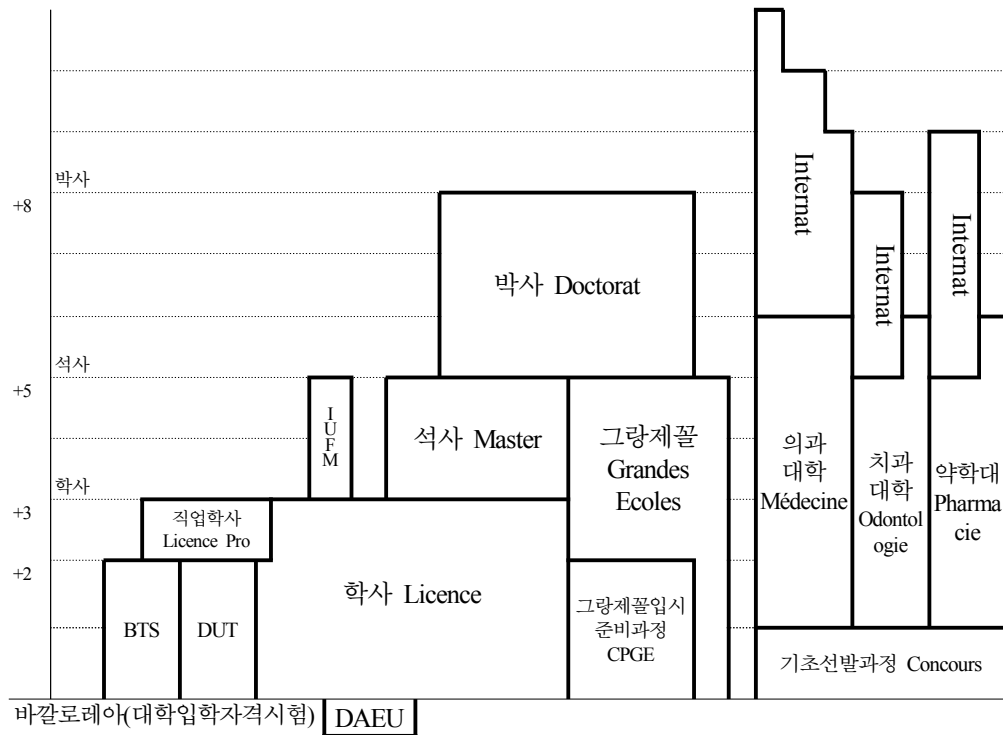
학위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니떼(unites)는 전공별로 필수과목(obligatoire)과 선택 과목(optionnelle)으로 나뉜다. 특이한 점은 각 유니떼는 유럽전역에서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필수와 선택 유니떼(unite)는 전공별로 이수해야 하는 이론 과목, 실습수업, 현장연수, 프로젝트, 개인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유럽 통합 유니떼(unite) 시스템은 유럽 모든 국가의 학위과정(diplome)에 공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 전역 어디에서건 원하는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해외에서 이수한 학기를 프랑스에서 유효로 인정해 주며, 5년간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연속적으로 자신의 학업을 지속하지 않더라도, 몇 년간의 직장생활이나 다른 활동을 한 후에도 기존에 이수한 과목과 학기를 그대로 인정해주어 학생중심의 학업 연계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처럼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지 않고 특화된 전공 중심으로 대학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언론학 전문대학은 파리 3대학, 법학은 파리 1대학, 어학과정은 파리 2,4 대학 등등으로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어 각 대학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원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III-1]은 최근 과도기를 거쳐 변화, 정비된 프랑스 고등교육제도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 고등학교 졸업 후의 학년 수



[그림 III-1] 개편된 프랑스 고등 교육제도

출처: 프랑스 고등교육 및 연구부

## 나. 전문대학원의 구조

한국의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고등교육시스템은 대학 개혁후의 전문 직업 석사라고 할 수 있는 'Master Professionnel(이하 MP)'으로 대학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체제와 그랑제콜(Grand Ecoles)에서 특별과정, 교사양성 전문대학원(IUFM)처럼 독립된 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원체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고등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내의 전문가 양성 학위과정은 기존의 2기에 해당하는 Maitrise(석사과정)와 3기의 DESS(전문직업인 과정)이 통합된 Master(Master 2 Professionnel: MP) 과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독립된 경우가 아니라 Master 과정의 하나로 대학별로 다양한 전공의 전문대학원 체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대학체제가 아닌 전문대학



체제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전문성을 특화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대학원체제가 존재한다. 대학의 석사과정에 연구자를 길러내는 학위와 전문고등직업인을 길러내는 학위를 따로 구별하여 개개인의 진로계획에 맞추어 학업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랑제콜에서 운영하는 특별 전문 석사과정인 ‘Mastère spécialisé’은 MP와 비슷한 체제이나 입학자격과 교과과정은 학교에 따라 약간씩 차별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문대학원체제와 가까운 독립된 전문대학원체제로 MBA와 전문적인 교사역할의 메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UFM을 들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인 MBA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MBA는 미국 MBA를 기본 모델로 하여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비즈니스 스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경영자 대상, 야간, 글로벌 MBA 등으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시스템은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독특한 전문석사양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전문 직업 석사제도 (MP)

대부분 2년 과정을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Master Professionnel(MP)과정은 프랑스의 매우 독특한 석사학위의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체제이다. 과정을 마친 후 직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예전에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단계를 개편한 체제이기 때문에 전공을 불문하고 현장적용 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적인 직업인 양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특별 전문 석사 (Mastère spécialisé)<sup>7)</sup>

MP처럼 운영되는 전문 직업 석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랑제콜 협의회에서 주관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전문 석사학위인 MP와 구별된다. 이 과정은 주로 상대,

---

7) 그랑제콜 콩페랑스: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www.cge.asso.fr](http://www.cge.asso.fr)

공대에서 5년을 이미 마친(bac+5) 석사학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석사제도 보다 그 기준이 한 단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3) 교사교육전문대학원: IUFM(Institut Universitaire de la Formation des Maîtres)

프랑스 교사교육대학원(Instituts Universitaires de Formation des Maîtres)은 미래인재를 교육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이론과 실질적 역량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989년 교육법(La Loi d'Orientation sur l'Education)에 의해 1990년에 설립되어 프랑스 전역에 각 학구별로 설치되어 현재 31개의 IUFM이 운영되고 있다. 설립 이전 초·중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은 매우 다양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은 사범학교(Ecole Normale d'Instituteurs), 중등교육기관은 일반 중·고등학교 교원양성소는 CPR(Centre Pédagogique Régional), 기술고등학교 교원양성소는 CFPET(Centre de Formation des Professeurs de l'Enseignement Technique), 직업고등학교 교원양성소는 ENNA (Ecole Normale Nationale d'Apprentissage)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사양성시스템은 교사교육과정 개혁과 함께, 기존의 교육기관을 모두 폐지되었고, IUFM으로 대체하여 대학원 수준의 통합형 교사교육 전문대학원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 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 1) 전문석사과정 : MP<sup>8)</sup>

#### 가) 특징

대학(Université)에서 석사과정의 하나로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MP(Master professionnel)은 프랑스만이 가지는 독특한 학위제도로 각 학교의 전문영역에 맞는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파리 3대학의 통번역 전문대학원(ESIT : ECOLE SUPERIEURE D'INTERPRETATION ET DE TRADUCTION), 4대학의 언론대학원(CELSA), 파리 1대학의 문화복원 대학원(ECOLE DU PATRIMOINE), 파리 10대학의 도시계획학과(Aménagement, urbanisme et durabilité des territoires) MP 과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8) 파리 10대학 관련 과정 홈페이지 [http://www.u-paris10.fr/MP09019/0/fiche\\_formation/&RH=for\\_dipg%E9n](http://www.u-paris10.fr/MP09019/0/fiche_formation/&RH=for_dipg%E9n)

프랑스 전체 대학에 약 2500개의 MP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두 가지 분야의 학업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융합석사 전문가 과정도 있다. 예를 들어 IAE(les instituts d'administration des entreprises)에서는 공학 분야와 경영을 결합한 MP 과정을 개설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통섭을 실천하고 있다.

## 나) 입학조건

MP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Licence: BAC+ 3)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고등교육이수 단위를 바칼로레아 이후라는 의미에서 Bac + 학업이수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학사학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학업이수기간이 있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랑제꼴을 다니다가 이 과정에 등록할 수 있고, 전문학교를 이수하고 직업적인 경험을 인정받으면 등록할 수 길도 열어 놓고 있다.

## 다) 교육과정

대학내의 MP 과정은 최소한 300 시간이라는 수업단위를 이수하며, 적어도 3개월 간 관련 업계에서 인턴(스타쥬: Stage)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과정은 전공과 학교 별로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기제로 운영된다. 파리 10대학의 도시개발 학 MP 과정의 교육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도시계획(Aménagement, urbanisme et durabilité des territoires) MP 교육과정

1학년과정 (M1)	2학년 과정( M2)
기초 전공 과정 (Bac+ 4)	· 전문 직업교육과정 ( Bac +5)
1. 기초 심화 이론과정 1학기: 도시 정치학, 도시개발계획법, 도시 기획, 도시 분할과 공용 공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도시 경제학 등 관련 전공에 대한 이론 과목 2학기: 통계와 정보, 지리, 도시계획 측정 등 실무 과목 - 3개월의 현장 연수( Stage)	2. 전공 이론과 실무 심화과정 3학기: 도시계획 프로젝트 , 도시개발의 실제, 건축과 경관, 환경권 4학기: 전공 실무 세미나 , 현장연수 보고서 작성, 3개월의 현장 연수(Stage)
M1 학업이수결과와 선발 과정을 거쳐 M2로 진학	논문 작성 및 발표

## 2) 특별 석사 과정(Mastère Spécialisé, accrédité par la Conférence des Grandes Ecoles)

### 가) 특징

그랑제꼴 협의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석사과정(Le Mastère Spécialisé) 은 보다 높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포스트 석사학위제도(post-Master à orientation professionnelle)이다. 이 역시 국가가 관리하는 석사 학위제도이지만 그랑제꼴 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MP와 구별된다. 매우 엄격한 선발제도와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 학위를 받은 사람은 최고 전문직업인으로 평가받는다. 주로 엔지니어, 경제와 경영, 의학, 약학, 법학 전공자들을 위한 최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전공 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한 회사와 학교 측이 함께 진행하여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고등 직업인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대우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 인정도 매우 높다.

### 나) 입학조건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인 만큼 입학자격기준도 대학의 MP보다 한 단계 높다. 다시 말하면, 이미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지거나 의학이나 약학분야의 경우 전문분야에서 Bac+5 이상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Bac+4에 실무 경험이 3년 정도 있으면 이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직업인들에게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평가기준은 학업능력과 실무경력, 잠재력, 학업동기, 현장 경력과 연계된 직업적 비전과 기획 등을 평가해서 매우 엄격하게 선발된다.

### 다) 교육과정

이 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 고등 숙련 엔지니어 학위(Diplôme d'Ingénieur habilité par la Commission des Titres d'Ingénieurs).

- 경영대 석사 학위(Diplôme d'une Ecole de Commerce (Grade Master) membre de la Conférence des Grandes Ecoles).
- 의학/ 약학/ 수의학/ 변호사/ 건축가 Diplôme de Médecine (6ème année), de Pharmacie (5ème année), Vétérinaire, Avocat, Architecture...

교육과정은 연수가 아니라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학위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한편, 2개의 전공분야를 융합한 과정도 개설하여 최근의 트렌드인 통섭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학과 경영을 결합한 전공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9)</sup> Ecole central de Paris의 공학& 경영 특별석사학위 과정(Mastère Spécialisé Technologie & Management)은 12개월 동안 750시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4〉 Mastère Spécialisé( MS )교육과정

단일 전공과정	복합전공과정
의학/ 약학/ 법학/건축학/ 경영 등 단일 전공과정	공학과 경영 등 2개 이상의 복합 전공 과정( Ecole central de Paris)
550 시간 1. 해당 전공의 다양한 이론과목 2. 현장(기업) 과의 연계를 통한 세미나 /팀프로젝트 3. 5-10 일간의 외국 연수 - 실무 시뮬레이션 - 외국 연수 Voyage d'étude à l'étranger. - R&D 센터와 기업 방문 4. 현장 연수(Mission professionnelle: 6개월( 최소 4개월) de 6 mois	750시간 1. 과학과 공학 개념과 이론 강의(Comprendre les concepts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250 시간 - 다양한 고등 테크놀로지와 기초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 2. 공학과 시장경제 체제의 혁신 교육 (Maîtriser l'innovation de la technologie aux marchés): 150 시간 - 경영 프로젝트 세미나,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공학경영, 현장 경영세미나 3. 공학-경제 경영과 기획(Manager un projet technico-économique, anticiper et entreprendre) : 250 heures 시간 - 현장 경험과 리더십, 전문지식의 공유와 확장을위한 학생들과 공학자들의 공동 작업 - 외국 연수 Voyage d'étude à l'étranger. - R&D 센터와 기업 방문 4. 현장 연수(Mission professionnelle: 6개월( 최소 4개월)

9) [http://www.ecp.fr/cms/lang/fr/home/Formations/Masteres\\_Specialises/technologie\\_et\\_management](http://www.ecp.fr/cms/lang/fr/home/Formations/Masteres_Specialises/technologie_et_management)

### 3) 교원양성 전문대학원(IUFM)

#### 가) 특징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교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1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후 임용고사에 응할 수 있다. 둘째, 국립원격교육원(CNED)에 등록하여 개인적으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전문대학원인 IUFM을 졸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고사에 응할 수 있는 가능한 자격요건은 IUFM 1년 수료생, 국립원격 교육원 등록생, 관련 전공 석사학위 수여자로 정리된다.

그러나, 임용고사 합격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모든 교원임용고사 합격자는 의무적으로 IUFM 2년차에 등록하여 교사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IUFM은 단순히 임용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현장으로 교사를 투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수습교사기간과 교사전문교육을 IUFM에서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단계외에 그랑제꼴 중 교육분야의 그랑제꼴인 예꼴 노르말 슈페리에르(ENS) 출신자들은 그랑제꼴 준비반인 CPGE<sup>10)</sup> 2년의 교육을 거쳐 입학이 가능한데, 고등사범 1년차가 학사, 2년차가 석사로 인정되어 고등사범 2학년을 마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콜레쥬와 리세의 일반 중등교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 사람들 역시 임용고사 합격 후에는 반드시 IUFM에 와서 일반 임용고사 합격자들과 마찬가지로 IUFM 2년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수자격시험인 아그레가시옹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장 연수와 교직 훈련 중심의 IUFM 2년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 프랑스의 모든 교사들은 임용고사 합격 후에는 반드시 IUFM을 거쳐 가게 되어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교사교육 전문대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 나) 입학조건 및 전형방법<sup>11)</sup>

먼저, IUFM에 1년차 등록은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서류심사로 입학여부를 결정하

---

10) CPGE(Classés Préparatoires aux Grandes Ecoles)은 그랑제꼴 준비반으로 약 2-3년의 기간을 이수한다. 보통 유명 고등학교 내에 준비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랑제꼴에 입학하지 않고 대학에 편입할 경우 CPGE의 학업연수를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11) 프랑스 교사전문대학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iufm.fr>

지만 일부 학과목 지원자는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심사에 응해야 한다. 초등이나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 IUFM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학사학위(Licence)가 있어야 한다. 특히, 초등교사는 학사학위가 아닌 학부 교양과정(DEUG)나 바칼로레아 취득후 대학에서 2년간 받게 되는 기초 교양과정 이수증서로 입학이 가능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학사학위는 바칼로레아 중등교육수료증 즉, 대학입학자격시험 취득후 적어도 3년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했다는 인정서이므로 지원자격이 매우 강화된 것이다. 교사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IUFM 입학시험(Concours)은 각 지역 IUFM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서류전형이나 간단한 국어 및 수학 시험과 면접 등이 실시된다. IUFM의 교수진은 단순한 박사 학위 소지자의 대학교수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초중등 교사, 장학사, 박사학위를 가진 IUFM 또는 대학 소속 교수들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한편, 기술계나 단순직업계 지원자의 경우는 현장경험이 5년 이상이면 기술교사(CAPET), 직업교육교사(CAPLP2)과정에 응시가능하고 단순직업계고교의 한 분야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5년 이상 경력에 BAC + 2년 학력이면 CAPLP2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가진 이들을 교육현장으로 흡수시켜 현장성을 갖춘 동시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교사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다) IUFM의 교육과정

교사교육대학원(IUFM)에 입학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아래의 5가지이다. 초등교사(CRPE), 중등일반교사(CAPES), 중등체육교사(CAPEPS), 중등기술교사(CAPET), 직업고교교사(CAPLP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현장 실습 시수는 모두 다르다.

또한, IUFM은 학년에 따라 교육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른데 1학년 과정은 교사자격 및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과목이 구성되어 있어 교원임용고사를 학교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학년 과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IUFM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 또는 원격교육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임용고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기만 하

면 시험에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학년과정은 1학년 과정과는 달리 의무과정이다. 임용고사에 합격한 모든 초·중등 교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IUFM의 2학년에 등록하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합격자들은 실습교사라는 이름하에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게 된다. 일종의 인턴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평가하고 교육실무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학년과정동안 실습교사들은 학과지식교육, 일반교육, 실습 그리고 논문작성준비를 하게 된다. 2학년 때는 실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1학년에 비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IUFM의 교육과정은 1차 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학교에서 관찰연수, 평가와 교육상황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동반연수, 수업을 시행하는 책임연수 등 다양한 연수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임용고사 이전 IUFM 1년차 교육과정은 해당 교과별 교과교육과 학교에서 150시간의 관찰연수, 동반교육연수, 일반 교양교육으로 구성되고, IUFM 2년차는 소그룹 교육, 기업체 연수, 책임연수, 논문작성과 공개 구두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5〉 교사교육대학원(IUFM) 교육과정

1학년과정 (선택)	2학년 과정( 의무)
임용고사 준비과정	· 전문 직업교육과정
1. 학과목 교육 : 200-500 시간 해당교과목 교육 인문사회 일반교육 :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등 2. 임용고사 과제시험 준비: 50시간 3. 실습: 20 시간 4. 그 외 학생별로 조직되는 교육활동에 참가	1. 전공학과목 직업교육 -전공교과교육 72 -전공지식교육 24 -전공기초교육 24 2. 전공과목외 교육 : 66-78 -일반이론교육 24-30 -대상집단 실제 일반교육 24-30 -대상집단 이해 18 3. 공통교육 : 42-54 4. 논문작성 : 27 5. 실습 : 책임실습 216, 참관실습 50
중등교사 자격 임용고사중 아래의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함 (CAPEPS, CAPLP2, CPE)	양성교육 졸업 및 임용



IUFM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2년차의 경우 임용고사 합격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신분이 학생에서 수습교사(professeur stagiaire)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 이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는다. 따라서 2년차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실습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초등 수습교사는 2차의 책임실습수업과 1차의 동반실습수업을 해야 한다. 2차례에 걸쳐 4주간에 이루어지는 책임 실습수업은 1명의 지도교사를 규칙적으로 만나서 수습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실습은 동반 실습수업으로 보통 지도교사의 교실에서 최소한 3주간 실습한다. 그리고 실습후에는 교사 실습 과정에 토대를 둔 논문을 작성한다.

중등 수습교사 역시 두 종류의 실습수업을 실행한다. 1차의 책임실습수업과 1차의 동반실습수업을 해야 한다. 책임실습수업은 제2학년 내내 주당 도합 4-6시간씩 한 교실이나 여러 개의 교실에서 자기 과목의 책임수업을 실시한다. 이 수업을 위해 수습교사는 수업고문의 도움을 받는데, 이 수업고문은 대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해당 과목의 장학감들에 의해 선정된다. 동반실습수업은 교실에서 40시간 정도 실시된다. 실습 기간 중 수습교사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교육자문교사(conseiller pedagogique)의 지도를 받으며, IUFM의 세미나에도 참여한다. 기술고교 및 직업고교 교사 임용대기자들은 6~12주간의 기업체 연수를 이수하고 현장 책임연수 평가 결과에 의해 교사 자격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IUFM 2년차 말에는 30페이지 가량의 연수논문을 작성해야 하고 공개 구두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이처럼 IUFM의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의 대학입학교사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합격 후 3년간의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학사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교사가 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기존 대학에서 전공을 통해 세부교과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칠 교과와 교육학 이론 및 기술 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론과 실습의 조화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라. 논의 및 시사점

프랑스 전문대학원 시스템과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전문성을 지닌

체계화된 이론수업과 현장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을 길러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전문대학원체제의 특징과 한국교육체제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전공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게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전문석사학위의 경우 대학과 그랑제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각각 개설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전문영역에 맞는 과정을 특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원이라는 독립체제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대학과 그랑제꼴은 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투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전문대학원체제도 대부분 국가의 지원아래 운영되는 대학시스템안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역량있는 인재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적인 지원시스템으로 마련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공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은 질적인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수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들이 경제적인 배경없이 입학과 학업이 어려운 경우와 비교하면 프랑스 전문인력양성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전문대학원은 현장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학습과정외의 현장 실무를 익히는 인턴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대학과 그랑제꼴에서 제공하는 전문석사과정은 3개월에서 6개월, 독립체제로 운영되는 교사전문대학원인 IUFM은 1년의 교사인턴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IUFM 교육과정의 1/3이상이 현장 연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실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전문대학원이 교육과정 기획과 교과운영체제, 교수진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게 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그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교수진 역시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단순히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넘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전의 조

화를 그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과 입학생의 선발, 그리고 지식기반시대를 살아가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현장적용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그 교육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당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문화 교과목, 체험활동교육을 할애하여 통섭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좁은 식견과 한정된 경험을 지닌 전문인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역량있는 전문인 양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공 신설도 이러한 프랑스 교육체제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종합 논의 및 시사점

전문대학원 체제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많은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전문대학원을 일반대학원과 분리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일반대학원 내에서 학위 과정만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학과 그 랑제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각각 개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 미국에서는 professional school, 그리고 영국에서는 수업 학위(taught course)로 불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은 일본 및 미국과 유사하게 일반대학원과 분리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에 대한 규제 정도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 설치 기준에서 교원조직, 교육방법, 과정의 수료요건,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문대학원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는데,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 관련 법률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원의 공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은 질적인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수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대학원과 함께 규정하면서 목적, 학위과정, 학위종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생 정원, 졸업요건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이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라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비하여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국가 규제에 익숙한 탓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대학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처럼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규제의 범위 및 정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전문대학원의 전공분야도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이 서로 다르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에 적합한 전공으로 경영, 국제, 의료, 그리고 법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에서는 경영, 법학, 의학, 그리고 교육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유형별로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전공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대학원과 보다 확실한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일본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을 듯하며 그 기준은 국가자격 등의 직업자격과 관련된 분야, 사회적으로 고도의 전문직업능력을 요구하는 분야,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이다. 특별히 전문대학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 의학, 그리고 법학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학위는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모두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경우 전문학위 뿐만 아니라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 수여요건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학위논문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학위논문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영국에서는 학위논문을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일본과 영국에서는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또는 논문지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 전문대학원은 현장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턴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대학과 그랑제꼴에서 제공하는 전문석사과정은 3개월에서 6개월, 독립체제로 운영되는 교사전문대학원인 IUFM은 1년의 교사인턴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IUFM 교육과정의 1/3이상이 현장 연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실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위논문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원의 목적이 학자의 양성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위논문을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도 국가간 차이가 있다. 일본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업연한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전문대학원의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영대학원은 석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업연한이 대체로 2년이고 법학대학원은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이 보통 3년이다. 영국의 법학대학원 석사의 수업연한은 1년이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수업연한이 다양한 이유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각 전문대학원 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각 전문대학원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 주체, 그리고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 확보 및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IV. 전문대학원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 1. 설문조사 분석

전문대학원 평가지표 개발 및 질적 제고 방안을 위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전문대학원 평가지표 개발 및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한 평가는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교수집단과 대학원 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인 대학원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 1) 교수 집단

교수 집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350명의 교수 응답자들이 속한 전문대학원의 설립주체, 소재지, 설립유형, 대학원 운영형태, 설립시기, 연령, 재직기간, 직위, 소속, 교수경력, 실무경험, 전공계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가 재직 중인 전문대학원의 설립주체는 사립대 76.9%와 국공립대학 23.1%로 나타나 사립대에 재직 중인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전문대학원 소재지 특성은 서울은 54.9%, 충청 16.0%, 경기·인천 15.1%, 영남 8.0%, 호남 4.9%, 강원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재직 중인 전문대학원의 설립유형은 대학교 67.1%, 대학원대학교 32.9%로 대학교의 응답 비중이 많았다. 응답자가 속한 전문대학원의 운영형태는 주간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주간과 야간을 같이하는 전문대학원도 35.2%로 많았으며, 야간만 운영하는 전문대학원은 0.6%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문대학원 설립시기와 관련해서는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전문대학원 66.1%로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에 설립된 전문대학원은 33.6%로 나타났다.

〈표 IV-1〉 교수집단이 속한 전문대학원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81	23.1	0(0%)
	사립	269	76.9	
	합계	35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92	54.9	0(0%)
	경기·인천	53	15.1	
	충청	56	16.0	
	호남	17	4.9	
	영남	28	8.0	
	강원	4	1.1	
	합계	350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35	67.1	0(0%)
	대학원대학교	115	32.9	
	합계	350	100.0	
대학원 운영형태	주간	223	64.3	3(0.9%)
	야간	2	.6	
	주간과 야간 모두	122	35.2	
	합계	347	100.0	
설립시기	2004년 이전	230	66.1	3(0.9%)
	2005년 이후	117	33.6	
	합계	347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별로는 50대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 38.6%, 30대 11.0%, 60대 이상 7.5%등의 순이었고, 재직기간별 특성에서는 5년 미만의 재직자가 31.4%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미만의 재직자가 30.3%로 많았고, 10년-20년 미만 재직자 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위별 특성에서는 정교수 이상이 37.2%로 가장 많았고, 조교수가 31.4%, 부교수 27.7%, 전임강사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직자들은 전문대학원 소속이 89.6%로 가장 많았고, 학부소속은 10.4%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교수가 된 경로에 대해서는 학문적 업적에 의해서 된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적 능력인 경우가 21.6%, 탁월한 연구업적이 10.7%,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무경험에 있어서는 교수되기 전에 실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2.7%, 교수가 된 이후에 실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61.8%로 가장 많았고, 이공학계열이 29.6%, 예체능계열이 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교수집단이 속한 개인적 특성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연령	30대	38	11.0	3(0.9%)
	40대	134	38.6	
	50대	149	42.9	
	60대 이상	26	7.5	
	합계	347	100.0	
재직기간	5년미만	109	31.4	3(0.9%)
	5년-10년미만	105	30.3	
	10년-20년 미만	90	25.9	
	20년-30년 미만	37	10.7	
	30년 이상	6	1.7	
	합계	347	100.0	
직위	전임강사	13	3.7	3(0.9%)
	조교수	109	31.4	
	부교수	96	27.7	
	정교수	129	37.2	
	합계	347	100.0	
소속	학부소속	36	10.4	5(1.4%)
	전문대학원 소속	309	89.6	
	합계	345	100.0	
교수경로	학문적 업적을 기초로 전임교수가 됨	231	66.6	3(0.9%)
	탁월한 연구 업적을 기초로 전임교수가 됨	37	10.7	
	실무적 능력을 기초로 전임교수가 됨	75	21.6	
	기타	4	1.2	
	합계	347	100.0	
실무경험	교수가 되기 이전에 실무경험 있음	272	78.4	3(0.9%)
	교수가 된 이후에 실무경험 있음	31	8.9	
	실무경험은 없다	44	12.7	
	합계	347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15	61.8	2(0.6%)
	이공학계열	103	29.6	
	예체능계열	30	8.6	
	합계	348	100.0	

## 2) 대학원생 집단

대학원생 집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225명의 대학원생 응답자



들이 속한 전문대학원의 설립주체, 소재지, 설립유형, 대학원 운영형태, 설립시기, 성별, 연령, 학위과정, 전공계열, 실무경험, 대학원생 유형, 입학동기, 전공일치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가 다니는 전문대학원의 설립주체는 사립대 76.1%와 국공립대학 23.9%로 나타나 사립대에 다니는 대학원생이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응답자의 전문대학원 소재지 특성은 서울은 58.6%, 충청 15.9%, 경기·인천 12.8%, 영남 7.3%, 호남 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다니는 전문대학원의 설립유형은 대학교 50.0%, 대학원대학교 50.05%로 고르게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속한 전문대학원의 운영형태는 주간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주간과 야간을 같이하는 전문대학원도 22.9%로 많았으며, 야간만 운영하는 전문대학원은 7.6%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문대학원 설립시기와 관련해서는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전문대학원 68.0%로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에 설립된 전문대학원은 22.6%로 나타났다.

〈표 IV-3〉 대학원생 집단이 속한 전문대학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92	23.9	3(0.2%)
	사립	930	76.1	
	합계	122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02	58.6	27(2.2%)
	경기·인천	153	12.8	
	충청	190	15.9	
	호남	65	5.4	
	영남	88	7.3	
	합계	1198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601	50.0	24(2.0%)
	대학원대학교	600	50.0	
	합계	1201	100.0	
대학원 운영형태	주간	847	69.5	6(0.5%)
	야간	93	7.6	
	주간+야간	279	22.9	
	합계	1219	100.0	
대학원 설립시기	2004년 이전	816	68.0	25(2.0%)
	2005년 이후	271	22.6	
	모름	113	9.4	
	합계	1200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은 남성이 55.3%로 많았고, 여성이 44.7%로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가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 33.5%, 40대 19.0%, 50대 8.4%, 60대 이상 0.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위과정 특성은 석사과정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박사과정은 33.9%, 석박사통합과정은 1.7%로 응답하였으며,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57.5%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는 29.0%, 예체능은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실무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원 입학전에 실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6.3%, 대학원 입학 이후에 실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6%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유형에서는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제 대학원생이 37.6%, 기타가 4.7%이었으며, 입학동기가 대부분 깊이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가 40.3%, 실무적 전문성 함양이 40.1% 등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응답자의 전공일치도와 관련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27.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전문대학원의 전공에 맞게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대학원생 집단의 개인적 특성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성별	남	673	55.3	7(0.6%)
	여	545	44.7	
	합계	1218	100.0	
연령	20대	466	38.3	9(0.7%)
	30대	407	33.5	
	40대	231	19.0	
	50대	102	8.4	
	60대 이상	10	.8	
	합계	1216	100.0	
학위과정	석사과정	786	64.4	5(0.4%)
	박사과정	413	33.9	
	석박사통합	21	1.7	
	합계	1220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701	57.5	6(0.5%)
	이공계	353	29.0	
	예체능	165	13.5	
	합계	1219	100.0	

실무경험	대학원입학 이전에 실무경험이 있다	741	62.1	32(2.6%)
	대학원입학 이후에 실무경험이 있다	138	11.6	
	실무경험은 없다	314	26.3	
	합계	1193	100.0	
대학원생 유형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	446	37.6	38(3.1%)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	685	57.7	
	기타	56	4.7	
	합계	1187	100.0	
입학동기	보다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485	40.3	22(1.8%)
	실무적 전문성의 함양	483	40.1	
	사회적 명예 혹은 이력관리	48	4.0	
	인맥을 쌓기위해	7	.6	
	더 좋은 직장	78	6.5	
	전공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서	80	6.7	
	기타	22	1.8	
	합계	1203	100.0	
전공일치도	매우낮다	107	8.9	23(1.9%)
	낮은편	141	11.7	
	보통	239	19.9	
	높은편	382	31.8	
	매우높다	333	27.7	
	합계	1202	100.0	

## 나. 교수의 전문대학원 인식 및 만족도 평가

### 1) 전문대학원의 전반적 사항

#### 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전문대학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3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교수들은 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6	1.7
그렇지 않다	19	5.5
보통이다	50	14.4
그렇다	121	34.9
매우 그렇다	151	43.5
합계	347	100.0
결측값	3(0.9%)	

교차분석결과, 교수집단에서는 대학원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에서 설립한 전문대학원보다는 대학원대학교에서 설립한 전문대학원이 상대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전공 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2%	5 6.2%	9 11.2%	37 46.2%	28 35.0%	80 100.0%	6.566
	사립	5 1.9%	14 5.2%	41 15.4%	84 31.5%	123 46.1%	267 100.0%	
전체		6 1.7%	19 5.5%	50 14.4%	121 34.9%	151 43.5%	347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 1.1%	11 5.8%	27 14.2%	67 35.3%	83 43.7%	190 100.0%	22.620
	경기·인천	2 3.8%	3 5.7%	8 15.1%	14 26.4%	26 49.1%	53 100.0%	
	충청	0 0.0%	3 5.4%	6 10.7%	25 44.6%	22 39.3%	56 100.0%	
	호남	0 0.0%	0 0.0%	0 0.0%	8 50.0%	8 50.0%	16 100.0%	
	영남	2 7.1%	2 7.1%	8 28.6%	6 21.4%	10 35.7%	28 100.0%	
	강원	0 0.0%	0 0.0%	1 25.0%	1 25.0%	2 50.0%	4 100.0%	
전체		6 1.7%	19 5.5%	50 14.4%	121 34.9%	151 43.5%	347 100.0%	10.462**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 1.7%	14 6.0%	37 15.9%	90 38.8%	87 37.5%	232 100.0%	
	대학원대학교	2 1.7%	5 4.3%	13 11.3%	31 27.0%	64 55.7%	115 100.0%	
전체		6 1.7%	19 5.5%	50 14.4%	121 34.9%	151 43.5%	347 100.0%	3.921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 0.9%	10 4.7%	30 14.0%	73 34.1%	99 46.3%	214 100.0%	
	이공학계열	3 2.9%	7 6.8%	16 15.5%	36 35.0%	41 39.8%	103 100.0%	
	예체능계열	1 3.4%	2 6.9%	4 13.8%	11 37.9%	11 37.9%	29 100.0%	
전체		6 1.7%	19 5.5%	50 14.5%	120 34.7%	151 43.6%	346 100.0%	

주) \*<0.1 / \*\*<0.05 / \*\*\*<0.01

## 나)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교육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2.3%와 6.6%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의견도 24.3%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교수들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일반대학원 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8	2.3
그렇지 않다	23	6.6
보통이다	84	24.3
그렇다	138	39.9
매우 그렇다	93	26.9
합계	346	100.0
결측값	4(1.1%)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일반대학원 보다 높다고 평가했지만,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8〉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2%	4 5.0%	18 22.5%	39 48.8%	18 22.5%	80 100.0%	3.861
	사립	7 2.6%	19 7.1%	66 24.8%	99 37.2%	75 28.2%	266 100.0%	
전체		8 2.3%	23 6.6%	84 24.3%	138 39.9%	93 26.9%	34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 2.1%	10 5.3%	43 22.6%	73 38.4%	60 31.6%	190 100.0%	27.830
	경기·인천	4 7.5%	7 13.2%	13 24.5%	19 35.8%	10 18.9%	53 100.0%	
	충청	0 0.0%	2 3.6%	16 29.1%	25 45.5%	12 21.8%	55 100.0%	
	호남	0 0.0%	0 0.0%	5 31.2%	9 56.2%	2 12.5%	16 100.0%	
	영남	0 0.0%	4 14.3%	5 17.9%	10 35.7%	9 32.1%	28 100.0%	
	강원	0 0.0%	0 0.0%	2 50.0%	2 50.0%	0 0.0%	4 100.0%	
전체		8 2.3%	23 6.6%	84 24.3%	138 39.9%	93 26.9%	346 100.0%	1.611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 1.7%	14 6.1%	58 25.1%	92 39.8%	63 27.3%	231 100.0%	
	대학원대학교	4 3.5%	9 7.8%	26 22.6%	46 40.0%	30 26.1%	115 100.0%	
전체		8 2.3%	23 6.6%	84 24.3%	138 39.9%	93 26.9%	346 100.0%	4.79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 2.8%	13 6.1%	52 24.3%	80 37.4%	63 29.4%	214 100.0%	
	이공학계열	2 1.9%	8 7.8%	25 24.3%	47 45.6%	21 20.4%	103 100.0%	
	예체능계열	0 0.0%	2 6.9%	7 24.1%	11 37.9%	9 31.0%	29 100.0%	
전체		8 2.3%	23 6.6%	84 24.3%	138 39.9%	93 26.9%	346 100.0%	

주) \*<0.1 / \*\*<0.05 / \*\*\*<0.01

#### 다)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육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2.0%로 매우 낮았으며,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의견도 12.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교수들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특수대학원 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7	2.0
그렇지 않다	7	2.0
보통이다	43	12.4
그렇다	125	36.1
매우 그렇다	164	47.4
합계	346	100.0
결측값	4(1.1%)	

교차분석결과, 교수집단에서는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서울, 충청, 영남, 강원 지역에서는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인천, 호남지역도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에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대학원대학교의 소속 교수보다는 특수대학원과 비교하여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주체별,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2%	2 2.5%	8 10.0%	30 37.5%	39 48.8%	80 100.0%	1.012
	사립	6 2.3%	5 1.9%	35 13.2%	95 35.7%	125 47.0%	266 100.0%	
	전체	7 2.0%	7 2.0%	43 12.4%	125 36.1%	164 47.4%	34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5 2.6%	1 0.5%	20 10.5%	64 33.7%	100 52.6%	190 100.0%	32.374**
	경기·인천	2 3.8%	2 3.8%	8 15.1%	22 41.5%	19 35.8%	53 100.0%	
	충청	0 0.0%	2 3.6%	8 14.5%	20 36.4%	25 45.5%	55 100.0%	
	호남	0 0.0%	0 0.0%	1 6.2%	11 68.8%	4 25.0%	16 100.0%	
	영남	0 0.0%	1 3.6%	5 17.9%	8 28.6%	14 50.0%	28 100.0%	
	강원	0 0.0%	1 25.0%	1 25.0%	0 0.0%	2 50.0%	4 100.0%	
전체		7 2.0%	7 2.0%	43 12.4%	125 36.1%	164 47.4%	346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 0.9%	5 2.2%	27 11.7%	70 30.3%	127 55.0%	231 100.0%	19.925**
	대학원대학교	5 4.3%	2 1.7%	16 13.9%	55 47.8%	37 32.2%	115 100.0%	
	전체	7 2.0%	7 2.0%	43 12.4%	125 36.1%	164 47.4%	346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 2.3%	3 1.4%	27 12.6%	84 39.3%	95 44.4%	214 100.0%	9.548
	이공학계열	2 1.9%	2 1.9%	15 14.6%	31 30.1%	53 51.5%	103 100.0%	
	예체능계열	0 0.0%	2 6.9%	1 3.4%	10 34.5%	16 55.2%	29 100.0%	
전체		7 2.0%	7 2.0%	43 12.4%	125 36.1%	164 47.4%	346 100.0%	

주) \*<0.1 / \*\*<0.05 / \*\*\*<0.01

#### 라)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2.6%, 6.4%로 매우 낮았으며,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의견도 14.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교수들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이 타 대학원 운영과 차별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9	2.6
그렇지 않다	22	6.4
보통이다	50	14.5
그렇다	157	45.4
매우 그렇다	108	31.2
합계	346	100.0
결측값	4(1.1%)	

그러나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원의 운영의 차별성이 타 대학원 보다 높다고 평가했지만,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 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2〉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타 대학원과의 운영 차별성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 2.5%	6 7.5%	8 10.0%	40 50.0%	24 30.0%	80 100.0%	2.183
	사립	7 2.6%	16 6.0%	42 15.8%	117 44.0%	84 31.6%	266 100.0%	
전체		9 2.6%	22 6.4%	50 14.5%	157 45.4%	108 31.2%	34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6 3.2%	11 5.8%	31 16.3%	82 43.2%	60 31.6%	190 100.0%	18.387
	경기·인천	1 1.9%	4 7.5%	6 11.3%	25 47.2%	17 32.1%	53 100.0%	
	충청	0 0.0%	3 5.5%	7 12.7%	32 58.2%	13 23.6%	55 100.0%	
	호남	0 0.0%	1 6.2%	0 0.0%	7 43.8%	8 50.0%	16 100.0%	
	영남	2 7.1%	2 7.1%	5 17.9%	9 32.1%	10 35.7%	28 100.0%	
	강원	0 0.0%	1 25.0%	1 25.0%	2 50.0%	0 0.0%	4 100.0%	
전체		9 2.6%	22 6.4%	50 14.5%	157 45.4%	108 31.2%	346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5 2.2%	15 6.5%	33 14.3%	102 44.2%	76 32.9%	231 100.0%	1.404
	대학원대학교	4 3.5%	7 6.1%	17 14.8%	55 47.8%	32 27.8%	115 100.0%	
전체		9 2.6%	22 6.4%	50 14.5%	157 45.4%	108 31.2%	346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 1.9%	15 7.0%	30 14.0%	101 47.2%	64 29.9%	214 100.0%	5.297
	이공학계열	4 3.9%	7 6.8%	17 16.5%	41 39.8%	34 33.0%	103 100.0%	
	예체능계열	1 3.4%	0 0.0%	3 10.3%	15 51.7%	10 34.5%	29 100.0%	
전체		9 2.6%	22 6.4%	50 14.5%	157 45.4%	108 31.2%	346 100.0%	

주) \*<0.1 / \*\*<0.05 / \*\*\*<0.01

## 2) 입학과정

### 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한 설문에서 “면접”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7.7%로 많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면접과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13〉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필기시험점수	14	4.0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96	27.7
면접	168	48.6
각종 자격증 및 학업계획서	18	5.2
학부 성적	33	9.5
기타	17	4.9
합계	346	100.0
결측값	4(1.1%)	

교차분석결과, 교수집단에서는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호남, 영남, 강원지역에서는 면접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지역에서는 면접과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등을 유사한 비중을 두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이 다른 계열보다는 면접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에 대해서는 인문사회 계열이 다른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설립유형별 등 각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전체	$\chi^2$
		필기시험 점수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면접	각종 자격증 및 학업 계획서	학부 성적	기타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2%	17 21.2%	46 57.5%	7 8.8%	7 8.8%	2 2.5%	80 100.0%	9.127
	사립	13 4.9%	79 29.7%	122 45.9%	11 4.1%	26 9.8%	15 5.6%	266 100.0%	
	전체	14 4.0%	96 27.7%	168 48.6%	18 5.2%	33 9.5%	17 4.9%	34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8 4.2%	53 27.9%	91 47.9%	13 6.8%	16 8.4%	9 4.7%	190 100.0%	48.187**
	경기·인천	2 3.8%	14 26.9%	25 48.1%	1 1.9%	6 11.5%	4 7.7%	52 100.0%	
	충청	1 1.8%	24 42.9%	24 42.9%	2 3.6%	5 8.9%	0 0.0%	56 100.0%	
	호남	2 12.5%	0 0.0%	9 56.2%	0 0.0%	2 12.5%	3 18.8%	16 100.0%	
	영남	1 3.6%	5 17.9%	17 60.7%	0 0.0%	4 14.3%	1 3.6%	28 100.0%	
	강원	0 0.0%	0 0.0%	2 50.0%	2 50.0%	0 0.0%	0 0.0%	4 100.0%	
전체		14 4.0%	96 27.7%	168 48.6%	18 5.2%	33 9.5%	17 4.9%	346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0 4.3%	69 29.9%	107 46.3%	12 5.2%	26 11.3%	7 3.0%	231 100.0%	9.149
	대학원대학교	4 3.5%	27 23.5%	61 53.0%	6 5.2%	7 6.1%	10 8.7%	115 100.0%	
	전체	14 4.0%	96 27.7%	168 48.6%	18 5.2%	33 9.5%	17 4.9%	346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1 5.2%	62 29.1%	101 47.4%	11 5.2%	16 7.5%	12 5.6%	213 100.0%	16.145*
	이공학계열	1 1.0%	27 26.2%	51 49.5%	6 5.8%	16 15.5%	2 1.9%	103 100.0%	
	예체능계열	2 6.9%	7 24.1%	16 55.2%	1 3.4%	0 0.0%	3 10.3%	29 100.0%	
전체		14 4.1%	96 27.8%	168 48.7%	18 5.2%	32 9.3%	17 4.9%	345 100.0%	

주) \*<0.1 / \*\*<0.05 / \*\*\*<0.01

## 나) 신입생의 특성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원의 신입생 특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27.8%로 많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들은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나 상당히 많은 수의 비전일제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5〉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96	27.8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166	48.1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하다	83	24.1
합계	345	100.0
결측값	5(1.4%)	

교차분석결과, 교수집단에서는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며, 사립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지방에 속하는 경기·인천, 호남, 영남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 지역의 경우 시간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대부분 전일제 대학원생이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인문사회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예체능 계열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 대학원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6〉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신입생의 특성			전체	$\chi^2$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1 13.8%	46 57.5%	23 28.8%	80 100.0%	10.275**
	사립	85 32.1%	120 45.3%	60 22.6%	265 100.0%	
전체		96 27.8%	166 48.1%	83 24.1%	34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9 25.8%	99 52.1%	42 22.1%	190 100.0%	35.173***
	경기·인천	17 32.7%	18 34.6%	17 32.7%	52 100.0%	
	충청	25 45.5%	22 40.0%	8 14.5%	55 100.0%	
	호남	0 0.0%	10 62.5%	6 37.5%	16 100.0%	
	영남	5 17.9%	17 60.7%	6 21.4%	28 100.0%	
	강원	0 0.0%	0 0.0%	4 100.0%	4 100.0%	
전체		96 27.8%	166 48.1%	83 24.1%	345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62 27.0%	116 50.4%	52 22.6%	230 100.0%	1.561
	대학원대학교	34 29.6%	50 43.5%	31 27.0%	115 100.0%	
전체		96 27.8%	166 48.1%	83 24.1%	345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75 35.2%	90 42.3%	48 22.5%	213 100.0%	22.691***
	이공학계열	17 16.5%	64 62.1%	22 21.4%	103 100.0%	
	예체능계열	4 13.8%	12 41.4%	13 44.8%	29 100.0%	
전체		96 27.8%	166 48.1%	83 24.1%	345 100.0%	

주) \*<0.1 / \*\*<0.05 / \*\*\*<0.01

#### 다) 신입생의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원 신입생의 전공 일치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높다”는 응답이 29.4%로 많았다. 반면에 “매우 낮다”와 “낮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4.1%, 18.3%로 다소 높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교수들은 신입생들이 대부분 대학원 전공이 일치하고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7〉 신입생의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낮다	14	4.1
낮다	63	18.3
보통	123	35.8
높다	101	29.4
매우 높다	43	12.5
합계	344	100.0
결측값	6(1.7%)	

교차분석결과, 교수집단에서는 대학원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인 경우 학부 전공이 대학원 전공 일치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유형별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에서는 전공일치도가 대부분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체능 계열에서는 매우 높은 전공일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8〉 신입생의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신입생의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					전체	$\chi^2$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8%	12 15.0%	26 32.5%	29 36.2%	10 12.5%	80 100.0%	2.646
	사립	11 4.2%	51 19.3%	97 36.7%	72 27.3%	33 12.5%	264 100.0%	
	전체	14 4.1%	63 18.3%	123 35.8%	101 29.4%	43 12.5%	34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8 4.2%	33 17.5%	76 40.2%	56 29.6%	16 8.5%	189 100.0%	24.816
	경기·인천	1 1.9%	12 23.1%	17 32.7%	11 21.2%	11 21.2%	52 100.0%	
	충청	1 1.8%	10 18.2%	14 25.5%	21 38.2%	9 16.4%	55 100.0%	
	호남	1 6.2%	1 6.2%	5 31.2%	4 25.0%	5 31.2%	16 100.0%	
	영남	3 10.7%	6 21.4%	9 32.1%	8 28.6%	2 7.1%	28 100.0%	
	강원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전체		14 4.1%	63 18.3%	123 35.8%	101 29.4%	43 12.5%	344 100.0%	11.947**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 3.5%	31 13.5%	86 37.6%	74 32.3%	30 13.1%	229 100.0%	
	대학원대학교	6 5.2%	32 27.8%	37 32.2%	27 23.5%	13 11.3%	115 100.0%	
전체		14 4.1%	63 18.3%	123 35.8%	101 29.4%	43 12.5%	344 100.0%	20.65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 5.7%	47 22.2%	73 34.4%	57 26.9%	23 10.8%	212 100.0%	
	이공학계열	2 1.9%	12 11.7%	45 43.7%	32 31.1%	12 11.7%	103 100.0%	
	예체능계열	0 0.0%	4 13.8%	5 17.2%	12 41.4%	8 27.6%	29 100.0%	
전체		14 4.1%	63 18.3%	123 35.8%	101 29.4%	43 12.5%	344 100.0%	

주) \*<0.1 / \*\*<0.05 / \*\*\*<0.01

## 라) 입학경쟁률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경쟁률에 대한 설문 결과, “1:1-2:1 미만”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1-3:1 미만”이라는 응답이 25.7%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전문대학원의 명성과 전공에 따라 경쟁률에 차이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전문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19〉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1:1 미만	63	18.4
1:1-2:1 미만	128	37.3
2:1-3:1 미만	88	25.7
4:1-5:1 미만	26	7.6
5:1 이상	38	11.1
합계	343	100.0
결측값	7(2.0%)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서울지역은 2:1-3:1로 입학경쟁률이 높았으며, 경기·인천, 충청, 호남, 강원 지역은 1:1-2:1 미만으로 입학경쟁률이 높지 않았다. 반면, 영남지역의 경우 1:1미만인 입학경쟁률을 보인 전문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인 경우 대부분 1:1-2:1 미만 이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대학원대학교는 1:1-2:1 미만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학원대학교의 입학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은 1:1-2:1 미만인 경우가 많았지만, 예체능 계열은 2:1-3:1 미만으로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0〉 입학경쟁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입학경쟁률					전체	$\chi^2$
		1:1 미만	1:1-2:1 미만	2:1-3:1 미만	4:1-5:1 미만	5:1 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9 11.5%	37 47.4%	22 28.2%	5 6.4%	5 6.4%	78 100.0%	7.757
	사립	54 20.4%	91 34.3%	66 24.9%	21 7.9%	33 12.5%	265 100.0%	
전체		63 18.4%	128 37.3%	88 25.7%	26 7.6%	38 11.1%	34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5 13.2%	54 28.4%	58 30.5%	18 9.5%	35 18.4%	190 100.0%	65.645***
	경기·인천	12 23.1%	23 44.2%	14 26.9%	2 3.8%	1 1.9%	52 100.0%	
	충청	7 13.0%	29 53.7%	11 20.4%	6 11.1%	1 1.9%	54 100.0%	
	호남	7 43.8%	8 50.0%	1 6.2%	0 0.0%	0 0.0%	16 100.0%	
	영남	12 44.4%	11 40.7%	3 11.1%	0 0.0%	1 3.7%	27 100.0%	
	강원	0 0.0%	3 75.0%	1 25.0%	0 0.0%	0 0.0%	4 100.0%	
전체		63 18.4%	128 37.3%	88 25.7%	26 7.6%	38 11.1%	343 100.0%	31.127***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5 10.9%	84 36.7%	70 30.6%	20 8.7%	30 13.1%	229 100.0%	
	대학원대학교	38 33.3%	44 38.6%	18 15.8%	6 5.3%	8 7.0%	114 100.0%	
전체		63 18.4%	128 37.3%	88 25.7%	26 7.6%	38 11.1%	343 100.0%	22.96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2 19.8%	77 36.3%	42 19.8%	20 9.4%	31 14.6%	212 100.0%	
	이공학계열	14 13.7%	44 43.1%	36 35.3%	5 4.9%	3 2.9%	102 100.0%	
	예체능계열	7 24.1%	7 24.1%	10 34.5%	1 3.4%	4 13.8%	29 100.0%	
전체		63 18.4%	128 37.3%	88 25.7%	26 7.6%	38 11.1%	343 100.0%	

주) \*<0.1 / \*\*<0.05 / \*\*\*<0.01

#### 마) 신입생의 입학 동기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설문 결과, “실무적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보다 깊이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라는 응답이 18.8%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동기가 대부분 실무적 전문성 함양과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신입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보다 깊이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65	18.8
실무적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	238	68.8
사회적명예 혹은 이력관리를 위해	12	3.5
더 좋은 직장을 얻기위해서	16	4.6
전공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서	11	3.2
기타	4	1.2
합계	346	100.0
결측값	4(1.1%)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호남과 충청지역은 대부분 실무적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입학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입학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 지역보다는 높았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주체,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2〉 신입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신입생의 입학 동기						전체	$\chi^2$
		보다 깊이있 는 학문 을 배우 기 위해	실무적 전문성 의 함양 을 위해	사회적 명예 혹은 이력관 리를 위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 이 바뀌 어서	기타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6 20.0%	56 70.0%	1 1.2%	3 3.8%	3 3.8%	1 1.2%	80 100.0%	1.867
	사립	49 18.4%	182 68.4%	11 4.1%	13 4.9%	8 3.0%	3 1.1%	266 100.0%	
	전체	65 18.8%	238 68.8%	12 3.5%	16 4.6%	11 3.2%	4 1.2%	34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1 21.6%	129 67.9%	7 3.7%	7 3.7%	6 3.2%	0 0.0%	190 100.0%	63.483***
	경기·인천	13 25.0%	32 61.5%	1 1.9%	4 7.7%	2 3.8%	0 0.0%	52 100.0%	
	충청	5 8.9%	45 80.4%	3 5.4%	2 3.6%	0 0.0%	1 1.8%	56 100.0%	
	호남	1 6.2%	13 81.2%	0 0.0%	0 0.0%	0 0.0%	2 12.5%	16 100.0%	
	영남	4 14.3%	17 60.7%	1 3.6%	3 10.7%	3 10.7%	0 0.0%	28 100.0%	
	강원	1 25.0%	2 50.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전체	65 18.8%	238 68.8%	12 3.5%	16 4.6%	11 3.2%	4 1.2%	346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9 21.2%	153 66.2%	7 3.0%	14 6.1%	6 2.6%	2 0.9%	231 100.0%	7.567
	대학원대학교	16 13.9%	85 73.9%	5 4.3%	2 1.7%	5 4.3%	2 1.7%	115 100.0%	
	전체	65 18.8%	238 68.8%	12 3.5%	16 4.6%	11 3.2%	4 1.2%	346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4 16.0%	152 71.4%	9 4.2%	10 4.7%	6 2.8%	2 0.9%	213 100.0%	6.475
	이공학계열	23 22.3%	68 66.0%	3 2.9%	5 4.9%	3 2.9%	1 1.0%	103 100.0%	
	예체능계열	8 27.6%	18 62.1%	0 0.0%	1 3.4%	2 6.9%	0 0.0%	29 100.0%	
전체		65 18.8%	238 69.0%	12 3.5%	16 4.6%	11 3.2%	3 0.9%	345 100.0%	

주) \*<0.1 / \*\*<0.05 / \*\*\*<0.01

### 3) 교육과정

#### 가) 실습 강의 비율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습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체로 적다”라는 응답이 33.8%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교수들은 전문대학원의 실습 강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3〉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3	3.8
대체로 적다	116	33.8
보통이다	133	38.8
대체로 많다	50	14.6
매우 많다	31	9.0
합계	343	100.0
결측값	7(2.0%)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강원 지역이 실습 강의 비율이 대체로 적었으며, 영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습 강의 비율이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통 정도의 실습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의 실습 강의 비율이 적었으며, 예체능계열은 실습 강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인 경우 실습 위주의 강의를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학원 설립주체, 대학원 설립유형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4〉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실습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적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8%	27 34.2%	32 40.5%	11 13.9%	6 7.6%	79 100.0%	.350
	사립	10 3.8%	89 33.7%	101 38.3%	39 14.8%	25 9.5%	264 100.0%	
전체		13 3.8%	116 33.8%	133 38.8%	50 14.6%	31 9.0%	34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 3.7%	64 34.0%	72 38.3%	24 12.8%	21 11.2%	188 100.0%	34.406**
	경기·인천	2 3.8%	21 40.4%	21 40.4%	4 7.7%	4 7.7%	52 100.0%	
	충청	4 7.1%	21 37.5%	20 35.7%	10 17.9%	1 1.8%	56 100.0%	
	호남	0 0.0%	1 6.7%	11 73.3%	3 20.0%	0 0.0%	15 100.0%	
	영남	0 0.0%	6 21.4%	8 28.6%	9 32.1%	5 17.9%	28 100.0%	
	강원	0 0.0%	3 75.0%	1 25.0%	0 0.0%	0 0.0%	4 100.0%	
전체		13 3.8%	116 33.8%	133 38.8%	50 14.6%	31 9.0%	343 100.0%	1.643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0 4.4%	75 32.8%	88 38.4%	33 14.4%	23 10.0%	229 100.0%	
	대학원대학교	3 2.6%	41 36.0%	45 39.5%	17 14.9%	8 7.0%	114 100.0%	
전체		13 3.8%	116 33.8%	133 38.8%	50 14.6%	31 9.0%	343 100.0%	37.56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0 4.8%	82 39.2%	77 36.8%	24 11.5%	16 7.7%	209 100.0%	
	이공학계열	2 1.9%	33 32.0%	46 44.7%	14 13.6%	8 7.8%	103 100.0%	
	예체능계열	0 0.0%	1 3.4%	9 31.0%	12 41.4%	7 24.1%	29 100.0%	
전체		12 3.5%	116 34.0%	132 38.7%	50 14.7%	31 9.1%	341 100.0%	

주) \*<0.1 / \*\*<0.05 / \*\*\*<0.01

## 나) 전임교수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설문한 결과,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51.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높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6.1%로 차지하였다. 반면에, “매우 낮다”와 “대체로 낮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2.6%, 4.1%로 나타났으며, 유보적인 응답인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5.9%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 소속교수들의 강의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판단해볼 수 있다.

〈표 IV-25〉 전임교수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낮다	9	2.6
대체로 낮다	14	4.1
보통이다	55	15.9
대체로 높다	90	26.1
매우 높다	177	51.3
합계	345	100.0
결측값	5(1.4%)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지만,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6〉 전임교수 강의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임교수 강의비율					전체	$\chi^2$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2%	2 2.5%	9 11.2%	21 26.2%	47 58.8%	80 100.0%	3.925
	사립	8 3.0%	12 4.5%	46 17.4%	69 26.0%	130 49.1%	265 100.0%	
전체		9 2.6%	14 4.1%	55 15.9%	90 26.1%	177 51.3%	34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5 2.6%	10 5.3%	40 21.2%	44 23.3%	90 47.6%	189 100.0%	23.034
	경기·인천	1 1.9%	0 0.0%	5 9.6%	17 32.7%	29 55.8%	52 100.0%	
	충청	2 3.6%	3 5.4%	6 10.7%	17 30.4%	28 50.0%	56 100.0%	
	호남	0 0.0%	0 0.0%	1 6.2%	6 37.5%	9 56.2%	16 100.0%	
	영남	1 3.6%	1 3.6%	1 3.6%	6 21.4%	19 67.9%	28 100.0%	
	강원	0 0.0%	0 0.0%	2 50.0%	0 0.0%	2 50.0%	4 100.0%	
전체		9 2.6%	14 4.1%	55 15.9%	90 26.1%	177 51.3%	345 100.0%	3.268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 1.7%	9 3.9%	38 16.5%	57 24.7%	123 53.2%	231 100.0%	
	대학원대학교	5 4.4%	5 4.4%	17 14.9%	33 28.9%	54 47.4%	114 100.0%	
전체		9 2.6%	14 4.1%	55 15.9%	90 26.1%	177 51.3%	345 100.0%	7.12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 2.4%	9 4.3%	38 18.0%	53 25.1%	106 50.2%	211 100.0%	
	이공학계열	3 2.9%	3 2.9%	11 10.7%	27 26.2%	59 57.3%	103 100.0%	
	예체능계열	0 0.0%	2 6.9%	6 20.7%	10 34.5%	11 37.9%	29 100.0%	
전체		8 2.3%	14 4.1%	55 16.0%	90 26.2%	176 51.3%	343 100.0%	

주) \*<0.1 / \*\*<0.05 / \*\*\*<0.01

#### 다)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한 결과, “없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개”라고 응답한 의견이 14.9%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편이거나 있어도 1~2개 프로그램만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7〉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233	67.9
1개	51	14.9
2개	37	10.8
3개	16	4.7
4개	1	.3
5개 이상	5	1.5
합계	343	100.0
결측값	7(2.0%)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원의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편이며,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 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chi^2$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60 75.0%	10 12.5%	5 6.2%	4 5.0%	0 0.0%	1 1.2%	80 100.0%	3.513
	사립	173 65.8%	41 15.6%	32 12.2%	12 4.6%	1 0.4%	4 1.5%	263 100.0%	
전체		233 67.9%	51 14.9%	37 10.8%	16 4.7%	1 0.3%	5 1.5%	34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25 66.5%	24 12.8%	24 12.8%	10 5.3%	1 0.5%	4 2.1%	188 100.0%	23.257
	경기·인천	38 73.1%	9 17.3%	3 5.8%	1 1.9%	0 0.0%	1 1.9%	52 100.0%	
	충청	37 67.3%	8 14.5%	6 10.9%	4 7.3%	0 0.0%	0 0.0%	55 100.0%	
	호남	1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영남	14 50.0%	9 32.1%	4 14.3%	1 3.6%	0 0.0%	0 0.0%	28 100.0%	
	강원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전체		233 67.9%	51 14.9%	37 10.8%	16 4.7%	1 0.3%	5 1.5%	343 100.0%	4.6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52 66.1%	35 15.2%	27 11.7%	13 5.7%	0 0.0%	3 1.3%	230 100.0%	
	대학원대학교	81 71.7%	16 14.2%	10 8.8%	3 2.7%	1 0.9%	2 1.8%	113 100.0%	
전체		233 67.9%	51 14.9%	37 10.8%	16 4.7%	1 0.3%	5 1.5%	343 100.0%	9.59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50 71.4%	27 12.9%	20 9.5%	7 3.3%	1 0.5%	5 2.4%	210 100.0%	
	이공학계열	67 65.0%	18 17.5%	12 11.7%	6 5.8%	0 0.0%	0 0.0%	103 100.0%	
	예체능계열	16 55.2%	6 20.7%	5 17.2%	2 6.9%	0 0.0%	0 0.0%	29 100.0%	
전체		233 68.1%	51 14.9%	37 10.8%	15 4.4%	1 0.3%	5 1.5%	342 100.0%	

주) \*<0.1 / \*\*<0.05 / \*\*\*<0.01

#### 라)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낮다”와 “없다”라고 응답한 부정적 의견이 각각 24.3%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9〉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83	24.3
대체로 낮다	83	24.3
보통이다	84	24.6
대체로 많다	36	10.5
매우 많다	56	16.4
합계	342	100.0
결측값	8(2.3%)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사립에서는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인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은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학교인 경우는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이 인문사회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그 비중이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2 27.5%	25 31.2%	23 28.8%	1 1.2%	9 11.2%	80 100.0%	13.503**
	사립	61 23.3%	58 22.1%	61 23.3%	35 13.4%	47 17.9%	262 100.0%	
전체		83 24.3%	83 24.3%	84 24.6%	36 10.5%	56 16.4%	34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1 21.9%	31 16.6%	49 26.2%	30 16.0%	36 19.3%	187 100.0%	66.462***
	경기·인천	14 26.9%	15 28.8%	10 19.2%	4 7.7%	9 17.3%	52 100.0%	
	충청	12 21.8%	27 49.1%	15 27.3%	1 1.8%	0 0.0%	55 100.0%	
	호남	9 56.2%	5 31.2%	2 12.5%	0 0.0%	0 0.0%	16 100.0%	
	영남	6 21.4%	4 14.3%	6 21.4%	1 3.6%	11 39.3%	28 100.0%	
	강원	1 25.0%	1 25.0%	2 50.0%	0 0.0%	0 0.0%	4 100.0%	
전체		83 24.3%	83 24.3%	84 24.6%	36 10.5%	56 16.4%	342 100.0%	8.54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9 21.5%	57 25.0%	64 28.1%	26 11.4%	32 14.0%	228 100.0%	
	대학원대학교	34 29.8%	26 22.8%	20 17.5%	10 8.8%	24 21.1%	114 100.0%	
전체		83 24.3%	83 24.3%	84 24.6%	36 10.5%	56 16.4%	342 100.0%	40.18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5 31.1%	50 23.9%	30 14.4%	24 11.5%	40 19.1%	209 100.0%	
	이공학계열	12 11.7%	27 26.2%	40 38.8%	9 8.7%	15 14.6%	103 100.0%	
	예체능계열	6 20.7%	6 20.7%	14 48.3%	2 6.9%	1 3.4%	29 100.0%	
전체		83 24.3%	83 24.3%	84 24.6%	35 10.3%	56 16.4%	341 100.0%	

주) \*<0.1 / \*\*<0.05 / \*\*\*<0.01

#### 마)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낮다”와 “없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각각 5.6%, 26.9%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많다”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각각 19.9%, 6.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9	5.6
대체로 낮다	92	26.9
보통이다	141	41.2
대체로 많다	68	19.9
매우 많다	22	6.4
합계	342	100.0
결측값	8(2.3%)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지역인 경우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경기·인천,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은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교에서 설립한 전문대학원일수록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원대학교에서 설립한 전문대학원은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8%	18 22.5%	39 48.8%	17 21.2%	3 3.8%	80 100.0%	4.064
	사립	16 6.1%	74 28.2%	102 38.9%	51 19.5%	19 7.3%	262 100.0%	
	전체	19 5.6%	92 26.9%	141 41.2%	68 19.9%	22 6.4%	34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1 5.9%	45 23.9%	71 37.8%	44 23.4%	17 9.0%	188 100.0%	18.665***
	경기·인천	5 9.6%	17 32.7%	22 42.3%	8 15.4%	0 0.0%	52 100.0%	
	충청	1 1.9%	16 29.6%	26 48.1%	9 16.7%	2 3.7%	54 100.0%	
	호남	0 0.0%	3 18.8%	9 56.2%	3 18.8%	1 6.2%	16 100.0%	
	영남	2 7.1%	9 32.1%	11 39.3%	4 14.3%	2 7.1%	28 100.0%	
	강원	0 0.0%	2 50.0%	2 50.0%	0 0.0%	0 0.0%	4 100.0%	
전체		19 5.6%	92 26.9%	141 41.2%	68 19.9%	22 6.4%	342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9 3.9%	58 25.3%	100 43.7%	50 21.8%	12 5.2%	229 100.0%	7.794*
	대학원대학교	10 8.8%	34 30.1%	41 36.3%	18 15.9%	10 8.8%	113 100.0%	
	전체	19 5.6%	92 26.9%	141 41.2%	68 19.9%	22 6.4%	342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3 6.2%	56 26.8%	84 40.2%	41 19.6%	15 7.2%	209 100.0%	2.859
	이공학계열	6 5.8%	28 27.2%	43 41.7%	20 19.4%	6 5.8%	103 100.0%	
	예체능계열	0 0.0%	8 27.6%	14 48.3%	6 20.7%	1 3.4%	29 100.0%	
전체		19 5.6%	92 27.0%	141 41.3%	67 19.6%	22 6.5%	341 100.0%	

주) \*<0.1 / \*\*<0.05 / \*\*\*<0.01

#### 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낮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5.0%로 나타났다. 한편, 유보적 입장인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0.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33〉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52	44.2
대체로 낮다	86	25.0
보통이다	69	20.1
대체로 많다	28	8.1
매우 많다	9	2.6
합계	344	100.0
결측값	6(1.7%)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사립인 경우에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외국인 교수의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9 61.2%	14 17.5%	16 20.0%	1 1.2%	0 0.0%	80 100.0%	18.021**
	사립	103 39.0%	72 27.3%	53 20.1%	27 10.2%	9 3.4%	264 100.0%	
전체		152 44.2%	86 25.0%	69 20.1%	28 8.1%	9 2.6%	34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3 38.6%	50 26.5%	43 22.8%	15 7.9%	8 4.2%	189 100.0%	52.987
	경기·인천	20 38.5%	16 30.8%	6 11.5%	9 17.3%	1 1.9%	52 100.0%	
	충청	28 50.9%	17 30.9%	10 18.2%	0 0.0%	0 0.0%	55 100.0%	
	호남	16 10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영남	11 39.3%	3 10.7%	10 35.7%	4 14.3%	0 0.0%	28 100.0%	
	강원	4 10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전체		152 44.2%	86 25.0%	69 20.1%	28 8.1%	9 2.6%	344 100.0%	16.83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01 43.9%	65 28.3%	47 20.4%	16 7.0%	1 0.4%	230 100.0%	
	대학원대학교	51 44.7%	21 18.4%	22 19.3%	12 10.5%	8 7.0%	114 100.0%	
전체		152 44.2%	86 25.0%	69 20.1%	28 8.1%	9 2.6%	344 100.0%	15.88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02 48.3%	44 20.9%	35 16.6%	22 10.4%	8 3.8%	211 100.0%	
	이공학계열	40 38.8%	31 30.1%	26 25.2%	5 4.9%	1 1.0%	103 100.0%	
	예체능계열	10 34.5%	11 37.9%	7 24.1%	1 3.4%	0 0.0%	29 100.0%	
전체		152 44.3%	86 25.1%	68 19.8%	28 8.2%	9 2.6%	343 100.0%	

주) \*<0.1 / \*\*<0.05 / \*\*\*<0.01

### 사) 학제간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낮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학제간 강의비율이 보통이거나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IV-35〉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50	14.6
대체로 낮다	88	25.7
보통이다	122	35.6
대체로 많다	66	19.2
매우 많다	17	5.0
합계	343	100.0
결측값	7(2.0%)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해서 보통이거나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많았지만, 유형별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학제 간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학제 간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0 12.7%	19 24.1%	27 34.2%	19 24.1%	4 5.1%	79 100.0%	1.654
	사립	40 15.2%	69 26.1%	95 36.0%	47 17.8%	13 4.9%	264 100.0%	
전체		50 14.6%	88 25.7%	122 35.6%	66 19.2%	17 5.0%	34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7 14.3%	46 24.3%	64 33.9%	42 22.2%	10 5.3%	189 100.0%	13.278
	경기·인천	10 19.2%	11 21.2%	22 42.3%	7 13.5%	2 3.8%	52 100.0%	
	충청	7 13.0%	15 27.8%	22 40.7%	8 14.8%	2 3.7%	54 100.0%	
	호남	1 6.2%	7 43.8%	5 31.2%	2 12.5%	1 6.2%	16 100.0%	
	영남	5 17.9%	7 25.0%	7 25.0%	7 25.0%	2 7.1%	28 100.0%	
	강원	0 0.0%	2 50.0%	2 50.0%	0 0.0%	0 0.0%	4 100.0%	
전체		50 14.6%	88 25.7%	122 35.6%	66 19.2%	17 5.0%	343 100.0%	5.35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7 11.8%	64 27.9%	83 36.2%	43 18.8%	12 5.2%	229 100.0%	
	대학원대학교	23 20.2%	24 21.1%	39 34.2%	23 20.2%	5 4.4%	114 100.0%	
전체		50 14.6%	88 25.7%	122 35.6%	66 19.2%	17 5.0%	343 100.0%	6.91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5 16.7%	55 26.2%	70 33.3%	38 18.1%	12 5.7%	210 100.0%	
	이공학계열	12 11.7%	29 28.2%	36 35.0%	22 21.4%	4 3.9%	103 100.0%	
	예체능계열	3 10.3%	4 13.8%	15 51.7%	6 20.7%	1 3.4%	29 100.0%	
전체		50 14.6%	88 25.7%	121 35.4%	66 19.3%	17 5.0%	342 100.0%	

주) \*<0.1 / \*\*<0.05 / \*\*\*<0.01

#### 아)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예”라고 응답한 의견이 4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는 대학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예	160	46.5
아니오	184	53.5
합계	344	100.0
결측값	6(1.7%)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가 낮은 편이었으며, 사립에서는 현장 실습과목 이수하도록 규정된 전문대학원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영남, 강원 지역인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토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충청과 호남지역에서는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곳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대학교인 경우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토록 규정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현장 실습과목의 이수여부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8〉 현장 실습 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현장 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		전체	$\chi^2$
		예	아니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4 30.0%	56 70.0%	80 100.0%	11.424**
	사립	136 51.5%	128 48.5%	264 100.0%	
전체		160 46.5%	184 53.5%	34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83 43.9%	106 56.1%	189 100.0%	17.385**
	경기·인천	23 44.2%	29 55.8%	52 100.0%	
	충청	35 63.6%	20 36.4%	55 100.0%	
	호남	11 68.8%	5 31.2%	16 100.0%	
	영남	8 28.6%	20 71.4%	28 100.0%	
	강원	0 0.0%	4 100.0%	4 100.0%	
전체		160 46.5%	184 53.5%	344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9 38.7%	141 61.3%	230 100.0%	17.042***
	대학원대학교	71 62.3%	43 37.7%	114 100.0%	
전체		160 46.5%	184 53.5%	344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10 52.1%	101 47.9%	211 100.0%	8.717**
	이공학계열	41 39.8%	62 60.2%	103 100.0%	
	예체능계열	8 27.6%	21 72.4%	29 100.0%	
전체		159 46.4%	184 53.6%	343 100.0%	

주) \*<0.1 / \*\*<0.05 / \*\*\*<0.01

#### 자)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4.6%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인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0.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수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9〉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	.6
그렇지 않다	4	1.2
보통이다	37	10.9
그렇다	118	34.6
매우 그렇다	180	52.8
합계	341	100.0
결측값	9(2.6%)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학사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많았지만, 유형별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IV-40〉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0 0.0%	0 0.0%	9 11.4%	31 39.2%	39 49.4%	79 100.0%	2.703
	사립	2 0.8%	4 1.5%	28 10.7%	87 33.2%	141 53.8%	262 100.0%	
전체		2 0.6%	4 1.2%	37 10.9%	118 34.6%	180 52.8%	34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 1.1%	3 1.6%	16 8.6%	65 34.8%	101 54.0%	187 100.0%	18.895
	경기·인천	0 0.0%	0 0.0%	4 7.7%	22 42.3%	26 50.0%	52 100.0%	
	충청	0 0.0%	1 1.8%	9 16.4%	17 30.9%	28 50.9%	55 100.0%	
	호남	0 0.0%	0 0.0%	0 0.0%	7 46.7%	8 53.3%	15 100.0%	
	영남	0 0.0%	0 0.0%	7 25.0%	5 17.9%	16 57.1%	28 100.0%	
	강원	0 0.0%	0 0.0%	1 25.0%	2 50.0%	1 25.0%	4 100.0%	
전체		2 0.6%	4 1.2%	37 10.9%	118 34.6%	180 52.8%	341 100.0%	6.657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0 0.0%	2 0.9%	25 11.0%	85 37.4%	115 50.7%	227 100.0%	
	대학원대학교	2 1.8%	2 1.8%	12 10.5%	33 28.9%	65 57.0%	114 100.0%	
전체		2 0.6%	4 1.2%	37 10.9%	118 34.6%	180 52.8%	341 100.0%	3.63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 1.0%	3 1.4%	21 10.1%	68 32.7%	114 54.8%	208 100.0%	
	이공학계열	0 0.0%	1 1.0%	12 11.8%	38 37.3%	51 50.0%	102 100.0%	
	예체능계열	0 0.0%	0 0.0%	4 13.8%	12 41.4%	13 44.8%	29 100.0%	
전체		2 0.6%	4 1.2%	37 10.9%	118 34.8%	178 52.5%	339 100.0%	

주) \*<0.1 / \*\*<0.05 / \*\*\*<0.01

#### 차) 전임교수 확보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90-100%”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100% 이상”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1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전임교수 확보율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교수들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1〉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50%이하	22	6.5
50%-60%	26	7.7
60%-70%	32	9.4
70%-80%	54	15.9
80%-90%	61	18.0
90%-100%	81	23.9
100%이상	63	18.6
합계	339	100.0
결측값	11(3.1%)	

교차분석결과에서는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에서는 전임교수 확보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예체능계열에서는 전임교수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예체능계열에서는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임교수 확보율							전체	$\chi^2$
		50%이하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8%	9 11.2%	6 7.5%	14 17.5%	15 18.8%	22 27.5%	11 13.8%	80 100.0%	5.461
	사립	19 7.3%	17 6.6%	26 10.0%	40 15.4%	46 17.8%	59 22.8%	52 20.1%	259 100.0%	
	전체	22 6.5%	26 7.7%	32 9.4%	54 15.9%	61 18.0%	81 23.9%	63 18.6%	339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3 7.0%	17 9.2%	20 10.8%	26 14.1%	31 16.8%	38 20.5%	40 21.6%	185 100.0%	28.858
	경기·인천	2 3.8%	2 3.8%	5 9.6%	8 15.4%	13 25.0%	12 23.1%	10 19.2%	52 100.0%	
	충청	4 7.4%	3 5.6%	3 5.6%	10 18.5%	9 16.7%	18 33.3%	7 13.0%	54 100.0%	
	호남	0 0.0%	1 6.2%	2 12.5%	6 37.5%	0 0.0%	4 25.0%	3 18.8%	16 100.0%	
	영남	2 7.1%	2 7.1%	2 7.1%	3 10.7%	7 25.0%	9 32.1%	3 10.7%	28 100.0%	
	강원	1 25.0%	1 25.0%	0 0.0%	1 25.0%	1 25.0%	0 0.0%	0 0.0%	4 100.0%	
	전체	22 6.5%	26 7.7%	32 9.4%	54 15.9%	61 18.0%	81 23.9%	63 18.6%	339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4 6.2%	22 9.7%	20 8.8%	36 15.9%	44 19.4%	55 24.2%	36 15.9%	227 100.0%	7.577
	대학원대학교	8 7.1%	4 3.6%	12 10.7%	18 16.1%	17 15.2%	26 23.2%	27 24.1%	112 100.0%	
	전체	22 6.5%	26 7.7%	32 9.4%	54 15.9%	61 18.0%	81 23.9%	63 18.6%	339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3 6.3%	18 8.7%	20 9.7%	34 16.5%	32 15.5%	49 23.8%	40 19.4%	206 100.0%	25.658**
	이공학계열	3 2.9%	8 7.8%	9 8.8%	15 14.7%	17 16.7%	28 27.5%	22 21.6%	102 100.0%	
	예체능계열	5 17.2%	0 0.0%	3 10.3%	4 13.8%	12 41.4%	4 13.8%	1 3.4%	29 100.0%	
전체		21 6.2%	26 7.7%	32 9.5%	53 15.7%	61 18.1%	81 24.0%	63 18.7%	337 100.0%	

주) \*<0.1 / \*\*<0.05 / \*\*\*<0.01

#### 4) 학위논문 지도 및 강의평가

##### 가) 학위논문 지도시간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지도 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회”라고 응답한 의견이 3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3〉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91	56.3
1주일에 1회	115	33.9
1주일에 2회 이상	30	8.8
거의 하지않는다	3	.9
합계	339	100.0
결측값	11(3.1%)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공립의 경우 사립보다는 1주일에 1회 정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지방지역인 경기·인천,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지역은 1주일에 1회정도 학위논문 지도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많았으며, 서울지역에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에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비중이 많았으며, 예체능계열에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거나 1주일에 1회 정도 진행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대학원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학위논문 지도시간				전체	$\chi^2$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주일에 1회	1주일에 2회 이상	거의 하지않는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7 46.2%	32 40.0%	11 13.8%	0 0.0%	80 100.0%	6.801*
	사립	154 59.5%	83 32.0%	19 7.3%	3 1.2%	259 100.0%	
전체		191 56.3%	115 33.9%	30 8.8%	3 0.9%	339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23 66.5%	41 22.2%	18 9.7%	3 1.6%	185 100.0%	40.454***
	경기·인천	31 59.6%	19 36.5%	2 3.8%	0 0.0%	52 100.0%	
	충청	18 33.3%	30 55.6%	6 11.1%	0 0.0%	54 100.0%	
	호남	5 31.2%	11 68.8%	0 0.0%	0 0.0%	16 100.0%	
	영남	13 46.4%	12 42.9%	3 10.7%	0 0.0%	28 100.0%	
	강원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전체		191 56.3%	115 33.9%	30 8.8%	3 0.9%	339 100.0%	1.991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25 55.3%	79 35.0%	21 9.3%	1 0.4%	226 100.0%	
	대학원대학교	66 58.4%	36 31.9%	9 8.0%	2 1.8%	113 100.0%	
전체		191 56.3%	115 33.9%	30 8.8%	3 0.9%	339 100.0%	17.37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5 60.4%	67 32.4%	12 5.8%	3 1.4%	207 100.0%	
	이공학계열	51 50.0%	34 33.3%	17 16.7%	0 0.0%	102 100.0%	
	예체능계열	15 51.7%	14 48.3%	0 0.0%	0 0.0%	29 100.0%	
전체		191 56.5%	115 34.0%	29 8.6%	3 0.9%	338 100.0%	

주) \*<0.1 / \*\*<0.05 / \*\*\*<0.01

## 나)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6.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기 보다는 전공계열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45〉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3	6.7
그렇지 않다	68	19.9
보통이다	111	32.5
그렇다	90	26.3
매우 그렇다	50	14.6
합계	342	100.0
결측값	8(2.3%)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정도가 많았으며,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대학교인 경우가 대학원대학교보다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8%	15 18.8%	21 26.2%	19 23.8%	22 27.5%	80 100.0%	14.792**
	사립	20 7.6%	53 20.2%	90 34.4%	71 27.1%	28 10.7%	262 100.0%	
전체		23 6.7%	68 19.9%	111 32.5%	90 26.3%	50 14.6%	34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7 9.1%	40 21.4%	58 31.0%	48 25.7%	24 12.8%	187 100.0%	16.770
	경기·인천	3 5.8%	11 21.2%	19 36.5%	14 26.9%	5 9.6%	52 100.0%	
	충청	2 3.6%	8 14.5%	18 32.7%	13 23.6%	14 25.5%	55 100.0%	
	호남	0 0.0%	3 18.8%	5 31.2%	5 31.2%	3 18.8%	16 100.0%	
	영남	1 3.6%	4 14.3%	11 39.3%	9 32.1%	3 10.7%	28 100.0%	
	강원	0 0.0%	2 50.0%	0 0.0%	1 25.0%	1 25.0%	4 100.0%	
전체		23 6.7%	68 19.9%	111 32.5%	90 26.3%	50 14.6%	342 100.0%	16.385**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5 6.6%	38 16.7%	66 28.9%	66 28.9%	43 18.9%	228 100.0%	
	대학원대학교	8 7.0%	30 26.3%	45 39.5%	24 21.1%	7 6.1%	114 100.0%	
전체		23 6.7%	68 19.9%	111 32.5%	90 26.3%	50 14.6%	342 100.0%	68.44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1 10.0%	55 26.3%	79 37.8%	45 21.5%	9 4.3%	209 100.0%	
	이공학계열	2 2.0%	12 11.8%	25 24.5%	32 31.4%	31 30.4%	102 100.0%	
	예체능계열	0 0.0%	1 3.4%	7 24.1%	13 44.8%	8 27.6%	29 100.0%	
전체		23 6.8%	68 20.0%	111 32.6%	90 26.5%	48 14.1%	340 100.0%	

주) \*<0.1 / \*\*<0.05 / \*\*\*<0.01

#### 다)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예”라고 응답한 의견이 32.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47〉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예	109	32.7
아니오	224	67.3
합계	333	100.0
결측값	17(4.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원의 비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		전체	$\chi^2$
		예	아니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8 35.0%	52 65.0%	80 100.0%	.246
		81 32.0%	172 68.0%	253 100.0%	
	사립				
전체		109 32.7%	224 67.3%	33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0 38.3%	113 61.7%	183 100.0%	10.088*
	경기·인천	17 34.0%	33 66.0%	50 100.0%	
	충청	14 26.4%	39 73.6%	53 100.0%	
	호남	1 6.2%	15 93.8%	16 100.0%	
	영남	6 22.2%	21 77.8%	27 100.0%	
	강원	1 25.0%	3 75.0%	4 100.0%	
	전체	109 32.7%	224 67.3%	333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79 35.4%	144 64.6%	223 100.0%	2.224
	대학원대학교	30 27.3%	80 72.7%	110 100.0%	
	전체	109 32.7%	224 67.3%	333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2 25.6%	151 74.4%	203 100.0%	12.739**
	이공학계열	46 46.0%	54 54.0%	100 100.0%	
	예체능계열	10 34.5%	19 65.5%	29 100.0%	
	전체	108 32.5%	224 67.5%	332 100.0%	

주) \*<0.1 / \*\*<0.05 / \*\*\*<0.01

#### 라)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예”라는 응답이 90.7%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의견이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부분 전문대학원에서는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9〉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예	303	90.7
아니오	31	9.3
합계	334	100.0
결측값	16(4.6%)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강의평가제도 운영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인천, 충청, 영남지역에서는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전문대학원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		전체	$\chi^2$
		예	아니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64 84.2%	12 15.8%	76 100.0%	4.949**
	사립	239 92.6%	19 7.4%	258 100.0%	
전체		303 90.7%	31 9.3%	33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71 92.9%	13 7.1%	184 100.0%	12.050**
	경기·인천	44 86.3%	7 13.7%	51 100.0%	
	충청	47 88.7%	6 11.3%	53 100.0%	
	호남	15 100.0%	0 0.0%	15 100.0%	
	영남	24 88.9%	3 11.1%	27 100.0%	
	강원	2 50.0%	2 50.0%	4 100.0%	
전체		303 90.7%	31 9.3%	334 100.0%	1.83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98 89.2%	24 10.8%	222 100.0%	
	대학원대학교	105 93.8%	7 6.2%	112 100.0%	
전체		303 90.7%	31 9.3%	334 100.0%	3.89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91 92.7%	15 7.3%	206 100.0%	
	이공학계열	85 85.9%	14 14.1%	99 100.0%	
	예체능계열	26 92.9%	2 7.1%	28 100.0%	
전체		302 90.7%	31 9.3%	333 100.0%	

주) \*<0.1 / \*\*<0.05 / \*\*\*<0.01

#### 마)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4-6명”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3명”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8.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최소 1-3명이거나 많으면 4-6명 정도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1〉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1-3명	130	38.2
4-6명	145	42.6
7-10명	48	14.1
11-15명	6	1.8
16명 이상	11	3.2
합계	340	100.0
결측값	10(2.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교수 1인당 논문지도하는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소재지,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전체	$\chi^2$
		1-3명	4-6명	7-10명	11-15명	16명 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8 35.0%	33 41.2%	17 21.2%	2 2.5%	0 0.0%	80 100.0%	7.809*
	사립	102 39.2%	112 43.1%	31 11.9%	4 1.5%	11 4.2%	260 100.0%	
전체		130 38.2%	145 42.6%	48 14.1%	6 1.8%	11 3.2%	34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0 37.6%	74 39.8%	27 14.5%	5 2.7%	10 5.4%	186 100.0%	15.587
	경기·인천	23 44.2%	24 46.2%	4 7.7%	1 1.9%	0 0.0%	52 100.0%	
	충청	20 37.0%	24 44.4%	9 16.7%	0 0.0%	1 1.9%	54 100.0%	
	호남	5 31.2%	8 50.0%	3 18.8%	0 0.0%	0 0.0%	16 100.0%	
	영남	9 32.1%	14 50.0%	5 17.9%	0 0.0%	0 0.0%	28 100.0%	
	강원	3 75.0%	1 25.0%	0 0.0%	0 0.0%	0 0.0%	4 100.0%	
전체		130 38.2%	145 42.6%	48 14.1%	6 1.8%	11 3.2%	340 100.0%	3.956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0 35.4%	101 44.7%	34 15.0%	5 2.2%	6 2.7%	226 100.0%	
	대학원대학교	50 43.9%	44 38.6%	14 12.3%	1 0.9%	5 4.4%	114 100.0%	
전체		130 38.2%	145 42.6%	48 14.1%	6 1.8%	11 3.2%	340 100.0%	10.161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87 41.8%	84 40.4%	26 12.5%	3 1.4%	8 3.8%	208 100.0%	
	이공학계열	29 28.4%	48 47.1%	20 19.6%	3 2.9%	2 2.0%	102 100.0%	
	예체능계열	13 44.8%	13 44.8%	2 6.9%	0 0.0%	1 3.4%	29 100.0%	
전체		129 38.1%	145 42.8%	48 14.2%	6 1.8%	11 3.2%	339 100.0%	

주) \*<0.1 / \*\*<0.05 / \*\*\*<0.01

#### 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시험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라고 응답한 의견이 25.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종합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	26	7.6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119	34.9
종합시험통과 및 일반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51	15.0
종합시험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87	25.5
종합시험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35	10.3
일정기간의 현장실습 대체	4	1.2
기타	19	5.6
합계	341	100.0
결측값	9(2.6%)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에서는 종합시험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 논문 게재하는 것이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반면에, 사립인 경우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호남, 영남 지역은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충청지역은 종합시험 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의 경우 종합시험과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가 많았으며,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종합시험만 통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학위청구논문 자격요건을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공학계열에서는 종합시험 통과 뿐만 아니라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토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							전체	$\chi^2$
		특별한 자격요건 이 없다	종합시험 만 통과하면 된다	종합시험 통과 및 일반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종합시험 통과 및 중앙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종합시험 통과 및 국제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일정기간 의 현장실습 대체	기타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8%	16 20.0%	9 11.2%	29 36.2%	19 23.8%	0 0.0%	4 5.0%	80 100.0%	34.196***
	사립	23 8.8%	103 39.5%	42 16.1%	58 22.2%	16 6.1%	4 1.5%	15 5.7%	261 100.0%	
전체		26 7.6%	119 34.9%	51 15.0%	87 25.5%	35 10.3%	4 1.2%	19 5.6%	34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4 7.5%	73 39.0%	22 11.8%	50 26.7%	18 9.6%	0 0.0%	10 5.3%	187 100.0%	69.553***
	경기· 인천	5 9.6%	21 40.4%	12 23.1%	6 11.5%	2 3.8%	3 5.8%	3 5.8%	52 100.0%	
	충청	1 1.9%	10 18.5%	11 20.4%	22 40.7%	9 16.7%	0 0.0%	1 1.9%	54 100.0%	
	호남	3 18.8%	5 31.2%	1 6.2%	2 12.5%	1 6.2%	1 6.2%	3 18.8%	16 100.0%	
	영남	3 10.7%	10 35.7%	5 17.9%	3 10.7%	5 17.9%	0 0.0%	2 7.1%	28 100.0%	
	강원	0 0.0%	0 0.0%	0 0.0%	4 100.0%	0 0.0%	0 0.0%	0 0.0%	4 100.0%	
전체		26 7.6%	119 34.9%	51 15.0%	87 25.5%	35 10.3%	4 1.2%	19 5.6%	341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1 4.8%	76 33.5%	31 13.7%	68 30.0%	34 15.0%	1 0.4%	6 2.6%	227 100.0%	41.547***
	대학원 대학교	15 13.2%	43 37.7%	20 17.5%	19 16.7%	1 0.9%	3 2.6%	13 11.4%	114 100.0%	
전체		26 7.6%	119 34.9%	51 15.0%	87 25.5%	35 10.3%	4 1.2%	19 5.6%	341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19 9.1%	89 42.6%	37 17.7%	48 23.0%	0 0.0%	2 1.0%	14 6.7%	209 100.0%	115.329***
	이공학 계열	6 5.9%	16 15.7%	10 9.8%	32 31.4%	35 34.3%	0 0.0%	3 2.9%	102 100.0%	
	예체능 계열	1 3.4%	14 48.3%	4 13.8%	6 20.7%	0 0.0%	2 6.9%	2 6.9%	29 100.0%	
전체		26 7.6%	119 35.0%	51 15.0%	86 25.3%	35 10.3%	4 1.2%	19 5.6%	340 100.0%	

주) \*<0.1 / \*\*<0.05 / \*\*\*<0.01

## 5) 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

### 가) 대학원 등록금 수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대학원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은 적절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55〉 대학원 등록금 수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9	2.7
아니다	43	12.8
보통	150	44.6
그런 편이다	93	27.7
매우 그렇다	41	12.2
합계	336	100.0
결측값	14(4.0%)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이 대부분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호남과 강원 지역은 “그런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원의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부분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학교의 경우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이 “그런편이다”라는 의견이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많았으며, 대학원대학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대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교보다는 대학원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많았으며, 이공학계열에서는 타 계열보다 “그런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많았다. 즉, 이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 비해서 전문대학원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6〉 대학원 등록금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대학원 등록금 수준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 2.6%	8 10.4%	30 39.0%	29 37.7%	8 10.4%	77 100.0%	5.044
	사립	7 2.7%	35 13.5%	120 46.3%	64 24.7%	33 12.7%	259 100.0%	
전체		9 2.7%	43 12.8%	150 44.6%	93 27.7%	41 12.2%	33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8 4.3%	25 13.4%	90 48.4%	53 28.5%	10 5.4%	186 100.0%	39.926**
	경기·인천	1 2.0%	8 15.7%	18 35.3%	8 15.7%	16 31.4%	51 100.0%	
	충청	0 0.0%	5 9.3%	27 50.0%	16 29.6%	6 11.1%	54 100.0%	
	호남	0 0.0%	1 6.2%	5 31.2%	7 43.8%	3 18.8%	16 100.0%	
	영남	0 0.0%	4 16.0%	9 36.0%	7 28.0%	5 20.0%	25 100.0%	
	강원	0 0.0%	0 0.0%	1 25.0%	2 50.0%	1 25.0%	4 100.0%	
전체		9 2.7%	43 12.8%	150 44.6%	93 27.7%	41 12.2%	336 100.0%	24.541***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 3.5%	31 13.7%	106 46.9%	67 29.6%	14 6.2%	226 100.0%	
	대학원대학교	1 0.9%	12 10.9%	44 40.0%	26 23.6%	27 24.5%	110 100.0%	
전체		9 2.7%	43 12.8%	150 44.6%	93 27.7%	41 12.2%	336 100.0%	13.87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 1.5%	22 10.7%	91 44.2%	57 27.7%	33 16.0%	206 100.0%	
	이공학계열	5 5.0%	17 17.0%	42 42.0%	30 30.0%	6 6.0%	100 100.0%	
	예체능계열	1 3.4%	3 10.3%	17 58.6%	6 20.7%	2 6.9%	29 100.0%	
전체		9 2.7%	42 12.5%	150 44.8%	93 27.8%	41 12.2%	335 100.0%	

주) \*<0.1 / \*\*<0.05 / \*\*\*<0.01

## 나) 장학금 제도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편이다”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3.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제도가 잘 구비되었는가에 대해 교수들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7〉 장학금 제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8	2.4
아니다	54	16.2
보통	78	23.4
그런 편이다	122	36.6
매우 그렇다	71	21.3
합계	333	100.0
결측값	17(4.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제도가 대부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호남과 영남지역에서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부분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대학교보다는 대학원대학교가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와 전공계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장학금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장학금 제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3%	15 19.5%	20 26.0%	27 35.1%	14 18.2%	77 100.0%	1.975
	사립	7 2.7%	39 15.2%	58 22.7%	95 37.1%	57 22.3%	256 100.0%	
전체		8 2.4%	54 16.2%	78 23.4%	122 36.6%	71 21.3%	33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 1.6%	31 16.8%	52 28.1%	75 40.5%	24 13.0%	185 100.0%	53.409***
	경기·인천	3 5.9%	9 17.6%	4 7.8%	14 27.5%	21 41.2%	51 100.0%	
	충청	0 0.0%	12 22.6%	12 22.6%	21 39.6%	8 15.1%	53 100.0%	
	호남	1 6.7%	2 13.3%	3 20.0%	2 13.3%	7 46.7%	15 100.0%	
	영남	1 4.0%	0 0.0%	6 24.0%	7 28.0%	11 44.0%	25 100.0%	
	강원	0 0.0%	0 0.0%	1 25.0%	3 75.0%	0 0.0%	4 100.0%	
전체		8 2.4%	54 16.2%	78 23.4%	122 36.6%	71 21.3%	333 100.0%	14.664**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 1.8%	39 17.3%	55 24.3%	92 40.7%	36 15.9%	226 100.0%	
	대학원대학교	4 3.7%	15 14.0%	23 21.5%	30 28.0%	35 32.7%	107 100.0%	
전체		8 2.4%	54 16.2%	78 23.4%	122 36.6%	71 21.3%	333 100.0%	3.03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 2.5%	31 15.3%	50 24.6%	74 36.5%	43 21.2%	203 100.0%	
	이공학계열	2 2.0%	20 20.0%	21 21.0%	35 35.0%	22 22.0%	100 100.0%	
	예체능계열	1 3.4%	3 10.3%	7 24.1%	13 44.8%	5 17.2%	29 100.0%	
전체		8 2.4%	54 16.3%	78 23.5%	122 36.7%	70 21.1%	332 100.0%	

주) \*<0.1 / \*\*<0.05 / \*\*\*<0.01

#### 다) 전용 공간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용 공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편이다”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7.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전용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교수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9〉 전용 공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20	6.0
아니다	66	19.8
보통	93	27.8
그런 편이다	103	30.8
매우 그렇다	52	15.6
합계	334	100.0
결측값	16(4.6%)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전용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인천과 영남지역에서 전용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한 반면에 서울, 충청, 호남, 강원 지역에서는 전용 공간이 보통이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에서는 예체능계열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보다는 전용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0〉 전용 공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용 공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9 11.8%	18 23.7%	22 28.9%	20 26.3%	7 9.2%	76 100.0%	9.648**
	사립	11 4.3%	48 18.6%	71 27.5%	83 32.2%	45 17.4%	258 100.0%	
전체		20 6.0%	66 19.8%	93 27.8%	103 30.8%	52 15.6%	33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4 7.6%	40 21.6%	56 30.3%	50 27.0%	25 13.5%	185 100.0%	31.380*
	경기·인천	2 3.9%	6 11.8%	13 25.5%	15 29.4%	15 29.4%	51 100.0%	
	충청	3 5.7%	12 22.6%	15 28.3%	20 37.7%	3 5.7%	53 100.0%	
	호남	0 0.0%	4 25.0%	6 37.5%	5 31.2%	1 6.2%	16 100.0%	
	영남	1 4.0%	4 16.0%	2 8.0%	10 40.0%	8 32.0%	25 100.0%	
	강원	0 0.0%	0 0.0%	1 25.0%	3 75.0%	0 0.0%	4 100.0%	
전체		20 6.0%	66 19.8%	93 27.8%	103 30.8%	52 15.6%	334 100.0%	6.031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7 7.6%	48 21.4%	57 25.4%	70 31.2%	32 14.3%	224 100.0%	
	대학원대학교	3 2.7%	18 16.4%	36 32.7%	33 30.0%	20 18.2%	110 100.0%	
전체		20 6.0%	66 19.8%	93 27.8%	103 30.8%	52 15.6%	334 100.0%	16.33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 2.9%	39 19.0%	63 30.7%	62 30.2%	35 17.1%	205 100.0%	
	이공학계열	12 12.1%	22 22.2%	26 26.3%	28 28.3%	11 11.1%	99 100.0%	
	예체능계열	2 6.9%	5 17.2%	4 13.8%	13 44.8%	5 17.2%	29 100.0%	
전체		20 6.0%	66 19.8%	93 27.9%	103 30.9%	51 15.3%	333 100.0%	

주) \*<0.1 / \*\*<0.05 / \*\*\*<0.01

## 라) 멀티미디어 기자재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유수준은 보통이상으로 교수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1〉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9	2.7
아니다	39	11.7
보통	105	31.4
그런 편이다	129	38.6
매우 그렇다	52	15.6
합계	334	100.0
결측값	16(4.6%)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잘 구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유형, 전공계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멀티미디어 기자재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 5.2%	15 19.5%	26 33.8%	23 29.9%	9 11.7%	77 100.0%	10.666**
	사립	5 1.9%	24 9.3%	79 30.7%	106 41.2%	43 16.7%	257 100.0%	
전체		9 2.7%	39 11.7%	105 31.4%	129 38.6%	52 15.6%	33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5 2.7%	20 10.9%	63 34.2%	73 39.7%	23 12.5%	184 100.0%	26.785
	경기·인천	1 2.0%	7 13.7%	14 27.5%	18 35.3%	11 21.6%	51 100.0%	
	충청	3 5.6%	5 9.3%	15 27.8%	23 42.6%	8 14.8%	54 100.0%	
	호남	0 0.0%	4 25.0%	7 43.8%	5 31.2%	0 0.0%	16 100.0%	
	영남	0 0.0%	2 8.0%	4 16.0%	9 36.0%	10 40.0%	25 100.0%	
	강원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전체		9 2.7%	39 11.7%	105 31.4%	129 38.6%	52 15.6%	334 100.0%	5.885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7 3.1%	23 10.2%	65 28.8%	91 40.3%	40 17.7%	226 100.0%	
	대학원대학교	2 1.9%	16 14.8%	40 37.0%	38 35.2%	12 11.1%	108 100.0%	
전체		9 2.7%	39 11.7%	105 31.4%	129 38.6%	52 15.6%	334 100.0%	8.51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 1.0%	23 11.3%	65 31.9%	82 40.2%	32 15.7%	204 100.0%	
	이공학계열	5 5.0%	14 14.0%	32 32.0%	36 36.0%	13 13.0%	100 100.0%	
	예체능계열	2 6.9%	2 6.9%	8 27.6%	11 37.9%	6 20.7%	29 100.0%	
전체		9 2.7%	39 11.7%	105 31.5%	129 38.7%	51 15.3%	333 100.0%	

주) \*<0.1 / \*\*<0.05 / \*\*\*<0.01

#### 마) 행정지원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편이다”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행정지원 수준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교수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3〉 행정지원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21	6.3
아니다	45	13.6
보통	106	31.9
그런 편이다	115	34.6
매우 그렇다	45	13.6
합계	332	100.0
결측값	18(5.1%)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행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행정지원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행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 행정지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행정지원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1 14.5%	16 21.1%	26 34.2%	17 22.4%	6 7.9%	76 100.0%	21.209***
	사립	10 3.9%	29 11.3%	80 31.2%	98 38.3%	39 15.2%	256 100.0%	
전체		21 6.3%	45 13.6%	106 31.9%	115 34.6%	45 13.6%	33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3 7.1%	26 14.2%	59 32.2%	62 33.9%	23 12.6%	183 100.0%	13.956
	경기·인천	2 3.9%	5 9.8%	13 25.5%	23 45.1%	8 15.7%	51 100.0%	
	충청	3 5.6%	6 11.1%	20 37.0%	17 31.5%	8 14.8%	54 100.0%	
	호남	2 12.5%	2 12.5%	7 43.8%	5 31.2%	0 0.0%	16 100.0%	
	영남	1 4.0%	5 20.0%	6 24.0%	7 28.0%	6 24.0%	25 100.0%	
	강원	0 0.0%	1 33.3%	1 33.3%	1 33.3%	0 0.0%	3 100.0%	
전체		21 6.3%	45 13.6%	106 31.9%	115 34.6%	45 13.6%	332 100.0%	2.2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5 6.7%	34 15.2%	68 30.5%	77 34.5%	29 13.0%	223 100.0%	
	대학원대학교	6 5.5%	11 10.1%	38 34.9%	38 34.9%	16 14.7%	109 100.0%	
전체		21 6.3%	45 13.6%	106 31.9%	115 34.6%	45 13.6%	332 100.0%	15.40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7 3.4%	23 11.3%	71 34.8%	75 36.8%	28 13.7%	204 100.0%	
	이공학계열	12 12.2%	14 14.3%	28 28.6%	31 31.6%	13 13.3%	98 100.0%	
	예체능계열	2 6.9%	8 27.6%	7 24.1%	9 31.0%	3 10.3%	29 100.0%	
전체		21 6.3%	45 13.6%	106 32.0%	115 34.7%	44 13.3%	331 100.0%	

주) \*<0.1 / \*\*<0.05 / \*\*\*<0.01

#### 바) 재정지원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4.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서 보통이하로 교수들은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5〉 재정지원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36	10.8
아니다	82	24.6
보통	111	33.2
그런 편이다	77	23.1
매우 그렇다	28	8.4
합계	334	100.0
결측값	16(4.6%)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보다는 국공립에서 재정지원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강원지역에서는 재정지원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재정지원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 반면에, 대학교의 경우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계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6〉 재정지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재정지원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3 16.9%	22 28.6%	28 36.4%	10 13.0%	4 5.2%	77 100.0%	10.026**
	사립	23 8.9%	60 23.3%	83 32.3%	67 26.1%	24 9.3%	257 100.0%	
전체		36 10.8%	82 24.6%	111 33.2%	77 23.1%	28 8.4%	33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8 9.8%	51 27.7%	64 34.8%	36 19.6%	15 8.2%	184 100.0%	29.756*
	경기·인천	6 11.8%	7 13.7%	15 29.4%	18 35.3%	5 9.8%	51 100.0%	
	충청	3 5.6%	13 24.1%	19 35.2%	17 31.5%	2 3.7%	54 100.0%	
	호남	3 18.8%	4 25.0%	6 37.5%	3 18.8%	0 0.0%	16 100.0%	
	영남	5 20.0%	5 20.0%	6 24.0%	3 12.0%	6 24.0%	25 100.0%	
	강원	1 25.0%	2 50.0%	1 25.0%	0 0.0%	0 0.0%	4 100.0%	
전체		36 10.8%	82 24.6%	111 33.2%	77 23.1%	28 8.4%	334 100.0%	7.952*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2 9.7%	61 27.0%	80 35.4%	49 21.7%	14 6.2%	226 100.0%	
	대학원대학교	14 13.0%	21 19.4%	31 28.7%	28 25.9%	14 13.0%	108 100.0%	
전체		36 10.8%	82 24.6%	111 33.2%	77 23.1%	28 8.4%	334 100.0%	10.09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9 9.3%	42 20.5%	75 36.6%	51 24.9%	18 8.8%	205 100.0%	
	이공학계열	13 13.1%	29 29.3%	26 26.3%	22 22.2%	9 9.1%	99 100.0%	
	예체능계열	4 13.8%	11 37.9%	9 31.0%	4 13.8%	1 3.4%	29 100.0%	
전체		36 10.8%	82 24.6%	110 33.0%	77 23.1%	28 8.4%	333 100.0%	

주) \*<0.1 / \*\*<0.05 / \*\*\*<0.01

## 6) 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사항

### 가)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4.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7〉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6	1.8
아니다	28	8.4
보통	129	38.6
그런 편이다	115	34.4
매우 그렇다	56	16.8
합계	334	100.0
결측값	16(4.6%)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충청과 호남지역에서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대학교에서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공계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8〉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문대학원 대한 평가제도는 도입 찬성 정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0 0.0%	9 11.7%	31 40.3%	31 40.3%	6 7.8%	77 100.0%	8.965*
	사립	6 2.3%	19 7.4%	98 38.1%	84 32.7%	50 19.5%	257 100.0%	
전체		6 1.8%	28 8.4%	129 38.6%	115 34.4%	56 16.8%	33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 2.2%	10 5.4%	71 38.6%	63 34.2%	36 19.6%	184 100.0%	30.214*
	경기·인천	1 2.0%	4 7.8%	24 47.1%	17 33.3%	5 9.8%	51 100.0%	
	충청	1 1.9%	11 20.4%	17 31.5%	19 35.2%	6 11.1%	54 100.0%	
	호남	0 0.0%	3 18.8%	8 50.0%	4 25.0%	1 6.2%	16 100.0%	
	영남	0 0.0%	0 0.0%	8 32.0%	9 36.0%	8 32.0%	25 100.0%	
	강원	0 0.0%	0 0.0%	1 25.0%	3 75.0%	0 0.0%	4 100.0%	
전체		6 1.8%	28 8.4%	129 38.6%	115 34.4%	56 16.8%	334 100.0%	8.966*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 1.8%	23 10.2%	85 37.8%	83 36.9%	30 13.3%	225 100.0%	
	대학원대학교	2 1.8%	5 4.6%	44 40.4%	32 29.4%	26 23.9%	109 100.0%	
전체		6 1.8%	28 8.4%	129 38.6%	115 34.4%	56 16.8%	334 100.0%	9.94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 2.9%	18 8.8%	83 40.7%	60 29.4%	37 18.1%	204 100.0%	
	이공학계열	0 0.0%	8 8.0%	36 36.0%	41 41.0%	15 15.0%	100 100.0%	
	예체능계열	0 0.0%	2 6.9%	10 34.5%	14 48.3%	3 10.3%	29 100.0%	
전체		6 1.8%	28 8.4%	129 38.7%	115 34.5%	55 16.5%	333 100.0%	

주) \*<0.1 / \*\*<0.05 / \*\*\*<0.01

## 나)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9〉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5	1.5
아니다	25	7.6
보통	100	30.3
그런 편이다	133	40.3
매우 그렇다	67	20.3
합계	330	100.0
결측값	20(5.7%)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0〉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 정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0 0.0%	2 2.7%	17 22.7%	34 45.3%	22 29.3%	75 100.0%	10.934**
	사립	5 2.0%	23 9.0%	83 32.5%	99 38.8%	45 17.6%	255 100.0%	
전체		5 1.5%	25 7.6%	100 30.3%	133 40.3%	67 20.3%	33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 1.6%	12 6.6%	53 29.0%	70 38.3%	45 24.6%	183 100.0%	26.038
	경기·인천	1 2.0%	7 14.0%	21 42.0%	16 32.0%	5 10.0%	50 100.0%	
	충청	0 0.0%	3 5.7%	20 37.7%	22 41.5%	8 15.1%	53 100.0%	
	호남	0 0.0%	1 6.2%	1 6.2%	11 68.8%	3 18.8%	16 100.0%	
	영남	1 4.2%	2 8.3%	5 20.8%	12 50.0%	4 16.7%	24 100.0%	
	강원	0 0.0%	0 0.0%	0 0.0%	2 50.0%	2 50.0%	4 100.0%	
전체		5 1.5%	25 7.6%	100 30.3%	133 40.3%	67 20.3%	330 100.0%	.49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 1.4%	17 7.7%	65 29.3%	91 41.0%	46 20.7%	222 100.0%	
	대학원대학교	2 1.9%	8 7.4%	35 32.4%	42 38.9%	21 19.4%	108 100.0%	
전체		5 1.5%	25 7.6%	100 30.3%	133 40.3%	67 20.3%	330 100.0%	2.16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 1.5%	17 8.5%	62 30.8%	79 39.3%	40 19.9%	201 100.0%	
	이공학계열	1 1.0%	6 6.0%	29 29.0%	44 44.0%	20 20.0%	100 100.0%	
	예체능계열	1 3.6%	2 7.1%	9 32.1%	10 35.7%	6 21.4%	28 100.0%	
전체		5 1.5%	25 7.6%	100 30.4%	133 40.4%	66 20.1%	329 100.0%	

주) \*<0.1 / \*\*<0.05 / \*\*\*<0.01

#### 다)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4.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적실성에 대한 평가를 다소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IV-71〉 교육과정의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2	3.6
아니다	45	13.6
보통	123	37.2
그런 편이다	114	34.4
매우 그렇다	37	11.2
합계	331	100.0
결측값	19(5.4%)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유형별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2〉 교육과정의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 정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3%	12 15.6%	26 33.8%	31 40.3%	7 9.1%	77 100.0%	3.479
	사립	11 4.3%	33 13.0%	97 38.2%	83 32.7%	30 11.8%	254 100.0%	
전체		12 3.6%	45 13.6%	123 37.2%	114 34.4%	37 11.2%	33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 3.9%	30 16.6%	62 34.3%	57 31.5%	25 13.8%	181 100.0%	27.084
	경기·인천	1 2.0%	7 13.7%	27 52.9%	13 25.5%	3 5.9%	51 100.0%	
	충청	3 5.6%	7 13.0%	21 38.9%	19 35.2%	4 7.4%	54 100.0%	
	호남	0 0.0%	1 6.2%	3 18.8%	11 68.8%	1 6.2%	16 100.0%	
	영남	1 4.0%	0 0.0%	9 36.0%	11 44.0%	4 16.0%	25 100.0%	
	강원	0 0.0%	0 0.0%	1 25.0%	3 75.0%	0 0.0%	4 100.0%	
전체		12 3.6%	45 13.6%	123 37.2%	114 34.4%	37 11.2%	331 100.0%	7.05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1 4.9%	32 14.3%	81 36.2%	80 35.7%	20 8.9%	224 100.0%	
	대학원대학교	1 0.9%	13 12.1%	42 39.3%	34 31.8%	17 15.9%	107 100.0%	
전체		12 3.6%	45 13.6%	123 37.2%	114 34.4%	37 11.2%	331 100.0%	7.10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7 3.5%	30 14.9%	74 36.8%	63 31.3%	27 13.4%	201 100.0%	
	이공학계열	4 4.0%	13 13.0%	38 38.0%	37 37.0%	8 8.0%	100 100.0%	
	예체능계열	1 3.4%	2 6.9%	11 37.9%	14 48.3%	1 3.4%	29 100.0%	
전체		12 3.6%	45 13.6%	123 37.3%	114 34.5%	36 10.9%	330 100.0%	

주) \*<0.1 / \*\*<0.05 / \*\*\*<0.01

#### 라)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 포함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찬성하는 입장이 약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3〉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30	9.0
아니다	83	24.9
보통	103	30.8
그런 편이다	90	26.9
매우 그렇다	28	8.4
합계	334	100.0
결측값	16(4.6%)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유형별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4〉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졸업생의 취업률을 평가지표 포함 정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3.9%	19 24.7%	24 31.2%	23 29.9%	8 10.4%	77 100.0%	3.685
	사립	27 10.5%	64 24.9%	79 30.7%	67 26.1%	20 7.8%	257 100.0%	
전체		30 9.0%	83 24.9%	103 30.8%	90 26.9%	28 8.4%	33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7 9.2%	40 21.7%	60 32.6%	50 27.2%	17 9.2%	184 100.0%	11.321
	경기·인천	6 11.8%	18 35.3%	12 23.5%	12 23.5%	3 5.9%	51 100.0%	
	충청	5 9.3%	13 24.1%	16 29.6%	16 29.6%	4 7.4%	54 100.0%	
	호남	0 0.0%	5 31.2%	5 31.2%	5 31.2%	1 6.2%	16 100.0%	
	영남	2 8.0%	7 28.0%	8 32.0%	5 20.0%	3 12.0%	25 100.0%	
	강원	0 0.0%	0 0.0%	2 50.0%	2 50.0%	0 0.0%	4 100.0%	
전체		30 9.0%	83 24.9%	103 30.8%	90 26.9%	28 8.4%	334 100.0%	2.38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0 8.9%	56 24.9%	68 30.2%	65 28.9%	16 7.1%	225 100.0%	
	대학원대학교	10 9.2%	27 24.8%	35 32.1%	25 22.9%	12 11.0%	109 100.0%	
전체		30 9.0%	83 24.9%	103 30.8%	90 26.9%	28 8.4%	334 100.0%	9.28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2 10.8%	54 26.5%	58 28.4%	53 26.0%	17 8.3%	204 100.0%	
	이공학계열	6 6.0%	18 18.0%	36 36.0%	32 32.0%	8 8.0%	100 100.0%	
	예체능계열	2 6.9%	11 37.9%	9 31.0%	5 17.2%	2 6.9%	29 100.0%	
전체		30 9.0%	83 24.9%	103 30.9%	90 27.0%	27 8.1%	333 100.0%	

주) \*<0.1 / \*\*<0.05 / \*\*\*<0.01

#### 마)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7.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전문학위(석사, 박사)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75〉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24	7.2
아니다	62	18.6
보통	90	27.0
그런 편이다	100	30.0
매우 그렇다	57	17.1
합계	333	100.0
결측값	17(4.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 보다는 예체능계열에서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유형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6〉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문학위(석사, 박사)만 수여해야 하는지 여부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8 10.4%	21 27.3%	16 20.8%	23 29.9%	9 11.7%	77 100.0%	8.608*
	사립	16 6.2%	41 16.0%	74 28.9%	77 30.1%	48 18.8%	256 100.0%	
전체		24 7.2%	62 18.6%	90 27.0%	100 30.0%	57 17.1%	33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5 8.2%	33 18.0%	53 29.0%	48 26.2%	34 18.6%	183 100.0%	15.583
	경기·인천	3 5.9%	11 21.6%	11 21.6%	16 31.4%	10 19.6%	51 100.0%	
	충청	3 5.6%	7 13.0%	18 33.3%	20 37.0%	6 11.1%	54 100.0%	
	호남	1 6.2%	3 18.8%	2 12.5%	7 43.8%	3 18.8%	16 100.0%	
	영남	1 4.0%	6 24.0%	6 24.0%	8 32.0%	4 16.0%	25 100.0%	
	강원	1 25.0%	2 50.0%	0 0.0%	1 25.0%	0 0.0%	4 100.0%	
전체		24 7.2%	62 18.6%	90 27.0%	100 30.0%	57 17.1%	333 100.0%	1.598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8 8.0%	44 19.6%	59 26.3%	67 29.9%	36 16.1%	224 100.0%	
	대학원대학교	6 5.5%	18 16.5%	31 28.4%	33 30.3%	21 19.3%	109 100.0%	
전체		24 7.2%	62 18.6%	90 27.0%	100 30.0%	57 17.1%	333 100.0%	14.67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3 6.4%	32 15.7%	63 30.9%	58 28.4%	38 18.6%	204 100.0%	
	이공학계열	10 10.1%	26 26.3%	21 21.2%	30 30.3%	12 12.1%	99 100.0%	
	예체능계열	0 0.0%	4 13.8%	6 20.7%	12 41.4%	7 24.1%	29 100.0%	
전체		23 6.9%	62 18.7%	90 27.1%	100 30.1%	57 17.2%	332 100.0%	

주) \*<0.1 / \*\*<0.05 / \*\*\*<0.01

#### 바)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77〉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44	13.2
아니다	66	19.8
보통	89	26.7
그런 편이다	94	28.2
매우 그렇다	40	12.0
합계	333	100.0
결측값	17(4.9%)	

교차분석결과, 사립이 국공립보다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에서는 예체능계열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보다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8〉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여부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4 18.2%	22 28.6%	18 23.4%	18 23.4%	5 6.5%	77 100.0%	9.537**
	사립	30 11.7%	44 17.2%	71 27.7%	76 29.7%	35 13.7%	256 100.0%	
전체		44 13.2%	66 19.8%	89 26.7%	94 28.2%	40 12.0%	33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4 13.0%	34 18.5%	54 29.3%	50 27.2%	22 12.0%	184 100.0%	26.074
	경기·인천	10 20.0%	11 22.0%	11 22.0%	12 24.0%	6 12.0%	50 100.0%	
	충청	5 9.3%	13 24.1%	19 35.2%	15 27.8%	2 3.7%	54 100.0%	
	호남	0 0.0%	4 25.0%	3 18.8%	6 37.5%	3 18.8%	16 100.0%	
	영남	4 16.0%	3 12.0%	1 4.0%	10 40.0%	7 28.0%	25 100.0%	
	강원	1 25.0%	1 25.0%	1 25.0%	1 25.0%	0 0.0%	4 100.0%	
전체		44 13.2%	66 19.8%	89 26.7%	94 28.2%	40 12.0%	333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8 17.0%	49 21.9%	53 23.7%	62 27.7%	22 9.8%	224 100.0%	13.960**
	대학원대학교	6 5.5%	17 15.6%	36 33.0%	32 29.4%	18 16.5%	109 100.0%	
전체		44 13.2%	66 19.8%	89 26.7%	94 28.2%	40 12.0%	333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8 8.8%	34 16.7%	61 29.9%	66 32.4%	25 12.3%	204 100.0%	24.502**
	이공학계열	23 23.0%	25 25.0%	23 23.0%	21 21.0%	8 8.0%	100 100.0%	
	예체능계열	2 7.1%	7 25.0%	5 17.9%	7 25.0%	7 25.0%	28 100.0%	
전체		43 13.0%	66 19.9%	89 26.8%	94 28.3%	40 12.0%	332 100.0%	

주) \*<0.1 / \*\*<0.05 / \*\*\*<0.01

#### 사)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0.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79〉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3	3.9
아니다	34	10.3
보통	101	30.6
그런 편이다	110	33.3
매우 그렇다	72	21.8
합계	330	100.0
결측값	20(5.7%)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 대학원의 소재지,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0〉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 2.6%	9 11.8%	26 34.2%	19 25.0%	20 26.3%	76 100.0%	4.047
	사립	11 4.3%	25 9.8%	75 29.5%	91 35.8%	52 20.5%	254 100.0%	
전체		13 3.9%	34 10.3%	101 30.6%	110 33.3%	72 21.8%	33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9 4.9%	17 9.3%	47 25.8%	64 35.2%	45 24.7%	182 100.0%	14.210
	경기·인천	1 2.0%	5 10.0%	21 42.0%	12 24.0%	11 22.0%	50 100.0%	
	충청	2 3.7%	8 14.8%	15 27.8%	21 38.9%	8 14.8%	54 100.0%	
	호남	1 6.2%	2 12.5%	6 37.5%	5 31.2%	2 12.5%	16 100.0%	
	영남	0 0.0%	2 8.3%	10 41.7%	7 29.2%	5 20.8%	24 100.0%	
	강원	0 0.0%	0 0.0%	2 50.0%	1 25.0%	1 25.0%	4 100.0%	
전체		13 3.9%	34 10.3%	101 30.6%	110 33.3%	72 21.8%	330 100.0%	9.005*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1 5.0%	29 13.1%	66 29.7%	67 30.2%	49 22.1%	222 100.0%	
	대학원대학교	2 1.9%	5 4.6%	35 32.4%	43 39.8%	23 21.3%	108 100.0%	
전체		13 3.9%	34 10.3%	101 30.6%	110 33.3%	72 21.8%	330 100.0%	4.089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0 4.9%	21 10.3%	66 32.5%	66 32.5%	40 19.7%	203 100.0%	
	이공학계열	3 3.1%	9 9.2%	27 27.6%	34 34.7%	25 25.5%	98 100.0%	
	예체능계열	0 0.0%	4 14.3%	8 28.6%	10 35.7%	6 21.4%	28 100.0%	
전체		13 4.0%	34 10.3%	101 30.7%	110 33.4%	71 21.6%	329 100.0%	

주) \*<0.1 / \*\*<0.05 / \*\*\*<0.01

#### 아)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6.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표 IV-81〉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87	26.3
아니다	128	38.7
보통	88	26.6
그런 편이다	20	6.0
매우 그렇다	8	2.4
합계	331	100.0
결측값	19(5.4%)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영남과 강원 지역의 경우 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 대학원의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2〉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4 31.2%	34 44.2%	16 20.8%	2 2.6%	1 1.3%	77 100.0%	5.454
	사립	63 24.8%	94 37.0%	72 28.3%	18 7.1%	7 2.8%	254 100.0%	
전체		87 26.3%	128 38.7%	88 26.6%	20 6.0%	8 2.4%	33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53 29.1%	71 39.0%	47 25.8%	7 3.8%	4 2.2%	182 100.0%	39.190**
	경기·인천	12 24.0%	23 46.0%	11 22.0%	3 6.0%	1 2.0%	50 100.0%	
	충청	16 29.6%	19 35.2%	17 31.5%	2 3.7%	0 0.0%	54 100.0%	
	호남	2 12.5%	8 50.0%	5 31.2%	1 6.2%	0 0.0%	16 100.0%	
	영남	3 12.0%	5 20.0%	8 32.0%	6 24.0%	3 12.0%	25 100.0%	
	강원	1 25.0%	2 50.0%	0 0.0%	1 25.0%	0 0.0%	4 100.0%	
전체		87 26.3%	128 38.7%	88 26.6%	20 6.0%	8 2.4%	331 100.0%	7.69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66 29.6%	81 36.3%	58 26.0%	15 6.7%	3 1.3%	223 100.0%	
	대학원대학교	21 19.4%	47 43.5%	30 27.8%	5 4.6%	5 4.6%	108 100.0%	
전체		87 26.3%	128 38.7%	88 26.6%	20 6.0%	8 2.4%	331 100.0%	7.04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2 25.6%	84 41.4%	51 25.1%	10 4.9%	6 3.0%	203 100.0%	
	이공학계열	28 28.3%	36 36.4%	28 28.3%	6 6.1%	1 1.0%	99 100.0%	
	예체능계열	6 21.4%	8 28.6%	9 32.1%	4 14.3%	1 3.6%	28 100.0%	
전체		86 26.1%	128 38.8%	88 26.7%	20 6.1%	8 2.4%	330 100.0%	

주) \*<0.1 / \*\*<0.05 / \*\*\*<0.01

#### 자)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다소 유보적이지만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국제화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알 수 있다.

〈표 IV-83〉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3	3.9
아니다	32	9.7
보통	116	35.0
그런 편이다	112	33.8
매우 그렇다	58	17.5
합계	331	100.0
결측값	19(5.4%)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에 국제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 대학원의 소재지,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4〉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 1.3%	6 7.8%	29 37.7%	30 39.0%	11 14.3%	77 100.0%	3.705
	사립	12 4.7%	26 10.2%	87 34.3%	82 32.3%	47 18.5%	254 100.0%	
전체		13 3.9%	32 9.7%	116 35.0%	112 33.8%	58 17.5%	33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9 4.9%	17 9.3%	64 35.2%	58 31.9%	34 18.7%	182 100.0%	19.594
	경기·인천	2 4.0%	2 4.0%	18 36.0%	17 34.0%	11 22.0%	50 100.0%	
	충청	2 3.7%	9 16.7%	20 37.0%	20 37.0%	3 5.6%	54 100.0%	
	호남	0 0.0%	2 12.5%	7 43.8%	5 31.2%	2 12.5%	16 100.0%	
	영남	0 0.0%	2 8.0%	5 20.0%	10 40.0%	8 32.0%	25 100.0%	
	강원	0 0.0%	0 0.0%	2 50.0%	2 50.0%	0 0.0%	4 100.0%	
전체		13 3.9%	32 9.7%	116 35.0%	112 33.8%	58 17.5%	331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9 4.0%	23 10.3%	82 36.8%	80 35.9%	29 13.0%	223 100.0%	9.697**
	대학원대학교	4 3.7%	9 8.3%	34 31.5%	32 29.6%	29 26.9%	108 100.0%	
전체		13 3.9%	32 9.7%	116 35.0%	112 33.8%	58 17.5%	331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7 3.5%	21 10.4%	69 34.2%	64 31.7%	41 20.3%	202 100.0%	5.756
	이공학계열	5 5.0%	8 8.0%	38 38.0%	34 34.0%	15 15.0%	100 100.0%	
	예체능계열	1 3.6%	3 10.7%	9 32.1%	13 46.4%	2 7.1%	28 100.0%	
전체		13 3.9%	32 9.7%	116 35.2%	111 33.6%	58 17.6%	330 100.0%	

주) \*<0.1 / \*\*<0.05 / \*\*\*<0.01

#### 차)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 운영의 필요성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5.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다소 유보적이지만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표 IV-85〉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6	4.8
아니다	36	10.9
보통	131	39.6
그런 편이다	84	25.4
매우 그렇다	64	19.3
합계	331	100.0
결측값	19(5.4%)	

교차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유형별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소재지별,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6〉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분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으로만 운영해야하는 여부					전체	$\chi^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0 0.0%	11 14.5%	35 46.1%	16 21.1%	14 18.4%	76 100.0%	7.758
	사립	16 6.3%	25 9.8%	96 37.6%	68 26.7%	50 19.6%	255 100.0%	
전체		16 4.8%	36 10.9%	131 39.6%	84 25.4%	64 19.3%	33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0 5.5%	17 9.3%	68 37.4%	49 26.9%	38 20.9%	182 100.0%	15.230
	경기·인천	2 4.0%	5 10.0%	24 48.0%	8 16.0%	11 22.0%	50 100.0%	
	충청	2 3.7%	10 18.5%	19 35.2%	17 31.5%	6 11.1%	54 100.0%	
	호남	0 0.0%	2 12.5%	8 50.0%	4 25.0%	2 12.5%	16 100.0%	
	영남	2 8.0%	1 4.0%	11 44.0%	5 20.0%	6 24.0%	25 100.0%	
	강원	0 0.0%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전체		16 4.8%	36 10.9%	131 39.6%	84 25.4%	64 19.3%	331 100.0%	1.874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1 5.0%	23 10.4%	92 41.4%	52 23.4%	44 19.8%	222 100.0%	
	대학원대학교	5 4.6%	13 11.9%	39 35.8%	32 29.4%	20 18.3%	109 100.0%	
전체		16 4.8%	36 10.9%	131 39.6%	84 25.4%	64 19.3%	331 100.0%	5.31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0 4.9%	26 12.8%	78 38.4%	52 25.6%	37 18.2%	203 100.0%	
	이공학계열	3 3.1%	7 7.1%	44 44.9%	25 25.5%	19 19.4%	98 100.0%	
	예체능계열	2 6.9%	3 10.3%	9 31.0%	7 24.1%	8 27.6%	29 100.0%	
전체		15 4.5%	36 10.9%	131 39.7%	84 25.5%	64 19.4%	330 100.0%	

주) \*<0.1 / \*\*<0.05 / \*\*\*<0.01

## 다. 대학원생의 전문대학원 인식 및 만족도 평가

### 1) 전문대학원의 전반적 사항

#### 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에게 소속 전문대학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87〉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7	1.4
그렇지 않다	80	6.7
보통이다	247	20.8
그렇다	506	42.6
매우 그렇다	339	28.5
합계	1189	100.0
결측값	36(2.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충청과 호남지역에서는 전문대학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많았다. 한편, 대학원 설립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8〉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 1.4%	28 9.9%	69 24.5%	116 41.1%	65 23.0%	282 100.0%	12.074**
	사립	13 1.4%	52 5.7%	178 19.6%	389 42.9%	274 30.2%	906 100.0%	
	전체	17 1.4%	80 6.7%	247 20.8%	505 42.5%	339 28.5%	1188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1 1.6%	52 7.5%	168 24.1%	290 41.6%	176 25.3%	697 100.0%	46.982***
	경기·인천	1 0.7%	13 8.7%	28 18.8%	65 43.6%	42 28.2%	149 100.0%	
	충청	1 0.5%	3 1.6%	26 13.9%	81 43.3%	76 40.6%	187 100.0%	
	호남	0 0.0%	2 3.1%	6 9.4%	34 53.1%	22 34.4%	64 100.0%	
	영남	4 4.5%	8 9.1%	18 20.5%	35 39.8%	23 26.1%	88 100.0%	
	전체	17 1.4%	78 6.6%	246 20.8%	505 42.6%	339 28.6%	1185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1 1.8%	42 7.1%	137 23.0%	251 42.2%	154 25.9%	595 100.0%	7.313
	대학원대학교	6 1.0%	38 6.4%	110 18.5%	255 43.0%	184 31.0%	593 100.0%	
	전체	17 1.4%	80 6.7%	247 20.8%	506 42.6%	338 28.5%	1188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7 1.0%	35 5.1%	128 18.7%	291 42.4%	225 32.8%	686 100.0%	42.142***
	이공학계열	6 1.7%	25 7.3%	72 21.0%	146 42.6%	94 27.4%	343 100.0%	
	예체능계열	4 2.5%	20 12.7%	47 29.9%	68 43.3%	18 11.5%	157 100.0%	
	전체	17 1.4%	80 6.7%	247 20.8%	505 42.6%	337 28.4%	1186 100.0%	

주) \*<0.1 / \*\*<0.05 / \*\*\*<0.01

## 나)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에게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교육수준에 대해서 비교한 설문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일반대학원 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9〉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2	1.9
그렇지 않다	82	6.9
보통이다	262	22.0
그렇다	513	43.1
매우 그렇다	310	26.1
합계	1189	100.0
결측값	36(2.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이 나은 것으로 평가한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유형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0〉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일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7 2.5%	24 8.5%	77 27.2%	123 43.5%	52 18.4%	283 100.0%	14.925**
	사립	15 1.7%	58 6.4%	185 20.4%	390 43.1%	257 28.4%	905 100.0%	
	전체	22 1.9%	82 6.9%	262 22.1%	513 43.2%	309 26.0%	1188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3 1.9%	55 7.9%	166 23.9%	279 40.1%	182 26.2%	695 100.0%	23.215
	경기·인천	5 3.3%	10 6.7%	35 23.3%	67 44.7%	33 22.0%	150 100.0%	
	충청	2 1.1%	10 5.3%	36 19.1%	95 50.5%	45 23.9%	188 100.0%	
	호남	0 0.0%	2 3.1%	6 9.4%	34 53.1%	22 34.4%	64 100.0%	
	영남	2 2.3%	4 4.5%	18 20.5%	37 42.0%	27 30.7%	88 100.0%	
전체		22 1.9%	81 6.8%	261 22.0%	512 43.2%	309 26.1%	1185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1 1.8%	47 7.9%	131 22.0%	254 42.6%	153 25.7%	596 100.0%	1.821
	대학원대학교	11 1.9%	35 5.9%	131 22.1%	259 43.8%	156 26.4%	592 100.0%	
	전체	22 1.9%	82 6.9%	262 22.1%	513 43.2%	309 26.0%	1188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9 1.3%	39 5.7%	125 18.2%	308 45.0%	204 29.8%	685 100.0%	28.292***
	이공학계열	9 2.6%	28 8.2%	90 26.2%	144 42.0%	72 21.0%	343 100.0%	
	예체능계열	4 2.5%	15 9.5%	47 29.7%	59 37.3%	33 20.9%	158 100.0%	
전체		22 1.9%	82 6.9%	262 22.1%	511 43.1%	309 26.1%	1186 100.0%	

주) \* $<0.1$  / \*\* $<0.05$  / \*\*\* $<0.01$

#### 다)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에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설문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특수대학원 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1〉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7	1.4
그렇지 않다	61	5.1
보통이다	293	24.6
그렇다	500	42.1
매우 그렇다	318	26.7
합계	1189	100.0
결측값	36(2.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대학원 설립주체별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특수대학원과 비교해서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유형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2〉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특수대학원과 비교한 교육수준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5 1.8%	24 8.5%	89 31.6%	111 39.4%	53 18.8%	282 100.0%	24.986***
	사립	12 1.3%	37 4.1%	204 22.5%	387 42.8%	265 29.3%	905 100.0%	
전체		17 1.4%	61 5.1%	293 24.7%	498 42.0%	318 26.8%	1187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0 1.4%	39 5.6%	164 23.6%	282 40.6%	200 28.8%	695 100.0%	19.824
	경기·인천	4 2.7%	8 5.3%	47 31.3%	62 41.3%	29 19.3%	150 100.0%	
	충청	1 0.5%	8 4.3%	41 21.8%	92 48.9%	46 24.5%	188 100.0%	
	호남	0 0.0%	2 3.2%	14 22.2%	32 50.8%	15 23.8%	63 100.0%	
	영남	2 2.3%	3 3.4%	26 29.5%	31 35.2%	26 29.5%	88 100.0%	
전체		17 1.4%	60 5.1%	292 24.7%	499 42.1%	316 26.7%	1184 100.0%	3.52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7 1.2%	36 6.1%	145 24.4%	242 40.7%	165 27.7%	595 100.0%	
	대학원대학교	10 1.7%	25 4.2%	148 25.0%	257 43.4%	152 25.7%	592 100.0%	
전체		17 1.4%	61 5.1%	293 24.7%	499 42.0%	317 26.7%	1187 100.0%	32.22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 0.7%	22 3.2%	158 23.1%	294 43.0%	205 30.0%	684 100.0%	
	이공학계열	10 2.9%	21 6.1%	94 27.4%	139 40.5%	79 23.0%	343 100.0%	
	예체능계열	2 1.3%	17 10.8%	41 25.9%	66 41.8%	32 20.3%	158 100.0%	
전체		17 1.4%	60 5.1%	293 24.7%	499 42.1%	316 26.7%	1185 100.0%	

주) \*<0.1 / \*\*<0.05 / \*\*\*<0.01

## 2) 입학과정

### 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에게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면접”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3.8%로 많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면접과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93〉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필기시험점수	49	4.1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282	23.8
면접	641	54.0
각종 자격증 및 학업계획서	88	7.4
학부 성적	62	5.2
기타	65	5.5
합계	1187	100.0
결측값	38(3.1%)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호남, 영남, 강원지역에서는 면접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남지역에서는 학부 성적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이 다른 계열보다는 면접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에 대해서는 이공학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별, 대학원 설립유형별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4〉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전체	$\chi^2$		
		필기시험점수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면접	각종 자격증 및 학업계획서	학부 성적	기타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5 5.4%	73 26.1%	134 47.9%	22 7.9%	19 6.8%	17 6.1%	280 100.0%	6.836		
		사립	34 3.8%	208 23.0%	507 56.0%	66 7.3%	43 4.7%	48 5.3%		906 100.0%	
	전체		49 4.1%	281 23.7%	641 54.0%	88 7.4%	62 5.2%	65 5.5%		118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5 3.6%	190 27.3%	353 50.8%	63 9.1%	22 3.2%	42 6.0%		695 100.0%	109.356***
	경기·인천		9 6.0%	25 16.8%	91 61.1%	7 4.7%	7 4.7%	10 6.7%	149 100.0%		
		충청	3 1.6%	45 24.2%	115 61.8%	8 4.3%	6 3.2%	9 4.8%	186 100.0%		
	호남		9 14.1%	12 18.8%	24 37.5%	5 7.8%	14 21.9%	0 0.0%	64 100.0%		
		영남	2 2.3%	10 11.4%	56 63.6%	5 5.7%	12 13.6%	3 3.4%	88 100.0%		
	전체		48 4.1%	282 23.9%	639 54.1%	88 7.4%	61 5.2%	64 5.4%	1182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5 4.2%	160 26.9%	307 51.7%	44 7.4%	28 4.7%	30 5.1%	594 100.0%	
	대학원대학교			24 4.1%	121 20.5%	334 56.5%	44 7.4%	34 5.8%	34 5.8%	591 100.0%	
			전체	49 4.1%	281 23.7%	641 54.1%	88 7.4%	62 5.2%	64 5.4%	1185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5 6.6%	160 23.4%	364 53.3%	51 7.5%	34 5.0%	29 4.2%	683 100.0%	44.279***
		이공학계열	3 0.9%	92 26.9%	171 50.0%	28 8.2%	25 7.3%	23 6.7%	342 100.0%		
	예체능계열		1 0.6%	29 18.4%	105 66.5%	8 5.1%	3 1.9%	12 7.6%	158 100.0%		
		전체	49 4.1%	281 23.8%	640 54.1%	87 7.4%	62 5.2%	64 5.4%	1183 100.0%		

주) \*<0.1 / \*\*<0.05 / \*\*\*<0.01

## 나) 신입생의 특성

전문대학원 대학원생에게 신입생 특성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간제 대학생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37.6%로 많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들은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나 상당히 많은 시간제 대학원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95〉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445	37.6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517	43.7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하다	222	18.8
합계	1184	100.0
결측값	41(3.3%)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전일제 대학생이 많은 편이며, 사립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경기·인천,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부분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원대학교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한 곳이 더러 있었으며, 대학교에서는 대학원대학교보다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약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별로는 대부분 전일제 대학원생이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6〉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신입생의 특성			전체	$\chi^2$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93	142	46	281	6.995**
		33.1%	50.5%	16.4%	100.0%	
	사립	351	375	176	902	
		38.9%	41.6%	19.5%	100.0%	
전체		444	517	222	1183	
		37.5%	43.7%	18.8%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25	340	129	694	61.888***
		32.4%	49.0%	18.6%	100.0%	
	경기·인천	75	45	28	148	
		50.7%	30.4%	18.9%	100.0%	
	충청	82	60	45	187	
		43.9%	32.1%	24.1%	100.0%	
	호남	41	19	3	63	
		65.1%	30.2%	4.8%	100.0%	
	영남	22	50	15	87	
		25.3%	57.5%	17.2%	100.0%	
전체		445	514	220	1179	
		37.7%	43.6%	18.7%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35	264	94	593	6.280**
		39.6%	44.5%	15.9%	100.0%	
	대학원대학교	210	253	126	589	
		35.7%	43.0%	21.4%	100.0%	
전체		445	517	220	1182	
		37.6%	43.7%	18.6%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83	262	137	682	29.275***
		41.5%	38.4%	20.1%	100.0%	
	이공학계열	128	163	51	342	
		37.4%	47.7%	14.9%	100.0%	
	예체능계열	34	90	32	156	
		21.8%	57.7%	20.5%	100.0%	
전체		445	515	220	1180	
		37.7%	43.6%	18.6%	100.0%	

주) \*<0.1 / \*\*<0.05 / \*\*\*<0.01

#### 다) 입학전형방식

전문대학원 대학원생에게 입학전형방식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일반전형”이라는 응답이 8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특별전형”이라는 응답이 11.0%로 많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일반전형에 의해서 입학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표 IV-97〉 입학전형방식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일반전형	1038	87.7
특별전형	130	11.0
기타	16	1.4
합계	1184	100.0
결측값	41(3.3%)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생 집단에서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일반전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일반전형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호남지역에서는 특별전형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대부분 일반전형 비율이 많았으나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특별전형 비율이 타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8〉 입학전형방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입학전형방식			전체	$\chi^2$
		일반전형	특별전형	기타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35	44	1	280	10.723**
		83.9%	15.7%	0.4%	100.0%	
	사립	802	86	15	903	
		88.8%	9.5%	1.7%	100.0%	
전체		1037	130	16	1183	
		87.7%	11.0%	1.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630	53	9	692	25.994**
		91.0%	7.7%	1.3%	100.0%	
	경기·인천	130	17	1	148	
		87.8%	11.5%	0.7%	100.0%	
	충청	154	32	1	187	
		82.4%	17.1%	0.5%	100.0%	
	호남	50	13	1	64	
		78.1%	20.3%	1.6%	100.0%	
영남	71	15	2	88		
	80.7%	17.0%	2.3%	100.0%		
전체		1035	130	14	1179	
		87.8%	11.0%	1.2%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520	68	5	593	1.939
		87.7%	11.5%	0.8%	100.0%	
	대학원대학교	517	62	10	589	
		87.8%	10.5%	1.7%	100.0%	
전체		1037	130	15	1182	
		87.7%	11.0%	1.3%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86	88	7	681	8.153*
		86.0%	12.9%	1.0%	100.0%	
	이공학계열	308	29	4	341	
		90.3%	8.5%	1.2%	100.0%	
	예체능계열	141	13	4	158	
		89.2%	8.2%	2.5%	100.0%	
전체		1035	130	15	1180	
		87.7%	11.0%	1.3%	100.0%	

주) \*<0.1 / \*\*<0.05 / \*\*\*<0.01

## 라) 입학경쟁률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에게 신입생의 입학경쟁률에 대한 설문결과, “1:1-2:1 미만”이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1-3:1 미만”이라는 응답이 31.6%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전문대학원의 명성과 전공에 따라 경쟁률에 차이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전문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99〉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1:1 미만	105	8.9
1:1-2:1 미만	399	33.7
2:1-3:1 미만	374	31.6
4:1-5:1 미만	154	13.0
5:1 이상	152	12.8
합계	1184	100.0
결측값	41(3.3%)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호남지역은 2:1-3:1로 입학경쟁률이 높았으며, 경기·인천, 충청, 영남지역은 1:1-2:1 미만으로 입학경쟁률이 높지 않았다. 다음으로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인 경우 대부분 2:1-3:1 미만 이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대학원대학교는 1:1-2:1 미만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1:1-2:1 미만인 경우가 많았지만, 인문사회계열은 2:1-3:1 미만으로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0〉 입학경쟁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입학경쟁률					전체	$\chi^2$
		1:1 미만	1:1-2:1 미만	2:1-3:1 미만	4:1-5:1 미만	5:1 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0 7.2%	98 35.1%	93 33.3%	43 15.4%	25 9.0%	279 100.0%	7.713
		85 9.4%	300 33.2%	280 31.0%	111 12.3%	127 14.1%	903 100.0%	
	사립	85 9.4%	300 33.2%	280 31.0%	111 12.3%	127 14.1%	903 100.0%	
전체		105 8.9%	398 33.7%	373 31.6%	154 13.0%	152 12.9%	118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3 4.8%	189 27.3%	240 34.6%	122 17.6%	109 15.7%	693 100.0%	127.954***
	경기·인천	23 15.5%	72 48.6%	44 29.7%	6 4.1%	3 2.0%	148 100.0%	
	충청	27 14.5%	79 42.5%	41 22.0%	13 7.0%	26 14.0%	186 100.0%	
	호남	8 12.7%	13 20.6%	25 39.7%	11 17.5%	6 9.5%	63 100.0%	
	영남	13 14.8%	43 48.9%	23 26.1%	2 2.3%	7 8.0%	88 100.0%	
	전체	104 8.8%	396 33.6%	373 31.7%	154 13.1%	151 12.8%	1178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9 6.6%	179 30.2%	189 31.9%	95 16.0%	91 15.3%	593 100.0%	25.789***
	대학원대학교	66 11.2%	219 37.2%	184 31.3%	59 10.0%	60 10.2%	588 100.0%	
	전체	105 8.9%	398 33.7%	373 31.6%	154 13.0%	151 12.8%	1181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6 8.2%	201 29.6%	229 33.7%	92 13.5%	101 14.9%	679 100.0%	26.789**
	이공학계열	26 7.6%	130 38.0%	107 31.3%	44 12.9%	35 10.2%	342 100.0%	
	예체능계열	23 14.6%	67 42.4%	36 22.8%	18 11.4%	14 8.9%	158 100.0%	
	전체	105 8.9%	398 33.8%	372 31.6%	154 13.1%	150 12.7%	1179 100.0%	

주) \*<0.1 / \*\*<0.05 / \*\*\*<0.01

### 3) 교육과정

#### 가) 실습 강의 비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체로 적다”라는 응답이 29.5%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비추어보면,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실습 강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1〉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05	8.9
대체로 적다	347	29.5
보통이다	421	35.8
대체로 많다	218	18.5
매우 많다	85	7.2
합계	1176	100.0
결측값	49(4.0%)	

교차분석결과,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 보다는 실습 강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2〉 실습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실습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적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7 9.7%	95 34.2%	93 33.5%	49 17.6%	14 5.0%	278 100.0%	6.047
	사립	78 8.7%	252 28.1%	328 36.6%	168 18.7%	71 7.9%	897 100.0%	
전체		105 8.9%	347 29.5%	421 35.8%	217 18.5%	85 7.2%	117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63 9.1%	212 30.6%	236 34.1%	128 18.5%	54 7.8%	693 100.0%	22.080
	경기·인천	19 13.1%	53 36.6%	42 29.0%	25 17.2%	6 4.1%	145 100.0%	
	충청	12 6.5%	43 23.2%	78 42.2%	36 19.5%	16 8.6%	185 100.0%	
	호남	5 8.2%	17 27.9%	26 42.6%	11 18.0%	2 3.3%	61 100.0%	
	영남	6 6.9%	21 24.1%	38 43.7%	17 19.5%	5 5.7%	87 100.0%	
전체		105 9.0%	346 29.5%	420 35.9%	217 18.5%	83 7.1%	1171 100.0%	6.38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60 10.2%	182 30.8%	193 32.7%	114 19.3%	42 7.1%	591 100.0%	
	대학원대학교	45 7.7%	165 28.3%	228 39.1%	103 17.7%	42 7.2%	583 100.0%	
전체		105 8.9%	347 29.6%	421 35.9%	217 18.5%	84 7.2%	1174 100.0%	50.30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6 9.7%	221 32.5%	258 37.9%	105 15.4%	31 4.6%	681 100.0%	
	이공학계열	34 10.1%	98 29.1%	107 31.8%	67 19.9%	31 9.2%	337 100.0%	
	예체능계열	5 3.2%	28 18.2%	54 35.1%	45 29.2%	22 14.3%	154 100.0%	
전체		105 9.0%	347 29.6%	419 35.8%	217 18.5%	84 7.2%	1172 100.0%	

주) \*<0.1 / \*\*<0.05 / \*\*\*<0.01

## 나)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한 결과, “없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개”라고 응답한 의견이 17.1%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편이거나 있어도 1~2개 프로그램만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03〉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724	62.0
1개	200	17.1
2개	145	12.4
3개	43	3.7
4개	11	.9
5개 이상	45	3.9
합계	1168	100.0
결측값	57(4.7%)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외국 대학원과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외국 대학원과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4〉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chi^2$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94	27	28	13	3	12	277	18.267**
		70.0%	9.7%	10.1%	4.7%	1.1%	4.3%	100.0%	
	사립	529	173	117	30	8	33	890	
		59.4%	19.4%	13.1%	3.4%	0.9%	3.7%	100.0%	
전체		723	200	145	43	11	45	1167	
		62.0%	17.1%	12.4%	3.7%	0.9%	3.9%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21	102	97	28	10	31	689	49.743***
		61.1%	14.8%	14.1%	4.1%	1.5%	4.5%	100.0%	
	경기·인천	102	17	14	4	0	7	144	
		70.8%	11.8%	9.7%	2.8%	0.0%	4.9%	100.0%	
	충청	102	54	17	8	1	2	184	
		55.4%	29.3%	9.2%	4.3%	0.5%	1.1%	100.0%	
	호남	48	8	4	0	0	0	60	
		80.0%	13.3%	6.7%	0.0%	0.0%	0.0%	100.0%	
영남	49	18	13	3	0	4	87		
	56.3%	20.7%	14.9%	3.4%	0.0%	4.6%	100.0%		
전체		722	199	145	43	11	44	1164	
		62.0%	17.1%	12.5%	3.7%	0.9%	3.8%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58	101	74	23	8	23	587	2.644
		61.0%	17.2%	12.6%	3.9%	1.4%	3.9%	100.0%	
	대학원대학교	366	99	71	20	3	22	581	
		63.0%	17.0%	12.2%	3.4%	0.5%	3.8%	100.0%	
전체		724	200	145	43	11	45	1168	
		62.0%	17.1%	12.4%	3.7%	0.9%	3.9%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98	123	84	29	9	34	677	21.171**
		58.8%	18.2%	12.4%	4.3%	1.3%	5.0%	100.0%	
	이공학계열	213	55	50	11	2	6	337	
		63.2%	16.3%	14.8%	3.3%	0.6%	1.8%	100.0%	
	예체능계열	110	22	11	3	0	5	151	
		72.8%	14.6%	7.3%	2.0%	0.0%	3.3%	100.0%	
전체		721	200	145	43	11	45	1165	
		61.9%	17.2%	12.4%	3.7%	0.9%	3.9%	100.0%	

주) \*<0.1 / \*\*<0.05 / \*\*\*<0.01

#### 다)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유보적인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5〉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334	28.6
대체로 낮다	263	22.6
보통이다	287	24.6
대체로 많다	117	10.0
매우 많다	165	14.2
합계	1166	100.0
결측값	59(4.8%)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사립에서는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 그리고 영남지역은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인 충청, 호남 등은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학교인 경우는 원어로 강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비율이 이공학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6〉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05 38.2%	59 21.5%	57 20.7%	24 8.7%	30 10.9%	275 100.0%	17.261**
	사립	228 25.6%	204 22.9%	230 25.9%	92 10.3%	135 15.2%	889 100.0%	
전체		333 28.6%	263 22.6%	287 24.7%	116 10.0%	165 14.2%	116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86 27.2%	159 23.2%	169 24.7%	71 10.4%	100 14.6%	685 100.0%	107.669***
	경기·인천	45 31.2%	37 25.7%	23 16.0%	13 9.0%	26 18.1%	144 100.0%	
	충청	65 35.1%	35 18.9%	71 38.4%	12 6.5%	2 1.1%	185 100.0%	
	호남	24 39.3%	17 27.9%	12 19.7%	5 8.2%	3 4.9%	61 100.0%	
	영남	14 16.5%	14 16.5%	11 12.9%	13 15.3%	33 38.8%	85 100.0%	
전체		334 28.8%	262 22.6%	286 24.7%	114 9.8%	164 14.1%	1160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77 30.2%	138 23.5%	120 20.4%	57 9.7%	95 16.2%	587 100.0%	13.380**
	대학원대학교	157 27.2%	124 21.5%	167 28.9%	59 10.2%	70 12.1%	577 100.0%	
전체		334 28.7%	262 22.5%	287 24.7%	116 10.0%	165 14.2%	1164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88 27.9%	148 21.9%	170 25.2%	47 7.0%	122 18.1%	675 100.0%	51.005***
	이공학계열	82 24.6%	76 22.8%	90 27.0%	53 15.9%	32 9.6%	333 100.0%	
	예체능계열	63 41.2%	37 24.2%	27 17.6%	16 10.5%	10 6.5%	153 100.0%	
전체		333 28.7%	261 22.5%	287 24.7%	116 10.0%	164 14.1%	1161 100.0%	

주) \*<0.1 / \*\*<0.05 / \*\*\*<0.01

#### 라)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에 대해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많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5.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대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7〉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03	8.8
대체로 낮다	254	21.7
보통이다	429	36.6
대체로 많다	295	25.2
매우 많다	91	7.8
합계	1172	100.0
결측값	53(4.3%)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충청, 영남지역에서는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호남지역은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8〉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1 14.7%	72 25.9%	93 33.5%	53 19.1%	19 6.8%	278 100.0%	24.380***
	사립	62 6.9%	182 20.4%	336 37.6%	241 27.0%	72 8.1%	893 100.0%	
전체		103 8.8%	254 21.7%	429 36.6%	294 25.1%	91 7.8%	117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0 5.8%	136 19.7%	261 37.8%	193 27.9%	61 8.8%	691 100.0%	46.187***
	경기·인천	22 15.2%	31 21.4%	52 35.9%	27 18.6%	13 9.0%	145 100.0%	
	충청	21 11.4%	48 26.1%	54 29.3%	48 26.1%	13 7.1%	184 100.0%	
	호남	11 18.0%	19 31.1%	22 36.1%	8 13.1%	1 1.6%	61 100.0%	
	영남	8 9.2%	20 23.0%	38 43.7%	18 20.7%	3 3.4%	87 100.0%	
전체		102 8.7%	254 21.7%	427 36.6%	294 25.2%	91 7.8%	1168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57 9.7%	115 19.5%	217 36.8%	148 25.1%	52 8.8%	589 100.0%	5.330
	대학원대학교	46 7.9%	139 23.9%	212 36.4%	146 25.1%	39 6.7%	582 100.0%	
전체		103 8.8%	254 21.7%	429 36.6%	294 25.1%	91 7.8%	1171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2 9.1%	150 22.1%	254 37.4%	163 24.0%	50 7.4%	679 100.0%	5.681
	이공학계열	32 9.5%	66 19.6%	126 37.4%	86 25.5%	27 8.0%	337 100.0%	
	예체능계열	9 5.9%	37 24.2%	49 32.0%	44 28.8%	14 9.2%	153 100.0%	
전체		103 8.8%	253 21.6%	429 36.7%	293 25.1%	91 7.8%	1169 100.0%	

주) \*<0.1 / \*\*<0.05 / \*\*\*<0.01

#### 마)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낮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2.9%로 나타났다. 한편, 유보적 입장인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6.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09〉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607	52.0
대체로 낮다	267	22.9
보통이다	187	16.0
대체로 많다	58	5.0
매우 많다	48	4.1
합계	1167	100.0
결측값	58(4.7%)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설 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낮았지만, 영남의 경우 타 지역보다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0〉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외국인 교수의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84 67.2%	44 16.1%	36 13.1%	8 2.9%	2 0.7%	274 100.0%	38.096***
	사립	422 47.3%	223 25.0%	151 16.9%	50 5.6%	46 5.2%	892 100.0%	
전체		606 52.0%	267 22.9%	187 16.0%	58 5.0%	48 4.1%	1166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48 50.7%	170 24.7%	105 15.3%	34 4.9%	30 4.4%	687 100.0%	60.802***
	경기·인천	78 53.8%	30 20.7%	22 15.2%	10 6.9%	5 3.4%	145 100.0%	
	충청	110 59.5%	31 16.8%	39 21.1%	3 1.6%	2 1.1%	185 100.0%	
	호남	44 73.3%	7 11.7%	6 10.0%	3 5.0%	0 0.0%	60 100.0%	
	영남	26 30.2%	28 32.6%	14 16.3%	7 8.1%	11 12.8%	86 100.0%	
전체		606 52.1%	266 22.9%	186 16.0%	57 4.9%	48 4.1%	1163 100.0%	10.41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31 56.3%	118 20.1%	85 14.5%	31 5.3%	23 3.9%	588 100.0%	
	대학원대학교	276 47.7%	149 25.7%	102 17.6%	27 4.7%	25 4.3%	579 100.0%	
전체		607 52.0%	267 22.9%	187 16.0%	58 5.0%	48 4.1%	1167 100.0%	16.43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50 51.6%	140 20.6%	118 17.4%	35 5.2%	35 5.2%	678 100.0%	
	이공학계열	181 54.4%	79 23.7%	52 15.6%	13 3.9%	8 2.4%	333 100.0%	
	예체능계열	73 47.7%	48 31.4%	17 11.1%	10 6.5%	5 3.3%	153 100.0%	
전체		604 51.9%	267 22.9%	187 16.1%	58 5.0%	48 4.1%	1164 100.0%	

주) \*<0.1 / \*\*<0.05 / \*\*\*<0.01

## 바) 학제간 강의비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낮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4.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학제간 강의 비율이 보통이거나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IV-111〉 학제간 강의비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78	15.3
대체로 낮다	288	24.7
보통이다	437	37.5
대체로 많다	196	16.8
매우 많다	67	5.7
합계	1166	100.0
결측값	59(4.8%)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충청지역이 학제간 강의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인천, 호남, 영남지역은 보통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학제간 강의비율이 대학교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학제 간 강의 비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학제 간 강의 비율					전체	$\chi^2$
		없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다	매우 많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7 17.1%	66 24.0%	113 41.1%	33 12.0%	16 5.8%	275 100.0%	7.124
	사립	131 14.7%	222 24.9%	323 36.3%	163 18.3%	51 5.7%	890 100.0%	
	전체	178 15.3%	288 24.7%	436 37.4%	196 16.8%	67 5.8%	116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04 15.1%	182 26.5%	258 37.6%	105 15.3%	38 5.5%	687 100.0%	35.372**
	경기·인천	25 17.5%	32 22.4%	58 40.6%	20 14.0%	8 5.6%	143 100.0%	
	충청	27 14.8%	36 19.8%	63 34.6%	50 27.5%	6 3.3%	182 100.0%	
	호남	14 22.6%	19 30.6%	19 30.6%	6 9.7%	4 6.5%	62 100.0%	
	영남	7 8.0%	19 21.8%	38 43.7%	13 14.9%	10 11.5%	87 100.0%	
전체		177 15.2%	288 24.8%	436 37.6%	194 16.7%	66 5.7%	1161 100.0%	9.416*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98 16.8%	149 25.5%	222 37.9%	80 13.7%	36 6.2%	585 100.0%	
	대학원대학교	80 13.8%	139 24.0%	215 37.1%	116 20.0%	30 5.2%	580 100.0%	
전체		178 15.3%	288 24.7%	437 37.5%	196 16.8%	66 5.7%	1165 100.0%	10.541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11 16.4%	165 24.4%	236 35.0%	121 17.9%	42 6.2%	675 100.0%	
	이공학계열	43 12.8%	83 24.8%	139 41.5%	49 14.6%	21 6.3%	335 100.0%	
	예체능계열	24 15.8%	40 26.3%	60 39.5%	25 16.4%	3 2.0%	152 100.0%	
전체		178 15.3%	288 24.8%	435 37.4%	195 16.8%	66 5.7%	1162 100.0%	

주) \*<0.1 / \*\*<0.05 / \*\*\*<0.01

#### 사)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예”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49.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요는 없는 대학원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V-113〉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예	589	51.0
아니오	566	49.0
합계	1155	100.0
결측값	70(5.7%)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인 경우 현장 실습과목 이수여부가 낮은 편이었으며, 사립에서는 현장 실습과목 이수하도록 규정된 전문대학원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 영남지역이 경기·인천과 충청 그리고 호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도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도록 하는 곳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대학교인 경우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도록 규정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현장 실습과목의 이수여부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14〉 현장 실습 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현장 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		전체	$\chi^2$
		예	아니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01 37.4%	169 62.6%	270 100.0%	26.213***
	사립	488 55.2%	396 44.8%	884 100.0%	
전체		589 51.0%	565 49.0%	115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12 45.9%	367 54.1%	679 100.0%	34.442***
	경기·인천	82 57.3%	61 42.7%	143 100.0%	
	충청	120 65.2%	64 34.8%	184 100.0%	
	호남	40 65.6%	21 34.4%	61 100.0%	
	영남	32 38.6%	51 61.4%	83 100.0%	
전체		586 51.0%	564 49.0%	1150 100.0%	21.959***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55 44.0%	324 56.0%	579 100.0%	
	대학원대학교	332 57.8%	242 42.2%	574 100.0%	
전체		587 50.9%	566 49.1%	1153 100.0%	36.52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90 58.3%	279 41.7%	669 100.0%	
	이공학계열	144 43.0%	191 57.0%	335 100.0%	
	예체능계열	53 35.8%	95 64.2%	148 100.0%	
전체		587 51.0%	565 49.0%	1152 100.0%	

주) \*<0.1 / \*\*<0.05 / \*\*\*<0.01

#### 아)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9.1%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인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0.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학원생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15〉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2	1.0
그렇지 않다	29	2.5
보통이다	182	15.7
그렇다	485	41.7
매우 그렇다	454	39.1
합계	1162	100.0
결측값	63(5.1%)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엄격하게 학사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 비해서 엄격하게 학사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소재지, 대학원의 설립유형 등 각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6〉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 1.5%	11 4.1%	57 21.0%	131 48.3%	68 25.1%	271 100.0%	32.092***
	사립	8 0.9%	18 2.0%	125 14.0%	353 39.7%	386 43.4%	890 100.0%	
전체		12 1.0%	29 2.5%	182 15.7%	484 41.7%	454 39.1%	116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6 0.9%	15 2.2%	108 15.8%	281 41.1%	274 40.1%	684 100.0%	20.725
	경기·인천	3 2.1%	5 3.5%	21 14.7%	67 46.9%	47 32.9%	143 100.0%	
	충청	2 1.1%	4 2.2%	27 14.8%	72 39.3%	78 42.6%	183 100.0%	
	호남	0 0.0%	1 1.6%	3 4.8%	30 48.4%	28 45.2%	62 100.0%	
	영남	1 1.2%	3 3.5%	22 25.9%	33 38.8%	26 30.6%	85 100.0%	
전체		12 1.0%	28 2.4%	181 15.6%	483 41.7%	453 39.2%	1157 100.0%	3.454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 1.4%	13 2.2%	89 15.3%	254 43.6%	218 37.5%	582 100.0%	
	대학원대학교	4 0.7%	15 2.6%	93 16.1%	230 39.8%	236 40.8%	578 100.0%	
전체		12 1.0%	28 2.4%	182 15.7%	484 41.7%	454 39.1%	1160 100.0%	76.39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 0.4%	10 1.5%	78 11.6%	264 39.2%	319 47.3%	674 100.0%	
	이공학계열	5 1.5%	12 3.6%	61 18.3%	146 43.8%	109 32.7%	333 100.0%	
	예체능계열	4 2.6%	6 4.0%	43 28.5%	74 49.0%	24 15.9%	151 100.0%	
전체		12 1.0%	28 2.4%	182 15.7%	484 41.8%	452 39.0%	1158 100.0%	

주) \*<0.1 / \*\*<0.05 / \*\*\*<0.01

#### 4) 학위논문 지도 및 강의평가

##### 가) 학위논문 지도시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회”라고 응답한 의견이 2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7〉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607	52.6
1주일에 1회	343	29.7
1주일에 2회 이상	154	13.4
거의 하지않는다	49	4.2
합계	1153	100.0
결측값	72(5.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호남과 영남지역은 1주일에 1회정도 학위논문 지도를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대학원대학교의 대학원생들보다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비중이 많았으며, 1주일에 1회정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보다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비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 설립주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8〉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학위논문 지도시간				전체	$\chi^2$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주일에 1회	1주일에 2회 이상	거의 하지않는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35 50.2%	89 33.1%	36 13.4%	9 3.3%	269 100.0%	2.463
		472 53.5%	253 28.7%	118 13.4%	40 4.5%	883 100.0%	
	사립						
전체		607 52.7%	342 29.7%	154 13.4%	49 4.3%	115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69 54.3%	200 29.4%	74 10.9%	37 5.4%	680 100.0%	53.170***
	경기·인천	91 64.1%	35 24.6%	10 7.0%	6 4.2%	142 100.0%	
	충청	77 42.5%	53 29.3%	48 26.5%	3 1.7%	181 100.0%	
	호남	32 51.6%	23 37.1%	7 11.3%	0 0.0%	62 100.0%	
	영남	36 43.4%	31 37.3%	14 16.9%	2 2.4%	83 100.0%	
	전체	605 52.7%	342 29.8%	153 13.3%	48 4.2%	1148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17 54.7%	186 32.1%	53 9.2%	23 4.0%	579 100.0%	18.667***
		290 50.6%	157 27.4%	101 17.6%	25 4.4%	573 100.0%	
	대학원대학교						
전체		607 52.7%	343 29.8%	154 13.4%	48 4.2%	1152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73 55.9%	177 26.5%	83 12.4%	34 5.1%	667 100.0%	14.904**
		167 49.9%	110 32.8%	49 14.6%	9 2.7%	335 100.0%	
	이공학계열						
	예체능계열	65 44.2%	56 38.1%	21 14.3%	5 3.4%	147 100.0%	
전체		605 52.7%	343 29.9%	153 13.3%	48 4.2%	1149 100.0%	

주) \*<0.1 / \*\*<0.05 / \*\*\*<0.01

## 나)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기 보다는 전공계열 특성상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19〉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49	4.2
그렇지 않다	238	20.6
보통이다	381	32.9
그렇다	351	30.3
매우 그렇다	138	11.9
합계	1157	100.0
결측값	68(5.6%)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지역은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가 보통수준이었으며, 경기·인천과 호남지역은 많이 요구하는 수준이었으며, 충청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실험실습을 요구하는 수준이 낮았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와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0〉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					전체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8 3.0%	44 16.2%	89 32.8%	91 33.6%	39 14.4%	271 100.0%	7.767
	사립	41 4.6%	194 21.9%	291 32.9%	260 29.4%	98 11.1%	884 100.0%	
	전체	49 4.2%	238 20.6%	380 32.9%	351 30.4%	137 11.9%	115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8 5.6%	133 19.5%	235 34.4%	203 29.7%	74 10.8%	683 100.0%	57.198***
	경기·인천	4 2.8%	23 16.3%	42 29.8%	53 37.6%	19 13.5%	141 100.0%	
	충청	4 2.2%	63 34.6%	43 23.6%	43 23.6%	29 15.9%	182 100.0%	
	호남	0 0.0%	5 8.3%	25 41.7%	27 45.0%	3 5.0%	60 100.0%	
	영남	2 2.4%	14 16.5%	35 41.2%	23 27.1%	11 12.9%	85 100.0%	
전체		48 4.2%	238 20.7%	380 33.0%	349 30.3%	136 11.8%	1151 100.0%	5.206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8 4.8%	115 19.8%	192 33.0%	167 28.7%	79 13.6%	581 100.0%	
	대학원대학교	21 3.7%	123 21.5%	188 32.8%	183 31.9%	58 10.1%	573 100.0%	
전체		49 4.2%	238 20.6%	380 32.9%	350 30.3%	137 11.9%	1154 100.0%	107.60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6 5.4%	180 26.9%	235 35.2%	173 25.9%	44 6.6%	668 100.0%	
	이공학계열	9 2.7%	32 9.6%	88 26.3%	130 38.8%	76 22.7%	335 100.0%	
	예체능계열	3 2.0%	25 16.8%	57 38.3%	47 31.5%	17 11.4%	149 100.0%	
전체		48 4.2%	237 20.6%	380 33.0%	350 30.4%	137 11.9%	1152 100.0%	

주) \*<0.1 / \*\*<0.05 / \*\*\*<0.01

#### 다)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으며, “예”라고 응답한 의견이 37.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1〉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예	430	37.8
아니오	708	62.2
합계	1138	100.0
결측값	87(7.1%)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중인 전문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지역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원의 비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2〉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여부		전체	$\chi^2$
		예	아니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13 42.3%	154 57.7%	267 100.0%	3.009*
	사립	317 36.4%	553 63.6%	870 100.0%	
	전체	430 37.8%	707 62.2%	1137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33 34.6%	441 65.4%	674 100.0%	8.619*
	경기·인천	53 38.4%	85 61.6%	138 100.0%	
	충청	77 43.3%	101 56.7%	178 100.0%	
	호남	26 44.1%	33 55.9%	59 100.0%	
	영남	39 45.9%	46 54.1%	85 100.0%	
	전체	428 37.7%	706 62.3%	1134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09 36.3%	366 63.7%	575 100.0%	1.022
	대학원대학교	221 39.3%	342 60.7%	563 100.0%	
	전체	430 37.8%	708 62.2%	1138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10 31.9%	448 68.1%	658 100.0%	27.169***
	이공학계열	161 48.9%	168 51.1%	329 100.0%	
	예체능계열	58 39.2%	90 60.8%	148 100.0%	
	전체	429 37.8%	706 62.2%	1135 100.0%	

주) \*<0.1 / \*\*<0.05 / \*\*\*<0.01

#### 라)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예”라는 응답이 89.3%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의견이 10.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부분 전문대학원에서는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3〉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예	1030	89.3
아니오	124	10.7
합계	1154	100.0
결측값	71(5.8%)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강의평가제도 운영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인천, 호남지역에서는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전문대학원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설립유형, 전공계열 등 각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강의평가제도 운영여부		전체	$\chi^2$
		예	아니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27 83.8%	44 16.2%	271 100.0%	11.091**
	사립	802 90.9%	80 9.1%	882 100.0%	
전체		1029 89.2%	124 10.8%	1153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647 94.9%	35 5.1%	682 100.0%	115.191***
	경기·인천	111 79.3%	29 20.7%	140 100.0%	
	충청	162 89.5%	19 10.5%	181 100.0%	
	호남	34 54.8%	28 45.2%	62 100.0%	
	영남	74 87.1%	11 12.9%	85 100.0%	
전체		1028 89.4%	122 10.6%	1150 100.0%	1.535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512 88.1%	69 11.9%	581 100.0%	
	대학원대학 교	517 90.4%	55 9.6%	572 100.0%	
전체		1029 89.2%	124 10.8%	1153 100.0%	2.429
전공계열	인문사회계 열	600 89.8%	68 10.2%	668 100.0%	
	이공학계열	291 87.1%	43 12.9%	334 100.0%	
	예체능계열	136 91.3%	13 8.7%	149 100.0%	
전체		1027 89.2%	124 10.8%	1151 100.0%	

주) \*<0.1 / \*\*<0.05 / \*\*\*<0.01

#### 마)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4-6명”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3명”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3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최소 1-3명이거나 많으면 4-6명 정도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25〉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1-3명	433	37.7
4-6명	473	41.2
7-10명	175	15.2
11-15명	45	3.9
16명 이상	23	2.0
합계	1149	100.0
결측값	76(6.2%)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교수 1인당 논문지도하는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인천, 호남, 영남지역은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1-3명이 많았으며, 서울과 충청지역은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4-6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계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6〉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전체	$\chi^2$
		1-3명	4-6명	7-10명	11-15명	16명 이상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88 32.6%	113 41.9%	49 18.1%	16 5.9%	4 1.5%	270 100.0%	8.475*
	사립	344 39.2%	360 41.0%	126 14.4%	29 3.3%	19 2.2%	878 100.0%	
전체		432 37.6%	473 41.2%	175 15.2%	45 3.9%	23 2.0%	1148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04 30.2%	293 43.3%	127 18.8%	34 5.0%	18 2.7%	676 100.0%	85.240***
	경기·인천	86 61.4%	39 27.9%	12 8.6%	2 1.4%	1 0.7%	140 100.0%	
	충청	64 35.4%	84 46.4%	28 15.5%	2 1.1%	3 1.7%	181 100.0%	
	호남	37 59.7%	21 33.9%	2 3.2%	2 3.2%	0 0.0%	62 100.0%	
	영남	42 49.4%	32 37.6%	6 7.1%	5 5.9%	0 0.0%	85 100.0%	
전체		433 37.8%	469 41.0%	175 15.3%	45 3.9%	22 1.9%	1144 100.0%	12.734**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99 34.6%	240 41.7%	106 18.4%	18 3.1%	12 2.1%	575 100.0%	
	대학원대학교	234 40.8%	233 40.7%	69 12.0%	27 4.7%	10 1.7%	573 100.0%	
전체		433 37.7%	473 41.2%	175 15.2%	45 3.9%	22 1.9%	1148 100.0%	4.83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50 37.7%	278 41.9%	103 15.5%	23 3.5%	10 1.5%	664 100.0%	
	이공학계열	120 35.9%	138 41.3%	51 15.3%	16 4.8%	9 2.7%	334 100.0%	
	예체능계열	63 42.9%	55 37.4%	20 13.6%	6 4.1%	3 2.0%	147 100.0%	
전체		433 37.8%	471 41.1%	174 15.2%	45 3.9%	22 1.9%	1145 100.0%	

주) \*<0.1 / \*\*<0.05 / \*\*\*<0.01

#### 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시험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라고 응답한 의견이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종합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7〉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	64	5.5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390	33.6
종합시험통과 및 일반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234	20.2
종합시험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259	22.3
종합시험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85	7.3
일정기간의 현장실습 대체	11	.9
기타	116	10.0
합계	1159	100.0
결측값	66(5.4%)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에서는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한 반면에, 사립인 경우 종합시험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하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호남지역은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충청과 영남지역은 종합시험 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을 주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교의 경우 종합시험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토록 규정한 곳이 다소 많았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학위청구논문 자격요건을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공학계열에서는 종합시험 및 일반학술지

논문 게재가 많았으며, 예체능계열에서는 종합시험 통과 뿐만 아니라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토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8〉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							전체	$\chi^2$
		특별한 자격요건 이 없다	종합시험 만 통과하면 된다	종합시험 통과 및 일반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종합시험 통과 및 중앙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종합시험 통과 및 국제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일정기간 의 현장실습 대체	기타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7 2.6%	106 39.3%	57 21.1%	58 21.5%	30 11.1%	0 0.0%	12 4.4%	270 100.0%	30.117***
	사립	57 6.4%	284 32.0%	176 19.8%	201 22.6%	55 6.2%	11 1.2%	104 11.7%	888 100.0%	
	전체	64 5.5%	390 33.7%	233 20.1%	259 22.4%	85 7.3%	11 0.9%	116 10.0%	1158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1 6.0%	245 35.9%	136 19.9%	149 21.8%	31 4.5%	5 0.7%	75 11.0%	682 100.0%	128.632***
	경기· 인천	15 10.6%	45 31.7%	37 26.1%	16 11.3%	7 4.9%	5 3.5%	17 12.0%	142 100.0%	
	충청	3 1.6%	45 24.5%	31 16.8%	65 35.3%	26 14.1%	1 0.5%	13 7.1%	184 100.0%	
	호남	3 4.8%	31 50.0%	20 32.3%	3 4.8%	3 4.8%	0 0.0%	2 3.2%	62 100.0%	
	영남	1 1.2%	23 27.4%	9 10.7%	26 31.0%	17 20.2%	0 0.0%	8 9.5%	84 100.0%	
	전체	63 5.5%	389 33.7%	233 20.2%	259 22.4%	84 7.3%	11 1.0%	115 10.0%	1154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0 5.1%	202 34.6%	106 18.2%	152 26.1%	35 6.0%	6 1.0%	52 8.9%	583 100.0%	14.375**
	대학원 대학교	34 5.9%	188 32.7%	128 22.3%	107 18.6%	50 8.7%	5 0.9%	63 11.0%	575 100.0%	
	전체	64 5.5%	390 33.7%	234 20.2%	259 22.4%	85 7.3%	11 0.9%	115 9.9%	1158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48 7.1%	275 40.9%	123 18.3%	133 19.8%	9 1.3%	6 0.9%	78 11.6%	672 100.0%	212.895***
	이공학 계열	12 3.6%	66 19.8%	88 26.3%	73 21.9%	74 22.2%	4 1.2%	17 5.1%	334 100.0%	
	예체능 계열	4 2.7%	49 32.9%	23 15.4%	51 34.2%	1 0.7%	1 0.7%	20 13.4%	149 100.0%	
	전체	64 5.5%	390 33.8%	234 20.3%	257 22.3%	84 7.3%	11 1.0%	115 10.0%	1155 100.0%	

주) \*<0.1 / \*\*<0.05 / \*\*\*<0.01

## 5) 교육여건

### 가) 대학원생의 만족도

대학원 교육에 대한 대학원생의 만족도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IV-129〉 대학원생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8	.7
전혀아니다	16	1.4
아니다	51	4.5
보통	244	21.3
그런 편이다	442	38.6
매우 그렇다	385	33.6
합계	1146	100.0
결측값	79(6.4%)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전문대학원의 만족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문대학원의 만족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지역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원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0〉 대학원생의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대학원생의 만족도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5 1.8%	4 1.5%	17 6.3%	72 26.6%	95 35.1%	78 28.8%	271 100.0%	17.487**
	사립	3 0.3%	12 1.4%	34 3.9%	172 19.7%	347 39.7%	306 35.0%	874 100.0%	
전체		8 0.7%	16 1.4%	51 4.5%	244 21.3%	442 38.6%	384 33.5%	114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 1.0%	9 1.3%	31 4.6%	159 23.5%	257 38.0%	213 31.5%	676 100.0%	46.054**
	경기·인천	0 0.0%	3 2.1%	9 6.4%	37 26.2%	51 36.2%	41 29.1%	141 100.0%	
	충청	0 0.0%	1 0.6%	5 2.8%	28 15.5%	61 33.7%	86 47.5%	181 100.0%	
	호남	1 1.6%	0 0.0%	3 4.9%	4 6.6%	36 59.0%	17 27.9%	61 100.0%	
	영남	0 0.0%	3 3.5%	3 3.5%	16 18.8%	36 42.4%	27 31.8%	85 100.0%	
전체		8 0.7%	16 1.4%	51 4.5%	244 21.3%	441 38.5%	384 33.6%	1144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 0.7%	10 1.7%	26 4.5%	127 21.9%	227 39.1%	186 32.1%	580 100.0%	1.934
	대학원대학교	4 0.7%	6 1.1%	25 4.4%	117 20.7%	215 38.1%	198 35.0%	565 100.0%	
전체		8 0.7%	16 1.4%	51 4.5%	244 21.3%	442 38.6%	384 33.5%	1145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 0.3%	3 0.5%	22 3.3%	126 18.9%	259 38.9%	253 38.0%	665 100.0%	52.698***
	이공학계열	6 1.8%	9 2.7%	15 4.5%	71 21.5%	141 42.6%	89 26.9%	331 100.0%	
	예체능계열	0 0.0%	4 2.7%	14 9.5%	46 31.3%	42 28.6%	41 27.9%	147 100.0%	
전체		8 0.7%	16 1.4%	51 4.5%	243 21.3%	442 38.7%	383 33.5%	1143 100.0%	

주) \*<0.1 / \*\*<0.05 / \*\*\*<0.01

## 나) 실무능력 향상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실무능력 향상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1〉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19	1.7
전혀아니다	10	.9
아니다	61	5.4
보통	207	18.2
그런 편이다	418	36.7
매우 그렇다	425	37.3
합계	1140	100.0
결측값	85(6.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지역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이공학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2〉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실무 능력 향상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9 3.4%	1 0.4%	22 8.2%	53 19.8%	84 31.3%	99 36.9%	268 100.0%	15.588**
	사립	10 1.1%	9 1.0%	39 4.5%	154 17.7%	334 38.3%	325 37.3%	871 100.0%	
전체		19 1.7%	10 0.9%	61 5.4%	207 18.2%	418 36.7%	424 37.2%	1139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7 2.5%	6 0.9%	43 6.4%	144 21.4%	250 37.1%	214 31.8%	674 100.0%	63.912***
	경기·인천	0 0.0%	2 1.4%	4 2.9%	29 20.7%	57 40.7%	48 34.3%	140 100.0%	
	충청	2 1.1%	0 0.0%	6 3.4%	14 7.8%	54 30.2%	103 57.5%	179 100.0%	
	호남	0 0.0%	0 0.0%	3 4.9%	6 9.8%	25 41.0%	27 44.3%	61 100.0%	
	영남	0 0.0%	2 2.4%	5 6.0%	14 16.7%	32 38.1%	31 36.9%	84 100.0%	
전체		19 1.7%	10 0.9%	61 5.4%	207 18.2%	418 36.7%	423 37.2%	1138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9 1.6%	4 0.7%	35 6.1%	102 17.7%	223 38.8%	202 35.1%	575 100.0%	4.773
	대학원대학교	10 1.8%	6 1.1%	26 4.6%	105 18.6%	194 34.4%	223 39.5%	564 100.0%	
전체		19 1.7%	10 0.9%	61 5.4%	207 18.2%	417 36.6%	425 37.3%	1139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0 1.5%	3 0.5%	39 5.9%	108 16.3%	243 36.7%	260 39.2%	663 100.0%	32.775***
	이공학계열	5 1.5%	5 1.5%	10 3.0%	58 17.6%	117 35.6%	134 40.7%	329 100.0%	
	예체능계열	4 2.8%	2 1.4%	12 8.3%	40 27.6%	58 40.0%	29 20.0%	145 100.0%	
전체		19 1.7%	10 0.9%	61 5.4%	206 18.1%	418 36.8%	423 37.2%	1137 100.0%	

주) \*<0.1 / \*\*<0.05 / \*\*\*<0.01

#### 다) 전문성 향상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성 향상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3〉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6	.5
전혀아니다	8	.7
아니다	34	3.0
보통	130	11.4
그런 편이다	439	38.5
매우 그렇다	524	45.9
합계	1141	100.0
결측값	84(6.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문성 향상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과 호남지역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 향상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와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4〉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전문성 향상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 1.1%	1 0.4%	9 3.3%	33 12.3%	107 39.8%	116 43.1%	269 100.0%	3.982
	사립	3 0.3%	7 0.8%	25 2.9%	97 11.1%	332 38.1%	407 46.7%	871 100.0%	
	전체	6 0.5%	8 0.7%	34 3.0%	130 11.4%	439 38.5%	523 45.9%	114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5 0.7%	6 0.9%	21 3.1%	87 12.9%	260 38.7%	293 43.6%	672 100.0%	33.042**
	경기·인천	0 0.0%	0 0.0%	6 4.3%	18 12.8%	58 41.1%	59 41.8%	141 100.0%	
	충청	1 0.6%	0 0.0%	1 0.6%	10 5.6%	63 35.0%	105 58.3%	180 100.0%	
	호남	0 0.0%	0 0.0%	1 1.6%	6 9.7%	22 35.5%	33 53.2%	62 100.0%	
	영남	0 0.0%	2 2.4%	5 6.0%	9 10.7%	35 41.7%	33 39.3%	84 100.0%	
전체		6 0.5%	8 0.7%	34 3.0%	130 11.4%	438 38.5%	523 45.9%	1139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 0.5%	2 0.3%	16 2.8%	71 12.3%	235 40.7%	251 43.4%	578 100.0%	6.264
	대학원대학교	3 0.5%	6 1.1%	18 3.2%	59 10.5%	203 36.1%	273 48.6%	562 100.0%	
	전체	6 0.5%	8 0.7%	34 3.0%	130 11.4%	438 38.4%	524 46.0%	1140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 0.3%	3 0.5%	18 2.7%	63 9.5%	256 38.5%	323 48.6%	665 100.0%	33.254***
	이공학계열	3 0.9%	3 0.9%	12 3.6%	32 9.7%	124 37.7%	155 47.1%	329 100.0%	
	예체능계열	1 0.7%	2 1.4%	4 2.8%	34 23.4%	58 40.0%	46 31.7%	145 100.0%	
	전체	6 0.5%	8 0.7%	34 3.0%	129 11.3%	438 38.5%	524 46.0%	1139 100.0%	

주) \*<0.1 / \*\*<0.05 / \*\*\*<0.01

## 라) 졸업생의 취업 정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의 취업 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4.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정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표 IV-3>에서 시간제 대학원생 즉 기취업자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표 IV-135> 졸업생의 취업 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96	8.4
전혀아니다	21	1.8
아니다	62	5.4
보통	260	22.8
그런 편이다	418	36.7
매우 그렇다	281	24.7
합계	1138	100.0
결측값	87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졸업생의 취업정도에 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졸업생 취업정도에 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졸업생의 취업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6〉 졸업생의 취업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졸업생의 취업 잘 되는지 여부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2 8.2%	5 1.9%	23 8.6%	70 26.2%	83 31.1%	64 24.0%	267 100.0%	11.252**
	사립	73 8.4%	16 1.8%	39 4.5%	190 21.8%	335 38.5%	217 24.9%	870 100.0%	
전체		95 8.4%	21 1.8%	62 5.5%	260 22.9%	418 36.8%	281 24.7%	1137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66 9.9%	12 1.8%	45 6.7%	165 24.6%	251 37.5%	131 19.6%	670 100.0%	59.262***
	경기·인천	8 5.7%	4 2.8%	5 3.5%	44 31.2%	49 34.8%	31 22.0%	141 100.0%	
	충청	15 8.4%	1 0.6%	7 3.9%	29 16.2%	62 34.6%	65 36.3%	179 100.0%	
	호남	4 6.5%	0 0.0%	2 3.2%	9 14.5%	20 32.3%	27 43.5%	62 100.0%	
	영남	3 3.6%	4 4.8%	3 3.6%	13 15.5%	35 41.7%	26 31.0%	84 100.0%	
전체		96 8.5%	21 1.8%	62 5.5%	260 22.9%	417 36.7%	280 24.6%	1136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6 8.0%	11 1.9%	32 5.6%	118 20.5%	227 39.5%	141 24.5%	575 100.0%	5.472
	대학원대학교	50 8.9%	10 1.8%	30 5.3%	142 25.2%	191 33.9%	140 24.9%	563 100.0%	
전체		96 8.4%	21 1.8%	62 5.4%	260 22.8%	418 36.7%	281 24.7%	1138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0 7.6%	6 0.9%	32 4.8%	136 20.6%	255 38.6%	181 27.4%	660 100.0%	65.879***
	이공학계열	29 8.8%	13 3.9%	9 2.7%	78 23.6%	114 34.4%	88 26.6%	331 100.0%	
	예체능계열	17 11.7%	2 1.4%	21 14.5%	45 31.0%	48 33.1%	12 8.3%	145 100.0%	
전체		96 8.5%	21 1.8%	62 5.5%	259 22.8%	417 36.7%	281 24.7%	1136 100.0%	

주) \*<0.1 / \*\*<0.05 / \*\*\*<0.01

#### 마)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8.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37〉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40	3.5
전혀아니다	5	.4
아니다	26	2.3
보통	144	12.8
그런 편이다	429	38.0
매우 그렇다	484	42.9
합계	1128	100.0
결측값	97(7.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충청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8〉 졸업생의 전공 관련 취업활동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졸업생이 대학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여부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9 3.4%	0 0.0%	12 4.5%	45 16.9%	103 38.6%	98 36.7%	267 100.0%	16.599**
	사립	31 3.6%	5 0.6%	14 1.6%	99 11.5%	325 37.8%	386 44.9%	860 100.0%	
전체		40 3.5%	5 0.4%	26 2.3%	144 12.8%	428 38.0%	484 42.9%	1127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32 4.8%	4 0.6%	16 2.4%	95 14.3%	261 39.2%	257 38.6%	665 100.0%	38.078**
	경기·인천	4 2.9%	0 0.0%	3 2.2%	23 16.5%	52 37.4%	57 41.0%	139 100.0%	
	충청	4 2.3%	0 0.0%	5 2.8%	10 5.6%	57 32.2%	101 57.1%	177 100.0%	
	호남	0 0.0%	0 0.0%	0 0.0%	6 9.8%	25 41.0%	30 49.2%	61 100.0%	
	영남	0 0.0%	1 1.2%	2 2.4%	10 11.9%	32 38.1%	39 46.4%	84 100.0%	
전체		40 3.6%	5 0.4%	26 2.3%	144 12.8%	427 37.9%	484 43.0%	1126 100.0%	2.813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7 3.0%	3 0.5%	13 2.3%	70 12.3%	228 40.0%	239 41.9%	570 100.0%	
	대학원대학교	23 4.1%	2 0.4%	13 2.3%	74 13.3%	201 36.1%	244 43.8%	557 100.0%	
전체		40 3.5%	5 0.4%	26 2.3%	144 12.8%	429 38.1%	483 42.9%	1127 100.0%	24.08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1 3.2%	3 0.5%	12 1.8%	69 10.6%	246 37.6%	303 46.3%	654 100.0%	
	이공학계열	14 4.3%	1 0.3%	9 2.8%	50 15.4%	112 34.5%	139 42.8%	325 100.0%	
	예체능계열	5 3.4%	1 0.7%	5 3.4%	25 17.1%	70 47.9%	40 27.4%	146 100.0%	
전체		40 3.6%	5 0.4%	26 2.3%	144 12.8%	428 38.0%	482 42.8%	1125 100.0%	

주) \*<0.1 / \*\*<0.05 / \*\*\*<0.01

#### 바)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3.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는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 수준이 보통이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9〉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의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106	9.3
전혀아니다	36	3.2
아니다	98	8.6
보통	264	23.1
그런 편이다	388	34.0
매우 그렇다	249	21.8
합계	1141	100.0
결측값	84(6.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졸업생의 사후지도가 많은 편이었으며, 특히 충청과 호남지역에서는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대부분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가 많은 편이었으며,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이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졸업생의 사후지도 수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와 대학원의 설립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0〉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의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31 11.5%	12 4.4%	29 10.7%	63 23.3%	80 29.6%	55 20.4%	270 100.0%	7.894
	사립	75 8.6%	24 2.8%	69 7.9%	201 23.1%	308 35.4%	193 22.2%	870 100.0%	
전체		106 9.3%	36 3.2%	98 8.6%	264 23.2%	388 34.0%	248 21.8%	114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72 10.7%	22 3.3%	68 10.1%	169 25.1%	219 32.6%	122 18.2%	672 100.0%	44.740**
	경기·인천	11 7.8%	6 4.3%	13 9.2%	28 19.9%	58 41.1%	25 17.7%	141 100.0%	
	충청	17 9.4%	5 2.8%	13 7.2%	32 17.8%	55 30.6%	58 32.2%	180 100.0%	
	호남	4 6.6%	0 0.0%	2 3.3%	17 27.9%	20 32.8%	18 29.5%	61 100.0%	
	영남	2 2.4%	3 3.5%	2 2.4%	18 21.2%	35 41.2%	25 29.4%	85 100.0%	
전체		106 9.3%	36 3.2%	98 8.6%	264 23.2%	387 34.0%	248 21.8%	1139 100.0%	1.375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54 9.3%	17 2.9%	49 8.5%	127 22.0%	202 34.9%	129 22.3%	578 100.0%	
	대학원대학교	52 9.3%	19 3.4%	49 8.7%	137 24.4%	185 32.9%	120 21.4%	562 100.0%	
전체		106 9.3%	36 3.2%	98 8.6%	264 23.2%	387 33.9%	249 21.8%	1140 100.0%	21.949**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0 9.1%	13 2.0%	62 9.4%	155 23.4%	223 33.7%	149 22.5%	662 100.0%	
	이공학계열	37 11.2%	14 4.2%	18 5.4%	74 22.4%	109 32.9%	79 23.9%	331 100.0%	
	예체능계열	9 6.2%	8 5.5%	17 11.7%	35 24.1%	56 38.6%	20 13.8%	145 100.0%	
전체		106 9.3%	35 3.1%	97 8.5%	264 23.2%	388 34.1%	248 21.8%	1138 100.0%	

주) \*<0.1 / \*\*<0.05 / \*\*\*<0.01

## 6) 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사항

### 가)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문대학원에서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수집단보다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1〉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64	5.6
전혀아니다	10	.9
아니다	26	2.3
보통	247	21.6
그런 편이다	418	36.5
매우 그렇다	380	33.2
합계	1145	100.0
결측값	80(6.5%)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충청지역에서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대학교에서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2〉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여부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5 1.8%	3 1.1%	8 3.0%	68 25.1%	99 36.5%	88 32.5%	271 100.0%	11.941**
	사립	59 6.8%	7 0.8%	18 2.1%	179 20.5%	318 36.4%	292 33.4%	873 100.0%	
전체		64 5.6%	10 0.9%	26 2.3%	247 21.6%	417 36.5%	380 33.2%	1144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9 2.8%	7 1.0%	13 1.9%	152 22.5%	254 37.6%	230 34.1%	675 100.0%	80.160***
	경기·인천	6 4.3%	1 0.7%	3 2.1%	30 21.3%	47 33.3%	54 38.3%	141 100.0%	
	충청	34 18.8%	0 0.0%	3 1.7%	35 19.3%	58 32.0%	51 28.2%	181 100.0%	
	호남	2 3.3%	1 1.6%	2 3.3%	11 18.0%	28 45.9%	17 27.9%	61 100.0%	
	영남	3 3.5%	1 1.2%	4 4.7%	19 22.4%	30 35.3%	28 32.9%	85 100.0%	
전체		64 5.6%	10 0.9%	25 2.2%	247 21.6%	417 36.5%	380 33.2%	1143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5 2.6%	6 1.0%	18 3.1%	114 19.7%	217 37.5%	209 36.1%	579 100.0%	27.871***
	대학원대학교	49 8.7%	4 0.7%	8 1.4%	132 23.4%	201 35.6%	171 30.3%	565 100.0%	
전체		64 5.6%	10 0.9%	26 2.3%	246 21.5%	418 36.5%	380 33.2%	1144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0 7.5%	7 1.1%	12 1.8%	116 17.5%	254 38.3%	225 33.9%	664 100.0%	31.926***
	이공학계열	11 3.3%	2 0.6%	12 3.6%	81 24.5%	115 34.7%	110 33.2%	331 100.0%	
	예체능계열	3 2.0%	1 0.7%	2 1.4%	48 32.7%	49 33.3%	44 29.9%	147 100.0%	
전체		64 5.6%	10 0.9%	26 2.3%	245 21.5%	418 36.6%	379 33.2%	1142 100.0%	

주) \*<0.1 / \*\*<0.05 / \*\*\*<0.01

## 나)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

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2.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3〉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44	3.8
전혀아니다	5	.4
아니다	23	2.0
보통	175	15.3
그런 편이다	373	32.6
매우 그렇다	523	45.8
합계	1143	100.0
결측값	82(6.7%)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대학원생들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타 지역보다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에 비해서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4〉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전임교수 확보율 강화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 1.5%	0 0.0%	6 2.2%	47 17.4%	92 34.1%	121 44.8%	270 100.0%	8.065
	사립	40 4.6%	5 0.6%	17 1.9%	128 14.7%	281 32.2%	401 46.0%	872 100.0%	
전체		44 3.9%	5 0.4%	23 2.0%	175 15.3%	373 32.7%	522 45.7%	1142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9 1.3%	3 0.4%	12 1.8%	107 15.9%	211 31.3%	332 49.3%	674 100.0%	133.915***
	경기·인천	1 0.7%	1 0.7%	5 3.6%	20 14.3%	41 29.3%	72 51.4%	140 100.0%	
	충청	32 17.8%	0 0.0%	2 1.1%	22 12.2%	55 30.6%	69 38.3%	180 100.0%	
	호남	1 1.6%	0 0.0%	2 3.2%	8 12.9%	28 45.2%	23 37.1%	62 100.0%	
	영남	1 1.2%	1 1.2%	2 2.4%	18 21.2%	37 43.5%	26 30.6%	85 100.0%	
전체		44 3.9%	5 0.4%	23 2.0%	175 15.3%	372 32.6%	522 45.7%	1141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 1.4%	2 0.3%	8 1.4%	88 15.2%	187 32.2%	287 49.5%	580 100.0%	24.861***
	대학원대학교	36 6.4%	3 0.5%	15 2.7%	87 15.5%	185 32.9%	236 42.0%	562 100.0%	
전체		44 3.9%	5 0.4%	23 2.0%	175 15.3%	372 32.6%	523 45.8%	1142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7 5.6%	2 0.3%	13 2.0%	87 13.1%	213 32.2%	310 46.8%	662 100.0%	19.813**
	이공학계열	5 1.5%	2 0.6%	6 1.8%	62 18.7%	106 32.0%	150 45.3%	331 100.0%	
	예체능계열	2 1.4%	1 0.7%	4 2.7%	25 17.0%	54 36.7%	61 41.5%	147 100.0%	
전체		44 3.9%	5 0.4%	23 2.0%	174 15.3%	373 32.7%	521 45.7%	1140 100.0%	

주) \*<0.1 / \*\*<0.05 / \*\*\*<0.01

#### 다)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 강화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적실성에 대한 평가를 교수집단에 비해서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5〉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43	3.8
전혀아니다	11	1.0
아니다	64	5.6
보통	276	24.3
그런 편이다	402	35.3
매우 그렇다	342	30.1
합계	1138	100.0
결측값	87(7.1%)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인천과 호남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예체능계열에서 타 계열보다는 교육과정 적실성 평가를 강화해야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46〉 교육과정의 적실성 평가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교육과정 적실성에 대한 평가 강화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2 0.7%	4 1.5%	18 6.7%	73 27.1%	97 36.1%	75 27.9%	269 100.0%	12.054**
	사립	41 4.7%	7 0.8%	46 5.3%	203 23.4%	305 35.1%	266 30.6%	868 100.0%	
전체		43 3.8%	11 1.0%	64 5.6%	276 24.3%	402 35.4%	341 30.0%	1137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0 1.5%	8 1.2%	36 5.4%	174 25.9%	243 36.2%	201 29.9%	672 100.0%	98.327***
	경기·인천	3 2.2%	2 1.4%	7 5.0%	32 23.0%	46 33.1%	49 35.3%	139 100.0%	
	충청	29 16.1%	1 0.6%	9 5.0%	35 19.4%	60 33.3%	46 25.6%	180 100.0%	
	호남	0 0.0%	0 0.0%	5 8.2%	11 18.0%	23 37.7%	22 36.1%	61 100.0%	
	영남	1 1.2%	0 0.0%	6 7.1%	24 28.6%	30 35.7%	23 27.4%	84 100.0%	
전체		43 3.8%	11 1.0%	63 5.5%	276 24.3%	402 35.4%	341 30.0%	1136 100.0%	20.621**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8 1.4%	7 1.2%	36 6.2%	138 23.9%	204 35.4%	184 31.9%	577 100.0%	
	대학원대학교	35 6.2%	4 0.7%	28 5.0%	138 24.6%	197 35.2%	158 28.2%	560 100.0%	
전체		43 3.8%	11 1.0%	64 5.6%	276 24.3%	401 35.3%	342 30.1%	1137 100.0%	22.819**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6 5.5%	7 1.1%	34 5.2%	151 22.9%	226 34.2%	206 31.2%	660 100.0%	
	이공학계열	3 0.9%	4 1.2%	24 7.3%	80 24.3%	129 39.2%	89 27.1%	329 100.0%	
	예체능계열	4 2.7%	0 0.0%	6 4.1%	44 30.1%	46 31.5%	46 31.5%	146 100.0%	
전체		43 3.8%	11 1.0%	64 5.6%	275 24.2%	401 35.3%	341 30.0%	1135 100.0%	

주) \*<0.1 / \*\*<0.05 / \*\*\*<0.01

#### 라) 졸업생의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26.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찬성하는 입장이 다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7〉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57	5.0
전혀아니다	44	3.9
아니다	117	10.3
보통	334	29.4
그런 편이다	300	26.4
매우 그렇다	284	25.0
합계	1136	100.0
결측값	89(7.3%)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경기·인천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에 비해서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이공학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8〉 졸업생 취업을 평가지표 포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졸업생의 취업을 평가지표에 포함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7 2.6%	10 3.8%	28 10.5%	75 28.2%	74 27.8%	72 27.1%	266 100.0%	5.011
	사립	50 5.8%	34 3.9%	88 10.1%	259 29.8%	226 26.0%	212 24.4%	869 100.0%	
전체		57 5.0%	44 3.9%	116 10.2%	334 29.4%	300 26.4%	284 25.0%	1135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8 2.7%	31 4.6%	83 12.4%	195 29.1%	180 26.8%	164 24.4%	671 100.0%	110.019***
	경기·인천	2 1.4%	4 2.9%	5 3.6%	41 29.3%	40 28.6%	48 34.3%	140 100.0%	
	충청	34 19.1%	6 3.4%	15 8.4%	50 28.1%	39 21.9%	34 19.1%	178 100.0%	
	호남	1 1.6%	1 1.6%	5 8.1%	16 25.8%	22 35.5%	17 27.4%	62 100.0%	
	영남	2 2.4%	2 2.4%	8 9.6%	31 37.3%	19 22.9%	21 25.3%	83 100.0%	
전체		57 5.0%	44 3.9%	116 10.2%	333 29.4%	300 26.5%	284 25.0%	1134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5 2.6%	26 4.5%	69 12.0%	161 28.0%	161 28.0%	143 24.9%	575 100.0%	19.809**
	대학원대학교	42 7.5%	18 3.2%	48 8.6%	172 30.7%	139 24.8%	141 25.2%	560 100.0%	
전체		57 5.0%	44 3.9%	117 10.3%	333 29.3%	300 26.4%	284 25.0%	1135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6 7.0%	23 3.5%	68 10.4%	184 28.0%	176 26.8%	160 24.4%	657 100.0%	20.911**
	이공학계열	8 2.4%	12 3.6%	28 8.5%	104 31.4%	91 27.5%	88 26.6%	331 100.0%	
	예체능계열	3 2.1%	9 6.2%	21 14.5%	46 31.7%	32 22.1%	34 23.4%	145 100.0%	
전체		57 5.0%	44 3.9%	117 10.3%	334 29.5%	299 26.4%	282 24.9%	1133 100.0%	

주) \*<0.1 / \*\*<0.05 / \*\*\*<0.01

#### 마) 전문 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5.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학위(석사, 박사)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9〉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90	7.9
전혀아니다	52	4.6
아니다	136	11.9
보통	289	25.3
그런 편이다	292	25.6
매우 그렇다	282	24.7
합계	1141	100.0
결측값	84(6.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인천과 호남지역에서는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는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0〉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전문학위(석사, 박사)만 수여해야 하는지 여부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7 6.3%	23 8.6%	27 10.1%	64 23.9%	74 27.6%	63 23.5%	268 100.0%	15.526**
	사립	73 8.4%	29 3.3%	109 12.5%	225 25.8%	218 25.0%	218 25.0%	872 100.0%	
전체		90 7.9%	52 4.6%	136 11.9%	289 25.4%	292 25.6%	281 24.6%	114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59 8.8%	45 6.7%	73 10.8%	165 24.5%	177 26.3%	154 22.9%	673 100.0%	56.232***
	경기·인천	9 6.5%	6 4.3%	8 5.8%	36 25.9%	38 27.3%	42 30.2%	139 100.0%	
	충청	9 5.0%	1 0.6%	40 22.2%	49 27.2%	37 20.6%	44 24.4%	180 100.0%	
	호남	3 4.8%	0 0.0%	8 12.9%	12 19.4%	17 27.4%	22 35.5%	62 100.0%	
	영남	8 9.4%	0 0.0%	7 8.2%	27 31.8%	23 27.1%	20 23.5%	85 100.0%	
전체		88 7.7%	52 4.6%	136 11.9%	289 25.4%	292 25.6%	282 24.8%	1139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49 8.5%	32 5.5%	55 9.5%	150 26.0%	149 25.8%	142 24.6%	577 100.0%	8.918
	대학원대학교	41 7.3%	20 3.6%	81 14.4%	138 24.5%	143 25.4%	140 24.9%	563 100.0%	
전체		90 7.9%	52 4.6%	136 11.9%	288 25.3%	292 25.6%	282 24.7%	1140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7 8.6%	16 2.4%	91 13.7%	149 22.5%	170 25.7%	179 27.0%	662 100.0%	54.937***
	이공학계열	25 7.6%	35 10.6%	29 8.8%	91 27.7%	81 24.6%	68 20.7%	329 100.0%	
	예체능계열	8 5.4%	1 0.7%	14 9.5%	48 32.7%	41 27.9%	35 23.8%	147 100.0%	
전체		90 7.9%	52 4.6%	134 11.8%	288 25.3%	292 25.7%	282 24.8%	1138 100.0%	

주) \*<0.1 / \*\*<0.05 / \*\*\*<0.01

바)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3.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51〉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45	3.9
전혀아니다	51	4.5
아니다	116	10.2
보통	263	23.0
그런 편이다	387	33.9
매우 그렇다	280	24.5
합계	1142	100.0
결측값	83(6.8%)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경기·인천과 호남지역에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타 전공계열보다는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2〉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여부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9 3.3%	21 7.8%	34 12.6%	67 24.8%	76 28.1%	63 23.3%	270 100.0%	15.172**
	사립	36 4.1%	30 3.4%	82 9.4%	196 22.5%	311 35.7%	216 24.8%	871 100.0%	
전체		45 3.9%	51 4.5%	116 10.2%	263 23.0%	387 33.9%	279 24.5%	114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6 3.9%	36 5.3%	79 11.7%	156 23.2%	204 30.3%	172 25.6%	673 100.0%	29.658*
	경기·인천	3 2.1%	5 3.6%	11 7.9%	34 24.3%	48 34.3%	39 27.9%	140 100.0%	
	충청	7 3.9%	6 3.3%	17 9.4%	40 22.2%	78 43.3%	32 17.8%	180 100.0%	
	호남	2 3.2%	1 1.6%	3 4.8%	11 17.7%	28 45.2%	17 27.4%	62 100.0%	
	영남	7 8.2%	3 3.5%	5 5.9%	22 25.9%	29 34.1%	19 22.4%	85 100.0%	
전체		45 3.9%	51 4.5%	115 10.1%	263 23.1%	387 33.9%	279 24.5%	1140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20 3.5%	34 5.9%	69 11.9%	138 23.8%	171 29.5%	147 25.4%	579 100.0%	16.826**
	대학원대학교	25 4.4%	17 3.0%	47 8.4%	124 22.1%	216 38.4%	133 23.7%	562 100.0%	
전체		45 3.9%	51 4.5%	116 10.2%	262 23.0%	387 33.9%	280 24.5%	1141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1 4.7%	22 3.3%	68 10.3%	133 20.1%	238 36.0%	170 25.7%	662 100.0%	28.753**
	이공학계열	11 3.3%	23 7.0%	42 12.7%	85 25.8%	95 28.8%	74 22.4%	330 100.0%	
	예체능계열	3 2.0%	6 4.1%	6 4.1%	45 30.6%	54 36.7%	33 22.4%	147 100.0%	
전체		45 4.0%	51 4.5%	116 10.2%	263 23.1%	387 34.0%	277 24.3%	1139 100.0%	

주) \*<0.1 / \*\*<0.05 / \*\*\*<0.01

### 사)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정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수집단에서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53〉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58	5.1
전혀아니다	17	1.5
아니다	44	3.9
보통	223	19.6
그런 편이다	347	30.5
매우 그렇다	450	39.5
합계	1139	100.0
결측값	86(7.0%)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남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이 타 전공계열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54〉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 1.5%	7 2.6%	7 2.6%	67 24.8%	82 30.4%	103 38.1%	270 100.0%	18.499**
	사립	54 6.2%	10 1.2%	37 4.3%	156 18.0%	265 30.5%	346 39.9%	868 100.0%	
전체		58 5.1%	17 1.5%	44 3.9%	223 19.6%	347 30.5%	449 39.5%	1138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20 3.0%	9 1.3%	27 4.0%	130 19.3%	208 31.0%	278 41.4%	672 100.0%	81.191***
	경기·인천	2 1.4%	4 2.9%	7 5.0%	32 23.0%	37 26.6%	57 41.0%	139 100.0%	
	충청	31 17.3%	2 1.1%	7 3.9%	36 20.1%	49 27.4%	54 30.2%	179 100.0%	
	호남	2 3.2%	1 1.6%	2 3.2%	7 11.3%	20 32.3%	30 48.4%	62 100.0%	
	영남	3 3.5%	0 0.0%	1 1.2%	18 21.2%	33 38.8%	30 35.3%	85 100.0%	
전체		58 5.1%	16 1.4%	44 3.9%	223 19.6%	347 30.5%	449 39.5%	1137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7 2.9%	9 1.6%	22 3.8%	102 17.6%	183 31.7%	245 42.4%	578 100.0%	16.112**
	대학원대학교	41 7.3%	8 1.4%	22 3.9%	121 21.6%	164 29.3%	204 36.4%	560 100.0%	
전체		58 5.1%	17 1.5%	44 3.9%	223 19.6%	347 30.5%	449 39.5%	1138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4 6.7%	11 1.7%	27 4.1%	115 17.4%	208 31.5%	255 38.6%	660 100.0%	15.858**
	이공학계열	11 3.3%	5 1.5%	12 3.6%	79 23.9%	89 27.0%	134 40.6%	330 100.0%	
	예체능계열	3 2.1%	1 0.7%	5 3.4%	29 19.9%	49 33.6%	59 40.4%	146 100.0%	
전체		58 5.1%	17 1.5%	44 3.9%	223 19.6%	346 30.5%	448 39.4%	1136 100.0%	

주) \*<0.1 / \*\*<0.05 / \*\*\*<0.01

#### 아)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29.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표 IV-155〉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64	5.6
전혀아니다	131	11.5
아니다	384	33.7
보통	335	29.4
그런 편이다	139	12.2
매우 그렇다	88	7.7
합계	1141	100.0
결측값	84(6.9%)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 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호남지역의 경우 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이공학계열이 타 전공계열보다는 전문대학원 정원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6〉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 정도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10 3.7%	39 14.4%	90 33.3%	87 32.2%	28 10.4%	16 5.9%	270 100.0%	8.468**
	사립	54 6.2%	92 10.6%	294 33.8%	247 28.4%	111 12.8%	72 8.3%	870 100.0%	
전체		64 5.6%	131 11.5%	384 33.7%	334 29.3%	139 12.2%	88 7.7%	1140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43 6.4%	87 12.9%	195 29.0%	197 29.3%	90 13.4%	61 9.1%	673 100.0%	63.784***
	경기·인천	6 4.3%	14 10.1%	55 39.6%	42 30.2%	10 7.2%	12 8.6%	139 100.0%	
	충청	9 5.0%	16 8.9%	96 53.3%	42 23.3%	14 7.8%	3 1.7%	180 100.0%	
	호남	1 1.6%	4 6.5%	19 30.6%	21 33.9%	13 21.0%	4 6.5%	62 100.0%	
	영남	5 5.9%	8 9.4%	19 22.4%	33 38.8%	12 14.1%	8 9.4%	85 100.0%	
전체		64 5.6%	129 11.3%	384 33.7%	335 29.4%	139 12.2%	88 7.7%	1139 100.0%	6.724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33 5.7%	76 13.1%	179 30.9%	167 28.8%	76 13.1%	48 8.3%	579 100.0%	
	대학원대학교	31 5.5%	55 9.8%	204 36.4%	168 29.9%	63 11.2%	40 7.1%	561 100.0%	
전체		64 5.6%	131 11.5%	383 33.6%	335 29.4%	139 12.2%	88 7.7%	1140 100.0%	23.34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4 6.7%	71 10.7%	217 32.8%	197 29.8%	82 12.4%	50 7.6%	661 100.0%	
	이공학계열	13 3.9%	49 14.8%	124 37.6%	94 28.5%	31 9.4%	19 5.8%	330 100.0%	
	예체능계열	7 4.8%	11 7.5%	41 27.9%	44 29.9%	26 17.7%	18 12.2%	147 100.0%	
전체		64 5.6%	131 11.5%	382 33.6%	335 29.4%	139 12.2%	87 7.6%	1138 100.0%	

주) \*<0.1 / \*\*<0.05 / \*\*\*<0.01

#### 자)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

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3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국제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수집단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V-157〉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인식(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르겠다	24	2.1
전혀아니다	6	.5
아니다	59	5.2
보통	211	18.5
그런 편이다	383	33.5
매우 그렇다	459	40.2
합계	1142	100.0
결측값	83(6.8%)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의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국제화 강화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과정에 국제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인천지역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에 국제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서는 예체능계열과 이공학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보다 국제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8〉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분		교육과정의 국제화 강화 정도						전체	$\chi^2$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학원의 설립주체	국공립	4 1.5%	1 0.4%	5 1.9%	54 20.0%	80 29.6%	126 46.7%	270 100.0%	14.116**
	사립	20 2.3%	5 0.6%	54 6.2%	156 17.9%	303 34.8%	333 38.2%	871 100.0%	
전체		24 2.1%	6 0.5%	59 5.2%	210 18.4%	383 33.6%	459 40.2%	1141 100.0%	
대학원의 소재지	서울	14 2.1%	3 0.4%	23 3.4%	125 18.6%	228 33.9%	280 41.6%	673 100.0%	72.416***
	경기·인천	3 2.1%	0 0.0%	4 2.9%	25 17.9%	40 28.6%	68 48.6%	140 100.0%	
	충청	4 2.2%	2 1.1%	30 16.7%	31 17.2%	60 33.3%	53 29.4%	180 100.0%	
	호남	1 1.6%	0 0.0%	2 3.2%	10 16.1%	27 43.5%	22 35.5%	62 100.0%	
	영남	2 2.4%	1 1.2%	0 0.0%	20 23.5%	26 30.6%	36 42.4%	85 100.0%	
전체		24 2.1%	6 0.5%	59 5.2%	211 18.5%	381 33.4%	459 40.3%	1140 100.0%	
대학원의 설립유형	대학교	14 2.4%	3 0.5%	16 2.8%	96 16.6%	198 34.3%	251 43.4%	578 100.0%	18.841**
	대학원대학교	10 1.8%	3 0.5%	43 7.6%	114 20.2%	185 32.9%	208 36.9%	563 100.0%	
전체		24 2.1%	6 0.5%	59 5.2%	210 18.4%	383 33.6%	459 40.2%	1141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1 1.7%	4 0.6%	52 7.9%	115 17.4%	237 35.8%	243 36.7%	662 100.0%	33.903***
	이공학계열	9 2.7%	1 0.3%	5 1.5%	70 21.1%	95 28.7%	151 45.6%	331 100.0%	
	예체능계열	4 2.7%	1 0.7%	2 1.4%	25 17.1%	50 34.2%	64 43.8%	146 100.0%	
전체		24 2.1%	6 0.5%	59 5.2%	210 18.4%	382 33.5%	458 40.2%	1139 100.0%	

주) \*<0.1 / \*\*<0.05 / \*\*\*<0.01

## 라.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차이분석

### 1) 전문대학원 운영 만족도 차이 비교결과

전문대학원의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전문대학원 운영 만족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립취지 맞는 운영 만족도, 특수대학원 비교 만족도, 학사관리 수준, 실험실습 학위논문요구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립취지 맞는 운영 만족도, 특수대학원 비교 만족도, 학사관리 수준 만족도에서는 교수집단이 대학원생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일반대학원 비교 만족도와 실험실습 학위논문 요구 수준 등은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9〉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운영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항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값
설립취지 맞는 운영 만족도	교수	347	4.1297	.96942	.05204	3.912***
	대학원생	1189	3.8999	.93882	.02723	
일반대학원비교 만족도	교수	346	3.8237	.97838	.05260	-.391
	대학원생	1189	3.8469	.94910	.02752	
특수대학원비교 만족도	교수	346	4.2486	.89544	.04814	6.790***
	대학원생	1189	3.8755	.91268	.02647	
학사관리수준	교수	341	4.3783	.77117	.04176	4.633***
	대학원생	1162	4.1532	.84691	.02484	
실험·실습 학위논문요구 수준	교수	342	3.2222	1.12700	.06094	-.429
	대학원생	1157	3.2515	1.04559	.03074	

주) \*<0.1 / \*\*<0.05 / \*\*\*<0.01

## 2) 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대한 비교결과

전문대학원의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에서는 주로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과 면접이 높다고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이외에 교수집단은 학부성적을 중요시하게 여긴 반면에 대학원생들은 각종 자격증 및 학업계획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V-160〉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신입생 선발과정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전체	$\chi^2$
	필기 시험 점수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면접	각종 자격증 및 학업 계획서	학부 성적	기타		
교수	14	96	168	18	33	17	346	13.339**
	4.0%	27.7%	48.6%	5.2%	9.5%	4.9%	100.0%	
대학원생	49	282	641	88	62	65	1187	
	4.1%	23.8%	54.0%	7.4%	5.2%	5.5%	100.0%	
전체	63	378	809	106	95	82	1533	
	4.1%	24.7%	52.8%	6.9%	6.2%	5.3%	100.0%	

주) \*<0.1 / \*\*<0.05 / \*\*\*<0.01

다음으로 신입생 특성에 대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에서는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라고 대부분 응답하였지만, 대학원생 집단이 교수집단보다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차지하고 있는 신입생 비중이 다소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1〉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신입생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신입생의 특성			전체	$\chi^2$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하다		
교수	96	166	83	345	12.148**
	27.8%	48.1%	24.1%	100.0%	
대학원생	445	517	222	1184	
	37.6%	43.7%	18.8%	100.0%	
전체	541	683	305	1529	
	35.4%	44.7%	19.9%	100.0%	

주) \* $<0.1$  / \*\* $<0.05$  / \*\*\* $<0.01$

그리고 입학경쟁률에 대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에서는 2:1-3:1 미만이거나 1:1-2:1 미만의 입학경쟁률을 주로 보이고 있으나, 이외에 교수집단은 전반적으로 입학경쟁률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대학원생 집단은 입학경쟁률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62〉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입학경쟁률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입학경쟁률					전체	$\chi^2$
	1:1 미만	1:1-2:1 미만	2:1-3:1 미만	4:1-5:1 미만	5:1 이상		
교수	63	128	88	26	38	343	33.220***
	18.4%	37.3%	25.7%	7.6%	11.1%	100.0%	
대학원생	105	399	374	154	152	1184	
	8.9%	33.7%	31.6%	13.0%	12.8%	100.0%	
전체	168	527	462	180	190	1527	
	11.0%	34.5%	30.3%	11.8%	12.4%	100.0%	

주) \* $<0.1$  / \*\* $<0.05$  / \*\*\* $<0.01$



### 3)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차이 비교결과

전문대학원의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2$ -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 교차분석한 결과는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에서는 주로 1개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교수집단은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공동 운영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것이 많았다.

〈표 IV-163〉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chi^2$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교수	233	51	37	16	1	5	343	9.537*
	67.9%	14.9%	10.8%	4.7%	.3%	1.5%	100.0%	
대학원생	724	200	145	43	11	45	1168	
	62.0%	17.1%	12.4%	3.7%	.9%	3.9%	100.0%	
전체	957	251	182	59	12	50	1511	
	63.3%	16.6%	12.0%	3.9%	.8%	3.3%	100.0%	

주) \*<0.1 / \*\*<0.05 / \*\*\*<0.01

다음으로 강의 수준에 대해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이 있었다. 따라서 실습 강의 비율, 원어 강의 비율, 외부 전문인력 강의 비율, 학제간 강의 비율은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이 대학원생 집단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 항목에서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인식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V-164〉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전문대학원 강의비율에 대한 차이분석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값
실습 강의 비율	교수	343	2.9125	.99616	.05379	1.423
	대학원생	1176	2.8563	1.05214	.03068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	교수	342	2.7047	1.37550	.07438	-1.098
	대학원생	1166	2.5849	1.36639	.04002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교수	342	2.9474	.97333	.05263	2.018
	대학원생	1172	3.0145	1.06363	.03107	
외국인 교수의 강의 비율	교수	344	2.0000	1.09863	.05923	2.018**
	대학원생	1167	1.8629	1.10978	.03249	
학제 간 강의 비율	교수	343	2.7434	1.08070	.05835	.191
	대학원생	1166	2.7307	1.08815	.03187	

주) \*<0.1 / \*\*<0.05 / \*\*\*<0.01

#### 4) 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지도에 대한 비교결과

전문대학원의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에 대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4-6명에 해당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V-165〉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전체	$\chi^2$
	1-3명	4-6명	7-10명	11-15명	16명 이상		
교수	130	145	48	6	11	340	5.672
	38.2%	42.6%	14.1%	1.8%	3.2%	100.0%	
대학원생	433	473	175	45	23	1149	
	37.7%	41.2%	15.2%	3.9%	2.0%	100.0%	
전체	563	618	223	51	34	1489	
	37.8%	41.5%	15.0%	3.4%	2.3%	100.0%	

주) \*<0.1 / \*\*<0.05 / \*\*\*<0.01

다음으로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에서는 주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대부분 응답하였지만, 교수집단이 대학원생 집단 보다는 학위논문 지도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6〉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학위논문 지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학위논문 지도시간				전체	$\chi^2$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주일에 1회	1주일에 2회 이상	거의 하지않는다		
교수	191	115	30	3	339	14.982**
	56.3%	33.9%	8.8%	.9%	100.0%	
대학원생	607	343	154	49	1153	
	52.6%	29.7%	13.4%	4.2%	100.0%	
전체	798	458	184	52	1492	
	53.5%	30.7%	12.3%	3.5%	100.0%	

주) \*<0.1 / \*\*<0.05 / \*\*\*<0.01

그리고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에서는 주로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고 응답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교수집단은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으로서 종합시험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지 논문 게재 등 많았으나, 대학원생 집단은 기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7〉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							전체	$\chi^2$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종합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종합시험 통과 및 일반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종합시험 통과 및 중앙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종합시험 통과 및 국제학술 지에 연구논문 게재	일정 기간의 현장실습 대체	기타		
교수	26	119	51	87	35	4	19	341	15.729**
	7.6%	34.9%	15.0%	25.5%	10.3%	1.2%	5.6%	100.0%	
대학원생	64	390	234	259	85	11	116	1159	
	5.5%	33.6%	20.2%	22.3%	7.3%	.9%	10.0%	100.0%	
전체	90	509	285	346	120	15	135	1500	
	6.0%	33.9%	19.0%	23.1%	8.0%	1.0%	9.0%	100.0%	

주) \*<0.1 / \*\*<0.05 / \*\*\*<0.01

## 5) 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방안 차이 비교결과

전문대학원의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간의 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방안의 만족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제도도입, 전임교수확보율, 교육과정 적실성, 졸업생 취업률 지표 포함,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제도 도입, 정원감축, 국제화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의 t값이 음(-)으로 나타나 대학원생 집단이 교수집단에 비해서 각종 기존 현황을 개선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전문(석사, 박사)학위 수여만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8〉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차이분석

항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값
평가제도도입	교수	334	3.5599	.92724	.05074	-3.525***
	대학원생	1145	3.8210	1.25725	.03716	
교수확보율	교수	330	3.7030	.92729	.05105	-6.413***
	대학원생	1143	4.0971	1.15680	.03422	
교육과정적실성	교수	331	3.3595	.97268	.05346	-5.695***
	대학원생	1138	3.7654	1.18565	.03515	
졸업생취업율	교수	330	3.5879	1.06041	.05837	-4.089***
	대학원생	1139	3.8736	1.29613	.03840	
전문학위수여	교수	333	3.3123	1.16877	.06405	.103
	대학원생	1141	3.3032	1.47169	.04357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교수	333	3.0601	1.22080	.06690	-5.964***
	대학원생	1142	3.5201	1.29823	.03842	
정원감축	교수	331	2.1964	.97582	.05364	-4.684***
	대학원생	1141	2.5416	1.23376	.03652	
국제화강화	교수	331	3.5136	1.01607	.05585	-7.768***
	대학원생	1142	4.0140	1.08523	.03211	

주) \*<0.1 / \*\*<0.05 / \*\*\*<0.01

## 2.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가. 전문대학원의 차별성

전문대학원은 대부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대학원에 비해서 대부분 운영상의 차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본래 전문대학원의 차별성을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 부족과 정원산정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원의 저변을 확

대하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나. 전문대학원의 입학과정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는 대부분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사항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분야와 경력이 일치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한 신입생들은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시간제 대학원생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대부분 깊은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나 자신의 실무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입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당시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1:1에서 2: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회적 인지도 부족과 기존의 대학원보다는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교 내에 있는 전문대학원보다는 대학교의 전문대학원의 입학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 다.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확보율에 대해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이견은 있으나 적정 수준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강의비율과 관련해서는 교수와 대학원생들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였으며,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습 강의비율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예체능계열에서는 전공특성상 실습강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에서는 현장 실습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대학원이 현장실습과목을 필수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비율과 외국인 교수의 강의비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외국 대학원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과 학제간 강의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문대학원의 국제적 성장과 융합학문으로서 학문적 기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학위논문 지도 및 강의평가

전문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 지도는 대부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을 진행하거나 1주일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기 보다는 전공계열 특성상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 요구정도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에서는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가 최소 1-3명이거나 많으면 4-6명 정도이었으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으로는 주로 종합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에서는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마. 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 및 전반적인 만족도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은 다소 적정한 수준이었으며, 대학교의 경우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등록금 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학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용 공간과 멀티미디어 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공립보다는 사립에서 전용 공간과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지원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부족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원의 만족 수준을 설문한 결과, 전문대학원의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며, 전문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취업 정도와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정도가 대체적으로 좋다고 응답했으나 시간제 대학원생 즉 기취업자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대체적으로 전공 관련하여 취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타 대학원보다는 졸업생에 대한 사후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 바. 전문대학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교수집단보다는 대학원생 집단에서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학위(석사, 박사) 수여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학위논문과 실무보고서 선택 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생 취업률 평가지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있었다.

전문대학원에서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화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라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반면,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교수집단의 경우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V.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

### 1.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 가.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역할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이제 대학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원은 학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학술·연구 역량의 필요성을 요청 받고 있고,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학술 연구를 담당할 고도의 이론 및 전문적 고급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안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이 전문 직업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실질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은 일반대학원이 학술이론, 연구방법 등을 주로 하는 것과 달리 실천적 이론과 실무위주로 구성되어야 하고, 주로 직업인의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보다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전일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마다 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을 특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팽창 및 재원 충당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운영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지 학위과정 뿐만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의 개념, 기준, 분야 등에 대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대학원의 유형이나 분류기준으로 교육목적, 수업형태, 교육내용, 배출인력 등을 비교 점검함으로써 전문대학원의 목표와 기능을 명료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전문대학원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문대학원의 경쟁력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 대학원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원의 경쟁력은 교육과 연구력에 의해 구체화되는 만큼, 고등교육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은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은 제도, 체제, 운영과 관련된 환경들이 국제적 수준과 요구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 나. 전문대학원 특성화 체제로의 전환과 협력체제 구축

전문대학원 체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고려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의 전문화와 특성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에 따라 대학원 체제는 양적으로만 팽창하여 왔음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특성화와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에 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분야에 따라 전문대학원의 설립이나 학생 정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원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방지하고 질 관리 차원에서 설치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제적인 안목에서 전문대학원의 기능을 분화하고 재구조화하여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학의 30%만이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학의 경우 90% 정도가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평가하여 기준미달 대학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나아가 전문대학원의 전문화·특성화 기준을 설정하여 역할 분담과 규모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전문분야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문 영역간의 개방을 통한 학문융합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전문대학원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경쟁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대학원간 상호 협력체제 구

축을 통해 교육·연구의 연계와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경비절감과 학-학 협동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독특한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그리고 전문대학원 관련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연구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인적자원 및 연구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대학원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다.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구축**

전문대학원은 전문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구성원 스스로 참여하고 개혁할 수 있는 내부 혁신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된다. 즉 입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수업, 졸업 등 전반적인 운영체제가 발전지향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참여와 집단지성이 결합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 운영의 전문화 구조가 요구된다. 현재의 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일반대학원과 재교육 중심의 특수대학원의 중간 정도 수준의 대학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에 따라 대학마다 전문대학원을 하부 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운영의 전문화를 통해 전문대학원의 독자성을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지향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구성원 스스로의 정체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한 관리·경영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수업, 졸업 등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체제 개편은 전문대학원만이 지닌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대학원 체제의 구축은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 2.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가. 대학원 분류 체제의 재정립을 통한 전문대학원의 재개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주요 원인은 대학원의 유형에 따라 교육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없고,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공신력이 미흡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학원이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일반대학원화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대학원을 흡수하여 전문대학원의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원은 설립목적과 역사 그리고 학문분야 분포 등 제반 특성 등을 고려한 대학원 기능 통합을 추진해야만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은 궁극적으로 대학원 목표와 기능에 맞는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구현하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인력 배출”과 “인력 수요”에 일치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원 유형의 재분류 및 통합체제로 전환하거나 국내외 대학원 간의 협동적인 교류와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원 운영 호환성을 구축하여야 한다.

### 나. 전문대학원의 협동체제 및 네트워크 강화

전문대학원의 협동체제 구축은 전문대학원간의 협동체제와 전문대학원과 지역의 연구소와 산업체와의 협동체제 등 두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간의 협동체제는 대학원내 학과 간, 전문대학원 간의 폐쇄적 교육과정 운영을 탈피하고, 교육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대학원간 대학원생 교류, 학문분야간 공동연구 또는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간, 학과간의 협동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향후 대학원간의 개방 및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전문대학원과 지역의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협동체제 구축은 지식기반 시대에 지역교육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지식과 기술 창출 및 확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마다 전문대학원·연구소·기업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전개 및 기술개발, 인력·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과 인력의 집적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대학원이 지식기반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식생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대학원이 자체의 인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연구소나 기업과 연계하여 인력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대학원의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다.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과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은 강화하되,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운영체제의 혁신을 유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입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수업, 졸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체제의 대개편이 요구된다.

전문대학원의 입학제도는 학술적인 탐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이나 재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선발방식과는 차별화하여 전문대학원의 특성에 맞게 학제적 접근, 융합 학문 전공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원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적이나 필기시험의 비중보다는 실기시험이나 경력 및 자격증 등 전문분야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선발과정에 교수는 물론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현장과 연계된 열린 입학전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도 실천적 이론의 교육을 통한 전문 직업 인력의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의 다양화 방안, 이를테면 1+1 또는 2+1의 학사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과 현장 실무자가 공동으로 원생들을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도 실천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하고, 팀티칭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목 도입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문대학원의 협동체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협동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전문대학원의 수업 방식도 특수 전문분야에 있어서 기능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일반적인 수업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정형화된 교육방법의 틀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전문대학원 별로 학교 여건과 대학원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교과과정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대학원 나름의 프로젝트 수업이나 팀티칭 등의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도 향후 전문대학원 교육의 틀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학문영역별 학교별 특성을 활용한 적절한 교육방법의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졸업 요인은 전문대학원의 질과 평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학위논문 수행과정의 투명성, 엄격성, 합리성, 그리고 지도교수와 학문적 연계성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위수여과정의 엄격성을 통해 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신뢰와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원의 특성과 정체성 확립을 유인하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 **3. 전문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체제 구축**

#### **가. 평가지표 개발의 목적과 방향**

전문대학원 평가는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대학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평가의 목적을 두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전문대학원 평가 모형(안)은 무엇보다도 전문대학원의 질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전문대학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여 평가 수용도를 높이며, 전문대학원의 현실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전문대학원 평가 지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제고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원 평가는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 전문대학원의 책무성 향상

전문대학원 평가는 각 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립 역량 신장을 통하여 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 전문대학원의 자율성 신장

목표지향 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원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해당 전문대학원에 피드백 되어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 전문대학원 경영의 효율성 제고

전문대학원의 자발적인 경영쇄신 노력 유도를 통하여 전문대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전문대학원 평가 지표 체제는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을 신장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전문대학원 평가 결과를 통해 각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제재를 부여하는 대신 인센티브와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 평가는 해당 대학원에 평가를 준비하는 부담을 최소화 해 줄 필요가 있다.

## 나. 평가지표의 적용(안)

### 1) 평가계획

□ 평가대상 기관

전문대학원 평가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제

외한 132개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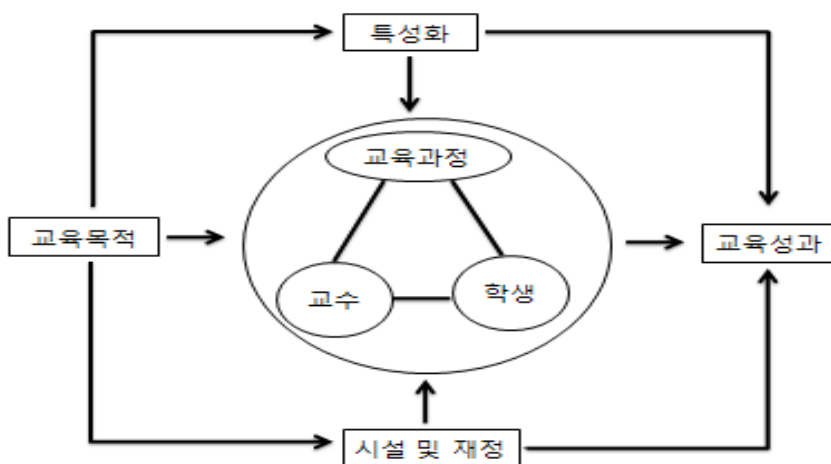
#### □ 평가 주기

평가 주기는 격년 평가(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2년 주기 평가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평가지표의 체계

평가지표는 전문대학원의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동시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3요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접근은 투입-과정-산출에 의거하여 교육목표(투입), 교육활동(과정), 교육성과(산출)의 체계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의 3요소 차원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교육을 행하는 교육자(교수)와 교육을 받는 학습자(학생) 그리고 교육자와 학습자가 상호 교섭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교육내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교수, 학생, 교육과정은 교육을 성립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3요소를 중심으로 두고자 한다.

평가지표의 체계는 체계적인 접근과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3요소 차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체제를 구축하였다([그림 V-1]).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은 <부록 1>에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림 V-1] 전문대학원 평가지표 체계



### 3) 평가방법

#### ☐ 평가지표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

전문대학원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양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정량평가를 주로 실시하되, 평가지표의 성격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질적자료 평정으로, 정량 평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양적성과 보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역별로 활용 실적에 관련된 질적 자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 서면평가 실시

평가기관에서 안내하는 평가편람에 따라 각 전문대학원에서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평가팀에서 이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서면평가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을 감안하여 현장방문평가는 지양하도록 한다.

#### ☐ 구성원 및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각 전문대학원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의 구성원이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성원 및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4) 평가절차

#### ☐ 평가기획

##### ○ 평가 모형 및 지표(안) 확정 및 평가편람 개발

평가기획 단계에서는 전문대학원 평가 기본 방향에 따라 평가 모형 및 지표(안)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편람을 개발한다. 평가 모형 및 지표(안) 확정, 평가편람 개발 과정에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다.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단 구성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서 평가위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평가매뉴얼 및 만족도 조사지 개발

평가시행 단계에서 활용할 평가 매뉴얼 및 만족도 조사지 등을 개발한다.

- 평가시행

-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편람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안내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자체평가는 각 평가대상기관이 스스로 강점과 취약점을 점검·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보고서의 분량은 가능한 줄이도록 조정하여 보고서 작성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 서면평가

서면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과정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집합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가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서면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면평가 결과는 그 자체를 점수에 반영하되, 서면평가 시 평가자 간 평가결과의 합치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단 연수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 평정 및 발표

- 평가결과 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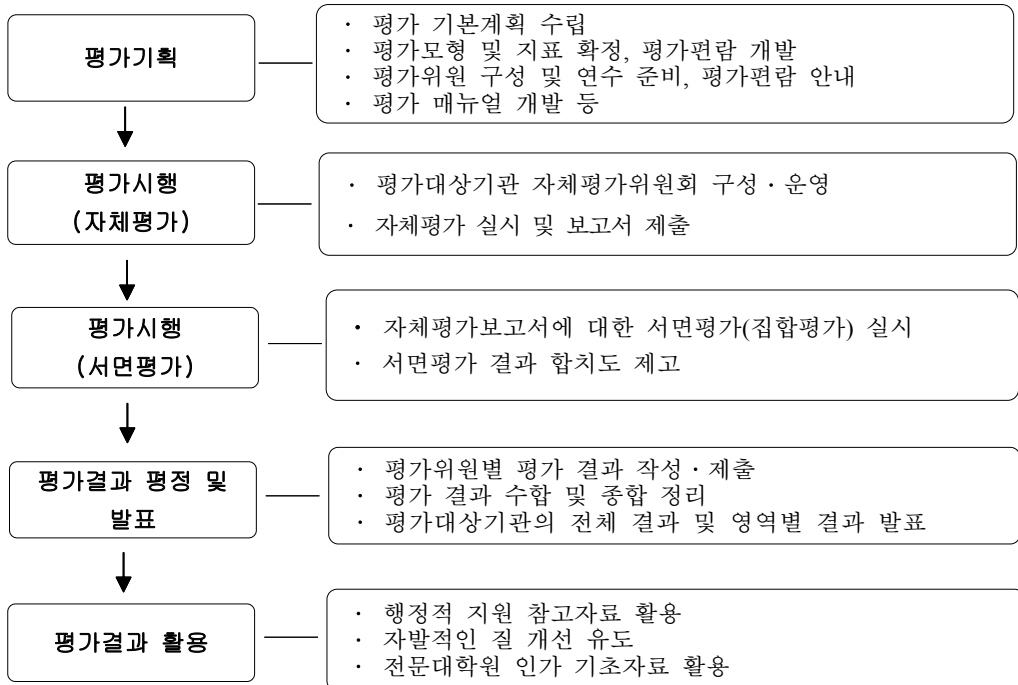
평가 결과는 A(최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등 4단계로 평정한다.

-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기관의 전체 평가 결과, 평가 영역별 평가로 정리한 후 발표

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문대학원 평가 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전문대학원 평가 절차

#### 다. 전문대학원 평가지표(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문대학원의 경영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3요소 차원에서의 접근 등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하여 개발한 평가지표(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전문대학원의 평가지표(안)

평가부분 (Component)	평가항목(Item)	주요 내용
1. 교육목적	1.1. ‘전문가 상’의 정립	-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1.2.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의 체계성	-이념 · 목적 · 목표의 연결
	1.3. 장기발전계획(적절성, 자체평가 시스템 확보 및 적절성)	-장기발전 계획 내용의 적절성 -자체평가 시스템의 확보 -자체평가의 적절성
2. 대학원의 특성화	2.1.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의 체계성	-계획 유무, 구체성, 특성화 정도
	2.2. 특성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인적 · 물적 자원의 투입 정도
	2.3. 특성화 목표 달성 실적 평가제도 및 결과활용	-평가제도의 유무, 방법의 합리성, 결과 반영
3. 교육과정 및 방법	3.1.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체계성, 이수체계도, 직업윤리 반영
	3.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졸업이수학점, 필수와 선택과목, 이론과 실무과목
	3.3. 교육과정개발 및 강의평가의 적절성	-교육과정개발, 강의평가
	3.4. 교수방법 개발을 위한 대학원의 노력 정도	-담당교과목의 전임교원 일치, 강의계획서, 성적평가방법
	3.5. 현장 실무 교육과정 운영 노력	-실습기관의 확보 -현장과 대학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4. 교원	4.1. 전임교원 확보	-전임교원 확보율 -실무경력교원의 확보
	4.2. 연구실적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수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 -저 · 역서 실적 -교수 연구비 수혜 실적
	4.3. 교육지원	-전임 교수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수업단위 규모의 적절성 -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조교 확보의 적절성

평가부분 (Component)	평가항목(Item)	주요 내용
5. 학생	5.1. 학생정원 관리의 적절성	-입학전형 방법 -신입학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5.2. 장학금 제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
	5.3. 학생지원체제	-상담 및 진로취업지도 운영체제 -복지 및 휴게시설 확보
6. 시설 및 재정	6.1. 교육·연구지원체제	-강의실 확보 및 강의실 여건의 적절성 -실험실습 설비 및 기자재 확보 상태 -기숙사 수용률의 적절성 -연구용 기자재 확보 및 활용
	6.2. 정보지원체제	-도서자료 확보의 적절성 -정보처리체제 구축 현황 및 정보화 예산 활용
	6.3. 대학재정	-학생등록금 비율 -예산편성 내용의 건전성 -교직원 인건비 비율의 적절성 -학생 1인당 교육비
7. 교육성과	7.1. 졸업생 취업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 -취업자의 전공 일치도
	7.2. 교육만족도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사회적 인식 정도
7개 평가부분	22개 평가항목	

## VI. 요약 및 제언

### 1. 요약

2011년 현재 일반대학원 178개, 전문대학원 206개, 특수대학원 783개로 총 1,167개의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지만, 특히 전문대학원은 지난 12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학원이 고급 전문 인력 및 현장 실무형 연구 인력 배출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기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과의 차별성 및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연구 여건 및 운영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하였고, 전문대학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 및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향과 지표를 개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 기준 전문대학원 중 경영, 법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II장의 전문대학원 현황 분석은 2011년 정보공시자료를 대상으로 2012.5.31.~2012.6.7. 에 추출하여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연구대상은 60개 일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97개 전문대학원(국공립 14개교/24대학원, 사립 46개교/73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5개 대학원(국공립1개, 사립 34개) 등 총 132개 전문대학원 중 2012년과 2011년에 신설된 대학원 중 5개와 기타 자료가 불완전한 전문대학원 6개를 제외한(이름의 변경이나 학과의 변경 등으로) 121개 전문대학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IV장의 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은 이러한 132개의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수는 교수 총 350명(사립대 76.9%, 국공립대학 23.1%), 대학원생 총 1,225명(사립대 76.1%, 국공립대학 23.9%)이었다.

## 가. 국내 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 분석

1)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설립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문대학원의 여건 측면을 전임교원수, 비전임교원수,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 등으로 비교해 보면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양호하였다. 연구성과 측면에서도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교원 1인당 연구비 등에서 국공립이 사립보다 양호하였다. 전문대학원의 운영 측면에서도 입학정원은 적었지만,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모두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았고, 박사학위자의 취업률에 있어서도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국공립의 전문대학원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평균 비전임 교원수는 수도권에 더 많았고, 수도권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 비해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더 높았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률과 경쟁률, 취업률, 중도탈락율 등에서 약간 수도권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대학원생들은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3)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공학계열이 양호하고 예체능계열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의 여건 측면을 전임교원수,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 전임교원 중 실무 경력자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면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측면에서는 이공계열이 타 계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원의 운영 측면에서도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대학원의 현황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건, 연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일반대학교가 대학원대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신학계열과 비신학계열 전문대학원의 비교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신학계열 대학원은 32개로 26.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19개(59%)가 대학원대학교 형태로 설립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신학계열이 비신학계열보다 다소 여건이나 성과 등이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6)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 등이 강화된 2005년 전후 설립된 전문대학

원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5년 이후 설립된 전문대학원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수의 차이가 컸고, 재적학생수나 충원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선진국의 전문대학원 체제 및 시사점

전문대학원 체제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많은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미국, 한국은 전문대학원을 일반대학원과 분리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일반대학원 내에서 학위 과정만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에 대한 규제 정도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직대학원 설치 기준에서 교원조직, 교육방법, 과정의 수료요건,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문대학원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대학원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원의 전공분야도 다른 국가들은 주로 법학, 의학, 경영, 국제, 교육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 주제, 그리고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 확보 및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전문대학원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전문대학원은 대부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대부분 운영상의 차별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 부족과 정원산정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2)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는 대부분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사항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았지만 상당수의 시간제 대학원생이 존재하였고, 입학 경쟁률은 대부



분 1:1에서 2:1 미만으로 낮았다. 특히, 대학교 내에 있는 전문대학원보다는 대학원 대학교의 전문대학원의 입학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습 강의비율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고, 전문대학원의 국제적 성장과 융합학문으로서 학문적 기여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4) 전문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 지도는 대부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을 진행하거나 1주일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 학위취득 과정은 일반대학원과 차별이 없었다.

5)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은 다소 적정한 수준이었으며, 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대학교보다는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지원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공립이 사립보다 그리고 대학원대학교보다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하지만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에서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라.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

### 1)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전문대학원 특성화 체제로의 전환과 협력체제 구축
- 전문대학원의 내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구축

### 2)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대학원 분류 체제의 재정립을 통한 전문대학원의 재개편
- 전문대학원의 협동체제 및 네트워크 강화
- 전문대학원의 정체성 확립과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

### 3) 전문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체제 구축

#### ☐ 평가지표 개발의 목적

- 전문대학원 평가는 전문대학원의 질 제고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의 고유성을 살리는 발전 방향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
- 전문대학원 평가 모형(안)은 전문대학원의 질적 발전, 평가부담 최소화, 평가 수용도 제고, 분야별 전문대학원의 현실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 개발

#### ☐ 전문대학원 평가 지표의 기본 방향

- 전문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제고
- 전문대학원의 책무성 향상
- 전문대학원의 자율성 신장
- 전문대학원 경영의 효율성 제고

#### ☐ 평가지표의 적용(안)

- 평가대상 기관
  - 전문대학원 평가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제외한 132개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함.
- 평가 주기
  - 평가 주기는 격년 평가(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2년 주기 평가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의 체계
  - 평가지표는 전문대학원의 경영차원에서 체제적인 접근을 하는 동시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3요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 적용

- 체제적인 접근은 투입-과정-산출에 의거하여 교육목표(투입), 교육활동(과정), 교육성과(산출)의 체제 적용
- 교육의 3요소 차원은 교수, 대학원생, 교육과정

○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
- 서면평가 실시
- 구성원 및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 제언

전문대학원은 지난 12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전문대학원에 대한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평가하여 기준미달 대학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나아가 전문대학원의 전문화·특성화 기준을 설정하여 역할 분담과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원 구성원 스스로 참여하고 개혁할 수 있는 내부 혁신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대학원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각 영역별 전문대학원만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체제를 기반으로 “계열별 전문대학원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원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공통지표”와 “계열별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2008년 대학원의 세계**.
- 김지영 · Rees, J.(2010). 영국의 학사 후 의학교육과정의 도입 및 전개과정.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2(1).
- 김성배(2011).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양성과정과 그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9, 61-87.
- 고용 · 박태준 · 성기선 · 유시민 · 윤종혁 · 이인효 · 채선희(1999). **연구중심대학의 형성과 발전**. 서울: 문음사.
- 김형관 · 이석열 · 손희권 · 신봉섭 · 이은구 · 김겸훈(2004). **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기초조사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반상진 · 신현석 · 이석열 · 이은구 · 김겸훈(200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연구보고서.
- 백정하(2005). 미국: 대학평가-자율적 질 관리. 교육정책포럼 제106호.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현 · 신현석 · 반상진 · 이석열 · 조경덕(2006).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연구보고서.
- 신현석 · 반상진 · 이석열(2005). 외국의 대학원 교육체제 분석 연구: 발전적 대학원 교육체제 구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 **비교교육연구**, 15(2), 53-86.
- 오성삼(2001). **세계 대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이인효 · 채선희 · 윤종혁 · 박태준 · 유시민(199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제도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천순 외(1992). **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부.
- 정우현 · 구병림 · 이화국 · 김형관(1988).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기언(2005). **대학의 이념: 대학의 전통과 개혁의 지표**. 서울: 한국학술정보.

British Council(2005). Choosing your postgraduate programme.

Hawkins. H.(1993). American Universities and the Inclusion of Professional Schools.  
*History of Higher Education Annual*, 13.

Shulman, Lee S.(2003). *The Carnegi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2000 Edition.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http://www.gse.harvard.edu/academics/index.html>

하버드대 문리과대학원. [http://www.gsas.harvard.edu/programs\\_of\\_study/degree\\_programs.php](http://www.gsas.harvard.edu/programs_of_study/degree_programs.php)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http://www.hsph.harvard.edu/administrative-offices/admissions/eligibility-requirements/index.html#degrees>

British Council(2012). <http://www.educationuk.org/Korea/Article/KRART211262430053554>).

국가법령정보센터(2012).<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x=0&y=0#liBgcolor0>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부.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프랑스 교사전문대학원. <http://www.iufm.fr>

파리10대학. [http://www.u-paris10.fr/MP09019/0/fiche\\_\\_\\_formation/&RH=for\\_dipg%E9n](http://www.u-paris10.fr/MP09019/0/fiche___formation/&RH=for_dipg%E9n)

그랑제꼴 협의회. [http://www.ecp.fr/cms/lang/fr/home/Formations/Masteres\\_Specialises/technologie\\_et\\_management](http://www.ecp.fr/cms/lang/fr/home/Formations/Masteres_Specialises/technologie_et_management)

## [부록 1]

### 전문대학원 평가지표(안)

전문대학원의 목적은 전문직업분야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통해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전문대학원은 실천적 이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주안점을 두는 일반대학원과 다르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전문가 인력의 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원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우수한 실무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전문대학원의 교육의 목표와 체계,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 학생(입학과 학생복지), 시설 및 재정, 교육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가. 교육목적과 체계

전문대학원의 목적이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양성되어야 할 전문인은 어떠한 모습의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대학원이 지향하여야 할 교육목적이며 그에 상응하여 평가하여야 할 지표들로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첫째, 전문대학원은 국가 또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예상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기에 적절한 교육목적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원에 육성하고자 하는 ‘전문가 상’이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해당 전문대학원은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실무 전문가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반영되고 있는가?

② 전문대학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상 혹은 졸업생들이 종사하게 될 주된 영역은 예정되어 있는가?

③ 전문대학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전문가’상을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목표에 명시되어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원의 제도의 도입취지 및 교육이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등 제도의 수준에서 제시되는 사항들과 당해 전문대학원을 설치한 설치 주체의 건학이념이나 교육이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교육목적을 감안하고, 그 전문대학원이 처하고 있는 교육여건, 그리고 당해 전문대학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교육목적과 구체적인 목표 등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목적, 목표가 체계화 되어 있는가?

② 여러 목표들과 활동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셋째, 전문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실천 및 그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양상에 탄력적이고 유효하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실천에 필요한 효율적인 적응방안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이러한 교육목표의 실천,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발전계획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발전계획에 장단기의 교육목표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② 전문대학원은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평가의 내용 및 절차, 방법은 교육목표의 실천 및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함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나. 특성화 계획

전문대학원은 특수영역에 전문적인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양성을 지향함으로 현재와 같이 백화점식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육 목표 및 교육여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재구성의 작업이 요청된다. 각 전문대학원이 나름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고 수월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운영하는가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특성화의 기본적인 의미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성화와 관련한 평가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대학원은 각각의 교육목표와 건학이념 그리고 교육여건과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나름의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② 특성화전략의 목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목표의 설정에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는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③ 특성화 계획에 당해 전문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특성이 포함되어 반영되어 있는가?

④ 특성화 계획은 사회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과 시대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계획은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특성화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등에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② 특성화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가?

③ 전문대학원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성화 계획과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셋째, 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계획의 실천여부의 평가 및 사후 교정의 체계는 적절히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제도는 존재하는가?

② 평가 절차와 방법은 합리적인가?

③ 평가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다. 교육과정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목적과 직결되어야 하며, 역으로 개개의 교육과정이나 교과과정들은 이러한 교육목적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현장의 실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실적인 생활감각과 건전한 인간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위와 업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실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능력과 더불어 전문직업윤리에 투철하며 전문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의 양성기관으로 설치되는 전문대학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전문직에 수반되는 윤리적 통제체계를 내화시킬 수 있는 교육도 수행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과 그에 상응하여 평가하여야 할 지표들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은 각 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및 특성화목표 등과 상응하는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즉 이러한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목적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교육과정은 당해 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특정화 목표 등을 각각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② 교육과정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고 교육과정상 각 전공에 따른 이수체계도 및 교육의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 ③ 전문가로서 직업윤리 및 책임론에 관한 교육과정은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둘째, 교육과정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양성하기에 충분한 교과목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졸업필수이수학점은 물론, 필수이수교과목과 선택이수교과목, 지식 요구와 실무기술교육의 배분, 전공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 등이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교육과정은 전문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윤리를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육량

(졸업이수학점)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필수실무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교과목의 지정은 적정하며, 그 학습의 양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③ 개설되어 있는 선택과목의 수는 풍부하며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는가? 선택과목이 특정한 분야나 전공영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전공과목선택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④ 전공과목은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켜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또한 전공선택 과목에는 다양한 과목을 포섭하는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셋째, 교육과정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전문분야의 발전, 변화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서비스 수요 및 그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자체적인 교육과정개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의 변경, 평가, 교육방법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②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운영가능성은 충분한가?

③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적절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④ 강의평가를 비롯한 학내외의 평가와 개선 제안을 수용하여 교육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넷째,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가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목의 수업 및 교육의 방법이 적절하고도 실용성 있게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담당교과목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각 교과목별 수업목표와 수업내용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강의계획서에 제시되어 학생들에 사전에 공지되고 있는가?

③ 수업 및 교육에 대한 성적평가 방법은 효율적이며 객관적인가?

다섯째, 지식과 기능에 있어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무가 이루어지는 학교외의 시설이나 기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소정의 기간 동안 충실한 실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의 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는가?

## 라. 교원

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의 실재를 담당하는 교원은 전문대학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육여건의 중심이 된다. 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교육목적에 비추어 실무의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교원들의 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원의 5분의 1이상은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교원과 그에 상응하여 평가하여야 할 지표를 들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문대학원의 교원은 단순한 학생지도 차원을 넘어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준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교원 1인당 학생정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교원 1인당 학생정원의 수는 교원의 교육·지도 등 업무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원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점에서 그러한 부담의 감소는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특성상 교원의 인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경력교원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대학원의 교원들은 그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있어 충분한 교육 및 연구보

조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기준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정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② 전문대학원은 최소 교원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은 실무경력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실무경력을 보유한 교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원의 교원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가치를 교육하여 전문가로 양성함에 충분한 연구경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의 교원들은 연구실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셋째, 전문대학원의 교원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가치를 교육하여 전문가로 양성함에 충분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의 교원들은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정도의 강의여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전문대학원 교원들은 석사학위과정의 교육에 상당할 정도의 비율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가?

③ 전문대학원의 교원에 대하여 연구와 강의를 보조하는 유급조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마. 학생(입학과 학생복지)

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학원과정에 입학시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기술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영역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나 학생의 지도 및 복지에 관한 각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관련한 평가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해당 분야의 최소한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당해 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입학전형계획이 구성·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형요소인 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 능력 등이 입학전형에서 반영되어 있는가? 입학전형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한 그것은 교육목표와 특성화계획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②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의 충원율, 중도탈락하는 학생비율 등 학생 정원과 관련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원은 장학금 제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경제적 약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② 장학금의 책정 및 배정은 성적위주로 지급되지 않고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셋째, 전문대학원은 고등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제반의 지도계획이나 시설·여건 등 학생지원체제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지도교수제, 진로지도 등 학생들의 학업이나 진로의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복지 및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바. 시설 및 재정

교육시설은 당해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방법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태에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전문대학원에 공여되는 교육시설은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 및 대학원 원내 활동을 최적의 상태로 보좌할 수 있는 수준에

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기술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은 교육과 실무의 교육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특유한 시설을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 및 재정과 관련한 평가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대학원은 지식과 전문기술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제반의 교육시설과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나 강연 기타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강의실을 갖추고 있는가?

② 전문대학원은 교육목적에 활용함에 필요한 실험실습 설비 및 기자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③ 전문대학원은 다른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숙식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하면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기숙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④ 전문대학원은 사용가능한 연구공간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원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자료와 문헌, 정보 등을 유효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도서 및 자료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②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 및 자료실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셋째, 전문대학원은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과 그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① 당해 대학교는 전문대학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으며, 그 재정운용의 안전성은 어떠한가?

② 당해 대학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및 교육비 투자율 등 재정배분계획은 어떻게 확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 교육성과

전문대학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기술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양성·배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전문대학원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성과와 관련한 평가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 ① 전문대학원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가?
- ② 전문대학원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부록 2]

# 설 문 지

## (교 수 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문대학원 평가지표 개발 및 질적 제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실무적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 하에 도입된 전문대학원은 그간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 설립 목적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을 담보할 정도로 내실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교수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반 상 진 배상

■ 다음 질문은 기초적인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귀하의 **재직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20년 미만  
                                  ④ 20년-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 귀하의 **직위**는: ① 전임강사    ② 조교수    ③ 부교수    ④ 정교수
- 귀하의 **소속**은: ① 학부 소속    ② 전문대학원 소속
- 귀하의 **교수 경로**는: ① 일반적인 학문적 업적을 기초로 전임교수가 된 경우  
                          ②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연구 업적을 기초로 전임교수가 된 경우  
                          ③ 특정 분야의 실무적 능력을 기초로 전임교수가 된 경우    ④ 기타
- 귀하의 **실무 경험**은:        ① 교수가 되기 이전에 실무경험이 있다  
                                  ② 교수가 된 이후에 실무경험이 있다    ③ 실무경험은 없다



7. 귀하의 **전공 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이공학계열 ③ 예체능계열
8. 귀 대학원의 **운영 형태**는: ① 주간 ② 야간 ③ 주간과 야간 모두
9. 귀 대학원의 **설립 시기**는? ① 2004년 이전 ② 2005년 이후 ③ 모름

■ 다음은 전문대학원에 관한 전반적인 문항입니다.

10. 귀 전문대학원은 실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은 **일반대학원과 비교하여**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은 **특수대학원과 비교하여**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전문대학원의 운영이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운영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전문대학원의 입학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14. 귀 전문대학원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필기시험점수 ②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③ 면접 ④ 각종 자격증 및 학업계획서  
⑤ 학부 성적 ⑥ 기타
15. 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특성**은 주로 어떠합니까?  
①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다  
②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다  
③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하다
16. 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7. 귀 전문대학원의 **입학경쟁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① 1:1 미만 ② 1:1 - 2:1미만 ③ 2:1 - 3:1 미만 ④ 4:1 - 5:1 미만 ⑤ 5:1 이상
18. 귀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입학 동기**는 주로 무엇입니까?  
① 보다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② 실무적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서  
③ 사회적 명예 혹은 이력관리를 위해서 ④ 인맥을 쌓기 위해서  
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⑥ 전공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서 ⑦ 기타

■ 다음은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19. 전체 강의 중 **실습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적다(10% - 20%) ③ 보통이다(30% - 40%)  
④ 대체로 많다(40% - 50%) ⑤ 매우 많다(50% 이상)

20. 전체 강의 중 **전임교수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다(30% 이하) ② 대체로 낮다(30% - 40%) ③ 보통이다(40% - 50%)  
 ④ 대체로 높다(50% - 60%) ⑤ 매우 높다(60% 이상)
21.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⑥ 5개 이상
22. 전체 강의 중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3. 전체 강의 중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4. 전체 강의 중 **외국인 교수의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5. 전체 강의 중 **학제 간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6. 귀 대학원은 **현장 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7. 귀 대학원은 출결관리와 성적 평가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귀 대학원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0% 이하 ② 50% - 60% ③ 60% - 70% ④ 70% - 80% ⑤ 80% - 90%  
 ⑥ 90% - 100% ⑦ 100% 이상
29. 귀 대학원은 **학위논문 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별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1주일에 1회 일정한 시간에 한다 ③ 1주일에 2회 이상 일정한 시간에 한다  
 ④ 거의 하지 않는다
30. 귀 대학원에서는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귀 대학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귀 대학원은 대학원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 귀 전문대학원의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3명 ② 4-6명 ③ 7-10명 ④ 11-15명 ⑤ 16명 이상
34. 귀 전문대학원의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어떠합니까?  
 ①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②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③ 종합시험의 통과 및 일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④ 종합시험의 통과 및 중앙학술지(학진등재후보지 이상)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 ⑤ 종합시험의 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 ⑥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으로 대체한다
- ⑦ 기타

■ 다음은 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5	대학원의 등록금은 적절한 수준이다					
36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37	대학원의 전용 공간이 충분하다					
38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자제가 충분하다					
39	대학원에 대한 행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40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 다음은 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42	전임교수 확보율을 강화해야 한다					
43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적실성(현장실습의 의무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44	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					
45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석사, 박사)만 수여해야 한다					
46	학생이 학위논문과 실무 보고서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7	평가 결과와 정부의 행·재정지원 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48	전문대학원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49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국제화는 강화되어야 한다					
50	대학원대학교는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 기타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 및 질 제고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생용]**

연구책임자: 반 상 진 배상

- 313 -

1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 ①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다 ②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다 ③ 기타

12. 귀하의 대학원 입학 동기는 주로 무엇입니까?

- ① 보다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② 실무적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서  
③ 사회적 명예 혹은 이력관리를 위해서 ④ 인맥을 쌓기 위해서  
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⑥ 전공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서 ⑦ 기타

13. 귀하의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 다음은 전문대학원에 관한 전반적인 문항입니다.

14. 귀하께서는 전문대학원이 실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은 일반대학원과 비교하여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귀 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은 특수대학원과 비교하여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전문대학원의 입학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17. 귀 전문대학원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필기시험점수 ② 지원자의 전·현직 이력 ③ 면접  
④ 각종 자격증 및 학업계획서 ⑤ 학부 성적 ⑥ 기타

18. 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특성은 주로 어떠합니까?

- ① 직장이 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다  
② 대학원만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편이다  
③ 시간제 대학원생과 전일제 대학원생의 비중이 비슷하다

19. 귀하께서는 어떠한 입학전형방식을 통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까?

- ① 일반전형 ② 특별전형 ③ 기타

20. 귀 전문대학원의 입학경쟁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① 1:1 미만 ② 1:1 - 2:1미만 ③ 2:1 - 3:1 미만 ④ 4:1 - 5:1 미만 ⑤ 5:1 이상

■ 다음은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21. 귀하가 수강했던 강의 중 실습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없다 ② 대체로 적다(10% - 20%) ③ 보통이다(30% - 40%)  
④ 대체로 많다(40% - 50%) ⑤ 매우 많다(50% 이상)

22.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⑥ 5개 이상
23. 귀하가 수강했던 강의 중 **원어로 진행하는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4. 귀하가 수강했던 강의 중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5. 귀하가 수강했던 강의 중 **외국인 교수**의 강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6. 귀하가 수강했던 강의 중 **학제 간 강의**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없다 ② 대체로 낮다(10% 미만) ③ 10% - 20%미만(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다(30% - 40% 미만) ⑤ 매우 많다(40% 이상)
27. 귀 대학원은 **현장 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8. 귀 대학원은 출결관리와 성적 평가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귀 대학원은 **학위논문 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별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1주일에 1회 일정한 시간에 한다  
 ③ 1주일에 2회 이상 일정한 시간에 한다 ④ 거의 하지 않는다
30. 귀 대학원에서는 **실험·실습 위주의 학위논문**을 요구하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귀 대학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귀 대학원은 대학원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 귀 전문대학원의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3명 ② 4-6명 ③ 7-10명 ④ 11-15명 ⑤ 16명 이상
34. 귀 대학원의 **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어떠합니까?  
 ①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②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③ 종합시험의 통과 및 일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④ 종합시험의 통과 및 중앙학술지(학진등재후보지 이상)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⑤ 종합시험의 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⑥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으로 대체한다  
 ⑦ 기타

■ 다음은 전문대학원의 교육 결과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35	대학원 교육에 대한 <b>대학원생의 만족도</b> 는 높은 편이다						
36	대학원 입학 이전과 비교하여 <b>실무 능력</b> 이 향상되었다						
37	대학원 입학 이전과 비교하여 <b>전문성</b> 이 향상되었다						
38	<b>졸업생의 취업</b> 은 잘 되는 편이다						
39	졸업생은 대학원 <b>전공과 관련된 분야</b> 에서 주로 활동한다						
40	교수는 졸업생에 대한 <b>사후 지도</b> 를 하고 있다						

■ 다음은 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41	<b>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b> 는 도입되어야 한다						
42	<b>전임교수 확보율</b> 을 강화해야 한다						
43	전문대학원 <b>교육과정의 적실성(현장실습의 의무화 등)</b> 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44	전문대학원 <b>졸업생의 취업률</b> 을 평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						
45	전문대학원에서는 <b>전문학위(석사, 박사)만</b> 수여해야 한다						
46	학생이 학위논문과 실무 보고서 중 <b>선택할 수 있는 제도</b> 가 도입되어야 한다						
47	평가 결과와 <b>정부의 행·재정지원 사업</b> 이 연계되어야 한다						
48	전문대학원의 <b>정원 감축</b> 이 필요하다						
49	전문대학원 <b>교육과정의 국제화</b> 는 강화되어야 한다						

■ 기타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 및 질 제고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R 2012-06

---

## **전문대학원 평가제도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발 행	2012년 10월
발행인	신 현 석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658 팩스 : (02) 3290-2985 <a href="http://hepri.korea.ac.kr">http://hepri.korea.ac.kr</a>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